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李 曼 靚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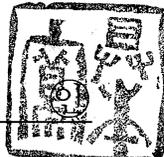
李 曼 靚

이만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원장 김 호 경 

부위원장 유 대 석 

위 원 구 본 관 



## 국 문 초 록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발음이나 문법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어휘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어휘는 어중에 따라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국제화는 언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외래어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외래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 및 사용 능력을 향상하고자 외래어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음의 음절을 그대로 표기하여 원음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강세가 들어있는 주요 음절만 표기함으로써 음절을 대폭 축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외래어는 파생, 합성, 품사의 중복, 생략, 신조어 등 다양한 구조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단일 외래어보다 외래어와 다른 어종의 단어나 접사를 결합하여 구성된 합성어, 파생어의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외래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효과적인 외래어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II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먼저 한국어 외래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기존 연구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리하여 한국어 외래어의 정의를 내리고 조어법에 따라 외래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학습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에서 한국어 외래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또한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

에게 교수 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외래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에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학습 경로, 수업에서의 학습 방식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외래어 사전 및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이해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 논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 양적 능력, 질적 능력, 그리고 전체 이해 능력을 살펴본 후, 오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제시하였고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조어법(어근, 접사 등 단위) 및 외래어 조어 유형에 대한 이해 교육, 조어법 지식을 활용한 외래어의 형태 특징의 분석 교육, 일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강조 교육, 외래어 의미와 영어 원어 및 중국어 외래어 의미의 비교 설명 교육, 그리고 의미망 구축 및 어근이나 접사 활용을 통한 새로운 단어의 생성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중시하는 'OHE(관찰-가설-실험)' 모형을 사용하여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과 교실 활동을 마련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조어 유형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조어법을 활용하여 외래어를 생성하거나 의미를 유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국인 학습자들이 외래어를 조어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쉽게 기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위하여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한국어 외래어, 조어법, 중국인 학습자, 어휘 교육

**학 번** : 2015-22190

# 차 례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2.1. 외래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	4
2.2. 외래어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	6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7
<b>II. 외래어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b> .....	11
1. 외래어의 개념과 유형 .....	11
1.1. 외래어의 개념 .....	12
1.2.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	20
2.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형태적 대조 분석 .....	50
2.1. 원어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52
2.2. 약어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57
2.3. 합성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59
2.4. 파생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62
3. 중국 내 한국어 외래어 교육 현황 .....	66
3.1.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분석 .....	66
3.2. 외래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76
4.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의 선정 .....	79
4.1.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 선정의 현황 .....	79
4.2.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 제시 및 난이도 설정 .....	80
<b>III.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양상 및 오류 분석</b> .....	88
1. 조사 방법 및 절차 .....	88
1.1. 조사 참여자 정보 .....	88
1.2. 조사 방법 및 자료 구성 .....	90
2. 조사 결과 및 분석 .....	94
2.1. 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	94
2.2. 외래어 어휘 양적 능력의 조사 결과 분석 .....	97

2.3. 외래어 어휘 능력(양적&질적 능력)의 조사 결과 분석 .....	101
3. 학습자의 오류 원인 분석 .....	113
3.1.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구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	113
3.2.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 .....	118
3.3. 표기법과 조어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오류 .....	122
3.4.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	126
3.5. 기타 .....	128
<b>IV.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실제 .....</b>	<b>130</b>
1.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	130
2.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 .....	132
2.1. 조어법 및 외래어 조어 유형에 대한 이해 .....	136
2.2. 조어법 지식을 활용한 외래어의 형태적 특징 분석 .....	137
2.3. 일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강조 .....	138
2.4. 외래어 의미에 대해 설명 .....	141
2.5. 새로운 단어의 생성 .....	144
3. 한국어 외래어 교육·학습의 방법 .....	145
3.1. 인식과 탐구를 통한 교육 방법 .....	145
3.2. 외래어 어휘지도 수업 모형 제시 .....	147
4. 외래어 교육·학습 효과 검증 .....	159
4.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	160
4.2. 실험 도구 .....	161
4.3. 실험 결과 분석 .....	164
<b>V. 결론 .....</b>	<b>174</b>
※참고문헌 .....	177
※부록 .....	185
※ABSTRACT .....	197

## 표 차례

<표1> 예비조사 결과 .....	2
<표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9
<표3> 사전에 실린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정의 .....	12
<표4> 외래어와 귀화어의 구분(1) .....	15
<표5> 외래어와 귀화어의 구분(2) .....	15
<표6>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	22
<표7> 약어에 대한 정의 정리 .....	25
<표8> 'AD'형 축합 외래어 예시 .....	31
<표9> 중국어 어휘 형태에 따른 분류 .....	51
<표10> 원어 형태의 한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	52
<표11> 원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	53
<표12> 음절수 일치한 한·중 외래어 대조 표 .....	53
<표13> 음절수 불일치한 한·중 외래어 대조 표 .....	54
<표14> 중국어 음의점역 외래어 및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 .....	56
<표15> 약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	58
<표16> 합성 원어와 대응되는 합성형 중국어 외래어 예시 .....	59
<표17> 단일어 원어와 대응되는 합성형 중국어 외래어 예시 .....	60
<표18> 부가식 중국어 외래어 예시 .....	63
<표19>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어종의 유형 .....	64
<표20>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어종의 유형 .....	64
<표21>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품사의 양상 .....	64
<표22>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품사의 양상 .....	64
<표23>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음절수의 양상 .....	65
<표24>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음절수의 양상 .....	65
<표25> 분석 기준 .....	67
<표26> 학습 내용 분석 .....	67
<표27> 연습 활동 분석 .....	68
<표28> 『표준한국어』(1) 외래어 뜻풀이 .....	70
<표29> 『표준한국어』(2) 외래어 뜻풀이 .....	71

<표30> 『표준한국어』 (3) 외래어 뜻풀이	71
<표31> 『한국어』 (1) 외래어 뜻풀이	72
<표32> 『한국어』 (2) 외래어 뜻풀이	72
<표33> 『한국어』 (3) 외래어 뜻풀이	73
<표34> 『한국어』 (4) 외래어 뜻풀이	73
<표35> 교육용 일반 외래어 목록 및 난이도 제시	82
<표36> 난이도 설정 참고기준 및 각 요소 점수 부여	85
<표37> 신조 외래어 목록 및 난이도 제시	87
<표38>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89
<표39>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예시	93
<표40> 조어 유형별 오답률	95
<표41> 해당 외래어를 모두 찾지 못한 비율	97
<표4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자의 오답률	98
<표43> 참여자의 범주별 외래어 지식의 양	102
<표44> 질문1 (알고 있는 단어)의 실제 정답과 오답의 평균	103
<표45> '어휘 유추'의 성공 및 실패 평균	103
<표46> 참여자들의 총 외래어 지식 크기	104
<표47> 참여자들의 '어휘 유추' 사전과 사후 결과 비교	105
<표48> 조어 유형별 이해 불가능 비율	106
<표49> 외래어 유형 분류	110
<표50>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참여자의 이해 불가능 비율	111
<표51> 설문지 문항 예시(1)	116
<표52> 설문지 문항 예시2	119
<표53> 설문지 문항 예시3	122
<표54>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래어 표기법의 예	124
<표55>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132
<표56> 외래어 목록 분류화	133
<표57> 교육 유형별 내용 및 어휘	135
<표58>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	136
<표59> 한국어 외래어의 조어 유형	137
<표60> 조어법에 의한 외래어 형태 특징 분석	137

<표61> 국립국어원 영어 표기 세칙 .....	139
<표62> 언어 교수법의 분류 .....	146
<표63> 실험 참여자 정보 .....	160
<표64> 검증 실험 절차 및 방법 .....	161
<표65> 사전 평가지 문제 내용 예시(1&2) .....	162
<표66> 실험 외래어 목록 .....	163
<표67> 망각 정도 측정 결과 .....	167
<표68> 조어 유형별의 사전 및 사후 추측 능력 비교 .....	168
<표69>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	174

## 그림 차례

<그림1> 한국어 외래어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인식 .....	76
<그림2> 외래어 학습 경력 및 경로 .....	77
<그림3> 중국 내 외래어 교수 방법 및 내용 .....	78
<그림4> 해당 외래어를 모두 찾지 못한 비율 .....	97
<그림5> 한국어 단어의 조어법 .....	137
<그림6> 참여자 단기 기억 평가 결과 .....	164
<그림7> 장기 기억 평가 결과 .....	165
<그림8> 망각 정도 측정 결과 .....	166
<그림9> 실험 전후의 추측능력 변화 비교 .....	16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현대 사회는 바야흐로 신속한 발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경제 글로벌화 및 세계 다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각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어휘는 사회 환경의 변화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발전은 어휘의 변화와 발전에 반영될 수 있다. 외래어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학습자들은 외래어를 이해하고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소영(2012)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중급 수준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들 중 외래어를 한글로 쓰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69%, 외래어 표기법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85.7%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한편,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접해야 하는 외래어의 수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2012)은 한국어능력시험(10회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급에서 중·고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수의 외래어가 출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즉, 초급에서 96개, 중급에서 112개, 고급에서 126개의 외래어가 출현하고 있었다. 이렇듯 외래어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연구이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국제화가 언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외래어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외래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요즈음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로 국제 교류, 경제 문화 교류의 의사소통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러 국어 학자들이 한국어 외래어의 사용 실태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수현(2005)에서는 한국 방송국(KBS, MBC, SBS) 프로그램의 제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외국어나 외래어로 된 제목이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웃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정복(1998)은 통신 운영자와 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래어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외래어만으로 구성되었거나 외래어를 포함하고 있는 메뉴는 전체의 47%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홍지혜(2012)에서는 패션 잡지의 외래어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어절에서 외래어가 35.6%의 비율로 쓰이고 있었다. 특히 어중에 따라 외래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외래어'가 88.8%, '외래어+고유어'가 10.7%, '외래어+한자어'가 0.5%로 그 비중을 차지하였다.(유연(2013)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외래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외래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며 대부분 음운적 측면에 중점을 둔 한·중 대조 분석 연구로 조어법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교육은 음운, 형태, 의미 세 가지 측면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6년 5월에 중국인 학습자 초급 4명, 중급 8명, 고급 8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자료로 삼은 외래어들은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sup>1)</sup>와 국립국어원(2012, 2013, 2014)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각 등급 별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외래어 104개'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래어의 의미를 중국어로 쓰고 모르면 추측한 후 추측 방법을 쓰도록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등급 별 오답률을 다음 <표1>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 예비조사 결과

	A급 단어(43개)	B급 단어(49개)	C급 단어(12개)
초급 학습자의	2.33%	36.22%	77.08%

1)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3년 5월에 발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이다.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 총 5,965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5,965개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1단계는 A, 2단계는 B, 3단계는 C로 표시되어 있다.

평균 오답률			
중급 학습자의 평균 오답률	5.2% <sup>2)</sup>	17.09%	23.96%
고급 학습자의 평균 오답률	1.45%	12.24%	13.54%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외래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는 원어 형태 외 형태 변화가 있거나 다른 어종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외래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측 부분의 답안 양상을 살핀 결과, 한국어 외래어를 단어 구조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단어 조어법을 분석하여 어휘를 유추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 예비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어 외래어 형태의 불안정성이다. 강성애(2007)는 "오래 전에 유입되어 이미 자국어에 정착한 외래어의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법을 사용하여 혼란이 없지만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외래어의 경우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표기법의 차이이다.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음의 음절을 그대로 표기하여 원음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강세가 들어있는 주요 음절만 표기함으로써 음절을 대폭 축소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파생, 합성, 품사의 중복, 생략, 신조어 등 다양한 구조 유형<sup>3)</sup>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

2) A급 단어의 경우에는 중급 학습자의 평균 오답률은 오히려 초급 학습자의 평균 오답률보다 크다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고급 수준인 학습자라도 '볼펜', '에어컨' 등 초급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슈퍼마켓'을 '菜場(시장)'으로, '커피'를 '複印(카피)', '노트'를 '筆記本(노트북)'으로 번역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

3) 심혜(2012)는 한국어 외래어의 수용 방식에 따라 한국어 외래어의 유형을 분류 검토하였다. 한국어 음역 외래어를 주 형태 별로 분석하여 원어 형태(golf-골프, table-테이블), 축약 형태(signature-싸인[sign], apartment-아파트[apart]), 복합

른다. 게다가 신어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외래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보다 더 높은 조어력을 가진다. 단일 외래어보다 외래어와 다른 어종의 단어를 혼성하여 구성된 합성어의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외래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외래어를 조어법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한다.

둘째, 교재 분석 및 교수·학습 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어 외래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래어의 교육 현황 및 교수·학습상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형태적 측면을 주목하여 대조 분석한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오류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힌다.

다섯째,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어법을 활용한 한국어 외래어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목표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찾고자 한 논문이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래어의 조어법을 이해시킨 후 학습자가 알고 있는 한국어 외래어를 토대로 새로운 어휘를 유추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어휘력을 증가시키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외래어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국어학에서의 연구와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연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어학계의 연구는 외래어 유형,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어휘 범주 설정, 외래어의 사용 양상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학습용 외래어 목록의 선정, 외래어의 수용 양상 및 제1언어와의 대조 분석, 외래어 교육 방안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1. 외래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형태 (shopping+center-쇼핑센터, office+hotel-오피스텔), 파생 형태(cool-쿨하다, open-오픈하다, -맨[man]-개그맨, 엘리트맨 등)으로 나누었다.

먼저 국어학 쪽에서의 연구들로는 민현식(1998), 이상혁(2002), 김수현(2005), 이상숙(2005), 김미나(2011), 유약남(2012) 등을 들 수 있다.

민현식(1998)은 외래어의 유형에 있어서 차용 동기에 따른 유형을 필요 외래어와 잉여 외래어로 나누었으며, 지속성에 따른 유형은 정착 외래어와 일시(유행) 외래어로 분류하였고, 또한 외래어의 어형에 따라 그대로 차용하는 직접 차용과 수용 언어로 번역하여 차용하는 간접 차용으로 나누었다.

이상혁(2002)은 외래어와 국어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고유어와 한자어를 가지는 어휘군, 고유어만 가지는 어휘군, 한자어만을 가지는 어휘군, 그리고 외래어만 가지는 어휘군"이다. 또한 외래어가 국어로 동화되는 과정을 또 다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외국어가 바로 외래어로 형성된 어휘군이다. 둘째는 외국어가 발음 변화를 거쳐 외래어로 형성된 어휘군이다. 셋째는 외국어의 형태나 그 원어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어휘군"이다.

김수현(2005)은 서구 외래어를 대상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외래어 표기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외래어에 대한 국어학계 연구에서 표기법이 학문적으로 논의된 역사는 길지 않다.

이상숙(2005)에서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에 나타난 오류 현상과 그 오류 현상을 바탕으로 한 외래어 표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외래어 표기 오류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언어권과 한국어 숙련도에 따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의 모든 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있음을 있었으며, 각 언어권 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공통된 오류에 대한 외래어 표기의 활용 방안은 제시 되었으나 단일 언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유약남(2012)에서는 표기와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한·중 외래어에 대한 비교를 하였고, 노명희(2013)에서는 외래어의 의미 전이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김미나(2011)에서는 학습용 외래어 목록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습용 기본 어휘 선정뿐만 아니라 한국어 외래어와 순화어의 유의 관계까지 언급하였다. '여러 기존 학습용 외래어 목록'과 '강현화 외(2010)'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실제성을 가진 새로운 한국어 외래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오혜선(2013)은 현대 한국어 신조어의 유형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종에 따라 크게 고유어 신조어, 한자어 신조어, 외래어 신조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어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에도 혼종어란 어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다시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서술하였다.

## 2.2. 외래어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래어에 대한 연구들은 문승실(2004), 조은호(2006), 송혜정(2007), 김낭예(2010), 박지영(2011), 송연화(2011), 정정정(2012), 이기영(2013) 등이 있다.

문승실(2004)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환경과 그 환경으로 인해 외래어 표기에서 나타나는 오류 현상을 살펴보았다. 오류들을 '모음, 자음, 음절'로 나누어 각 언어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를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은호(2006)에서는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원 교재에 나와 있는 외래어의 문제점, 외래어의 특징(음운·형태·통사 별로) 등을 분석하여 외래어에 대한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외래어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송혜정(2007)은 외국어가 한국어 외래어로 정착하면서 원어로부터 어떤 유형의 의미 변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학습용 한국어 외래어 기본 어휘 목록화 연구'와 '한국어 외래어의 표기 교육 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의미 변이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다.

김낭예(2010)에서는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해 출판된 교재에 제시된 외래어를 대상으로 각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박지영(2011)은 표기 및 의미장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그림을 활용한 한국어 외래어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보았다. 또한 분야에 따라 한국어 외래어를 나열하여 학습용 한국어 외래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송연화(2011)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외래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여러 가지 기존 어휘 자료를 분석하고 실용적인 외래어 목록을 정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법 교육 방안'과 '형태·의미 교육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정정정(2012)은 한·중 외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교육용 한국어 외래어 목록을 정리하였고 특히, 중급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기영(2013)은 언어와 문화가 접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외래어의 의미 변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한국어 교유에서의 외래어 의미 교육 방안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쪽에서의 연구 중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로는 이은영(2005), 장성희(2007), 송연화(2011), 정소(2013)가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논의가 제한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속에서 학습자가 외래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외래어 목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조어법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유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형태 구조에 대한 인식 양상을 발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외래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후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상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한국어 외래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외래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방안 설계 부분에서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외래어는 유입된 나라에 따라 영어 외래어, 일본어 외래어, 중국 외래어, 독일 외래어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단어 조어 유형에 따라 한국어 외래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하어 지금까지 다양한 외래어 유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학자들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다시 정리한 후 한국어 외래어를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을 정하기 위해 한국어 외래어 사전 및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외래어 목록은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실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외래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리하여 한국어 외래어의 특징을 발견하고, 조어법에 따라 외래어를 유형 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학습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에서 한국어 외래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또한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자 태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외래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에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학습 경로, 수업에서의 학습 방식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어 외래어 사전 및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이해 양상을 확인했다. 실제 이해 및 인식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능력을 전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조어법에 대한 조사, 어휘 양적 능력에 대한 조사, 어휘 질적 능력에 대한 조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작성했다. 설문지 문항은 II장의 이론과 선정된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주로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3단계)』, 『신어 자료집』

(2004) 등의 자료에서 어휘, 해석과 선행 연구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출신인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인식 및 이해 양상을 제시하고 오류를 유형 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를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인식 및 이해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한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추측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사 참여자 중 10명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제시하였고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어휘 지도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외래어의 형태적, 의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화용적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을 질적,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어 교육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한 원인에 근거하여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 및 한계점을 밝혔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표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 방법
II 장	외래어의 개념과 조어법에 따른 유형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의 외래어 선행 연구	문헌 연구
	한·중 외래어의 대조 분석	선행 연구	형태적
	중국 내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 현황 고찰	민족출판사 『한국어』 (1~4) 북경대학교 출판사 『표준한국어』 (1~3)	교재 분석
		외래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	설문 조사

	중급 학습자 교육용 외래어 목록 선정	강현화(2012, 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2단계)』 국립국어원(2014), 『신어 자료집』		엑셀 통계
Ⅲ장	중국인 학습자 외래어 이해 및 오류 양상 조사 분석	연구 참여자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 84명	-설문 조사 -사후 인터뷰 -통계분석
Ⅳ장	교수·학습 방안 마련	Ⅱ장,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래어의 교수 방안 제시		

## II. 외래어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 1. 외래어의 개념과 유형

한국어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빌려 와서 쓰게 된 차용어로서 본디 예부터 한국어가 가지고 있던 고유어와는 다르다.<sup>4)</sup>

박종후·하지경(2012)을 참고하여 외래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자어나 외국어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박종후·하지경(2012)에 의하여 "외래어와 한자어는 고유어가 아닌 차용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자어는 사용해 온 기간이 워낙 오래되고 그 어휘 수도 방대하다 보니,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빌려온 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외래어와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박종후·하지경(2012)은 한자어를 고유어와 대립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외래어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의 부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도 외래어 연구 대상에서 한자어를 제외하도록 한다.

노명희(2009)에서는 본래부터 한국에서 쓰였던 것을 고유어라고 하고 남의 나라말에서 들어와 한국어의 일원이 된 것을 차용어라 하며, 차용어에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은 한자어라 보고, 원어의 발음대로 읽어서 들어온 것을 외래어로 보고 있다.<sup>5)</sup>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외래어란 무엇인가? 외래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학자에 따라 차용어와 외래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노명희(2009:7-8)에서와 같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대비하여 이 둘을 차용어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기로 한다.

5) 중국에서 들어온 말일지라도 원어 발음대로 읽히는 '라조기(辣椒雞)'는 외래어가 되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학교(學校)'는 한자어가 된다.

## 1.1. 외래어의 개념

먼저, 외래어의 사전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하고, 동의어로 들은말·전래어·차용어를 들고 있다. 『응용언어학사전』에서는 외래어를 언어 접촉을 통하여 한 언어의 어휘나 문법, 음운 현상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것으로, 차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어 교육학사전』에서는 외래어가 다른 언어 체계의 자료를 국어의 체계에 빌려와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승인된 말을 의미하며, 귀화어·외래어와 함께 차용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정의한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 중에서 우리말이 된 것으로 정의한다. 사전에 실린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정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사전에 실린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정의

사전	외래어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 (1999)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응용언어학사전』 (2001)	언어 접촉을 통하여 한 언어의 어휘나 문법, 음운 현상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것으로 차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어 교육학사전』 (1999)	다른 언어 체계의 자료를 국어의 체계에 빌려와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승인된 말을 의미하며, 귀화어(歸化語)·외래어와 함께 차용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연세한국어사전』 (2006)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 중에서 우리말이 된 것.

다음으로 외래어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 a. 외국어 체계에서 자료와 형식을 차용하되, 그것이 국어에 적응 또는 동화되어서 국어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승인 또는 관습화하여 외국어 의식이 없이 사용되는 것 (이용주, 1965:95)
- b. 다른 언어 체계의 자료를 국어의 체계에 빌려와 사회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것 (박갑

6) 박지영(2004:6-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수 외, 1973:323)

- c. 서양으로부터 차용 귀화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근대 이후의 차용어 (심재기, 1982:109)
- d. 외래어라 함은 다른 나라의 언어 체계 속에 있는 언어를 자국어의 속으로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쓰이는 단어 (박희상, 1984:6-7)
- e. 외래어는 외국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말에 들어와 우리말로써 쓰이는 것 (유만근, 1990:3)
- f. 다른 언어 체계의 자료를 자국어 체계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빌어 넣어서 사용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 (천사권·김종택, 1991:24)
- g.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받아들여 제 어휘 체계 안에 수용하는 행위를 차용이라고 하며, 차용된 말은 차용어 또는 외래어라 부름 (김완진, 1991:2)
- h.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를 가리킴 (임동훈, 1996:41)
- i.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되 우리말이지 외국어가 아님 (김세중, 1997:209)
- j.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로 외국어가 아니고 국어에 속한다 (김세중, 1998:5-6)
- k. 외래어는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 (이정복, 1998:62)
- l.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자국어에 동화되어 사용되는 어휘 (송철의 1998:25)
- m. 외래어는 그 차용원이 대부분 외국어인 단어이다. 외래어 의식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말 문맥에서 한글로 적히거나 한글 자모로 대표되는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면 외래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홍빈, 2008:12-28)

위의 정의들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정희원(2000)에서는 외래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정희원(2000)에 따르면 외래어란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국어에 동화되어 국어로 사용되는 어휘들을 이른다. 외래어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는 외래어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외래어는 국어에 본래부터 있던 어휘가 아니라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 생활 속에 쓰이면서부터는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김민수(1978)에서는 외래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 둘째, 외래어는 수입되어야 한다. 셋째,

외래어는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 넷째, 외래어는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어라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특징에 따라 한국어 외래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외래어를 '광의의 외래어'와 '협의의 외래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정희원(2004)에서는 김민수(1973)의 외래어 개념을 바탕으로 광의의 외래어 개념을 외국어, 차용어, 귀화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sup>7)</sup>. "외래어는 일차적으로 낱말의 기원이 외국어임을 지시하는 말로서 귀화어인 한자어와 차용어(협의의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동화되지 않은 외국어 낱말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하였고 이것을 그는 광의의 외래어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왔지만 상당히 동화되어 국어의 일부가 된 차용어, 즉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어사전 식의 외래어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의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희원(2004)은 외래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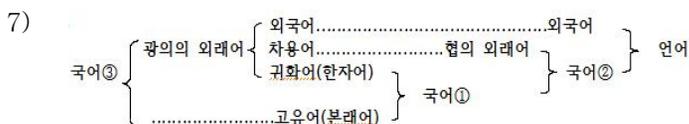
- (1) 근대 이후 한자어가 아닌 외국어에서 한국어에 들어와야 한다.
- (2) 한국어의 어휘 체계 내에 정착해야 한다.
- (3) 한국어 화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여야 한다.

외래어의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및 외래어와 인접한 귀화어, 차용어, 외국어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귀화어, 차용어, 외국어의 개념을 각각 정리하고 외래어와 구분하고자 한다.

### 1) 외래어와 귀화어

언어학에서는 단어를 자국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정도에 따라 귀화어, 차용어, 외래어 세 단계로 구분한다.

원홍연(2009)은 외래어와 귀화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4> 외래어와 귀화어의 구분(1)<sup>8)</sup>

들은말	외래어	동화·토착화되지 않음	고유어와 의미 분화·경쟁·충돌을 하면서 동화와 토착화가 진행 중인 서구 어족 낱말 대부분
	귀화어	동화·토착화됨	'고무', '담배', '남포' 등과 같이 토착화한 외래어와 한자어의 대부분

이덕호(1980:46)에서 차용어는 외국을 통해 자국어 어휘 체계 속에 뛰어난 외래어와 귀화어를 총괄·내포하는 외연이 큰 개념으로, 외래어와 귀화어는 차용어에 내포된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5> 외래어와 귀화어의 구분(2)<sup>9)</sup>

국어	차용어	외래어	서구 어족 외래어
			몽골 어족 외래어
			일본어족 외래어
			중국어족 외래어
		범어족 외래어	
		귀화어	서구 어족 귀화어
			범어족 귀화어
			몽골어족 귀화어
	한자어족 귀화어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와 귀화어를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 완전 정착된 한자어를 귀화어로 보고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외래어와 차용어

'차용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언어에서 빌려다 쓰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한국어에 들어와서 '차용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외래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차용어를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 미세한 차이를 강조하여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외래어와

8) 심혜(2012:10)의 <표2>내용을 참조하였다.

9) 심혜(2012:1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차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다룬 연구는 임홍빈(1996), 민형식(1998) 등이 있다. 임홍빈(1996), 민형식(1998)에서는 외래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면서 외래어와 차용어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차용어와 외래어가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외국어와 달리 국어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별하여 다룬 연구는 김민수(1978), 정희원(2004) 등이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김민수(1978)에서는 외래어를 광의의 외래어와 협의의 외래어로 나누어 "광의의 외래어는 '외국어, 차용어, 귀화어'를 다 총괄한 것이고 협의의 외래어는 차용어만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정희원(2004)은 '외국어 어원', '널리 사용됨', '동화 과정 완료', '언중의 외국어 인식' 등의 항목을 가지고 외래어, 차용어, 그리고 귀화어를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는 모두 외국어에서 와서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는 낱말이다. 그 중에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외국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는 말들은 귀화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언중이 외래 어휘임을 인식하는 나머지 낱말들은 모두 외래어이다. 그들 중에 동화 과정이 완료되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은 따로 차용어라는 말로 구분해서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와 차용어의 구분이 여전히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혜(2012)에서는 단지 동화의 정도로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표준화된 동화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분하는 작업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3) 외래어와 외국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외래어와 외국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언어생활에서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희원(2004)은 이론적으로 외래어가 외국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정도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관심사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커피, 피아노'

등의 어휘는 누구든지 외래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보스(boss)', '오너(owner)', '루머(rumor)', '비전(vision)' 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어휘들은 국어사전에 따라 표제어로 등재된 상태도 달리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노명희(2009)에서 외래어는 흔히 외국어와 구별하여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국어에 정착된 단어만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외래어는 국어의 일원이지만 외국어는 국어가 아니므로 순화 대상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시기별로 정리한 연구자들이 외래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김민수(1973:103-104)에서 '외래어'의 정의는 노명희(2009)에서 언급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 속에 정착되어 사용되는 단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한국어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쓰임의 조건'과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동화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0)</sup> 김세중(1998:5-6)도 마찬가지로 김민수(1978:103-104)와 거의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외래어를 외국어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해 임홍빈(2008:12-28)은 "차용원이 외국어인 단어가 한글로 적히거나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는 것"을 모두 '외래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외래어를 외국어와 구별하여 한국어에 속하는 예만을 포함시키던 기존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정의이다.

여러 논의를 살펴본 결과, 외래어와 외국어를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명희(2009)는 외래어의 개념을 가장 폭넓게 생각한다면 외래어와 외국어가 고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외국 기원의 어휘를 쓴다면 이들은 잠재적인 외래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뉴스에 새로운 외국어가 언급된다면 이는 당장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완전히 한국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여 사용되어야 하겠지

---

10) 임홍빈(1997:199-204)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 단어를 구별하는 조건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래어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만 일단 잠재적인 외래어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단순히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외래어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분명 한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구별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sup>11)</sup>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외래어는 한자어를 포함하지 않는 영어계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학자에 따라 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고 동화의 여부를 기준으로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sup>12)</sup> 본고는 외국어, 외래어, 차용어는 단어형성에 있어 동일한 행동 유형을 보인다는 이광호(1997:520)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희원(2004)에서 외래어를 유입된 시기와 또 새 언어에 대한 동화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발음이나 의미가 모두 외국어의 모습 그대로인 외국어의 단계, 둘째, 발음이나 형태 등이 어느 정도 한국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한 차용어 단계, 셋째, 본래 그것이 속해 있던 언어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쓰이는 귀화어의 단계가 그것이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말로는 대부분의 한자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어휘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한자어들도 엄밀히 따지면 먼 옛날 중국어로부터 들어온 외래어들이다. 국어 화자들이 외래어로 인식하는 것들은 대개 위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20세기 이후에 주로 영어 등 서양의 언어에서 들어온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외래어가 본디 다른 언어, 즉 외국어에서 온 것인 만큼 그 판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본고에서는 정희원(2004)의 주장을 참고로 하여 귀화어를 제외한 광의 외래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어느 정도 국어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어에서 한국어에 들어와 한

---

11) 이광호(1997)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은 이질성에 대한 언중의 인식 정도에 근거하는 것인데, 단어 형성에 있어서는 그 둘이 그 이질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동 유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 학습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라고 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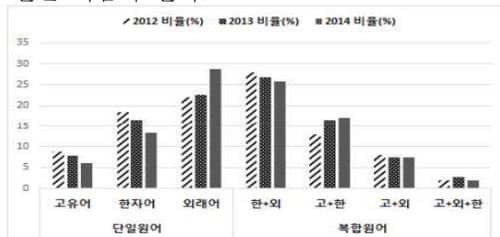
12) 외래어, 외국어, 차용어 구별에 대하여 이덕호(198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국어에서 쓰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과 외국의 인명·지명, 외래어와 한자어나 고유어, 혹은 두 가지 이상 외래어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 즉 '스키장'이나 '고속버스'처럼 복합어의 일부가 외래어인 경우, 그리고 신조어의 일부가 외래어인 경우까지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형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의 조어법을 폭 넓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형성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이광호(1997), 카노크완(1999), 그리고 강나탈리야(2008)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외래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외래어의 조어법에 주목하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다.

정희원(2004)은 외래어는 고유어나 한자어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 단어를 형성하는 등 한국어 속에서 활발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늘날 한국어 어휘체계 내에서 외래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고유어, 한자어에 비하여 외래어가 단어 형성에 있어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일 것이다. 조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외래어는 복합 개념을 하나의 단어 속에 종합하여 표현하는 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래어의 결합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유로운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 유입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외래어는 대부분 명사이다. 명사형 외래어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형태소로서, 이들을 서로 조합하면 다양한 의미의 단어를 생성할 수 있어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어 목록에서 고유어에 비해 외래어나 한자어가 포함되는 어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sup>13)</sup> 앞으로 외래어 어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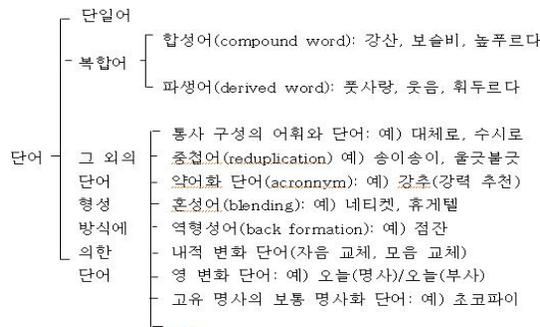
13) 『2014 신어 자료집』에 따라 최근 3년간 단일한 어원으로 구성된 신어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외래어는 상승하였다. 그리고 복합원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래어가 참여하여 구성된 혼성어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어에 따른 신어의 출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라고 말하면서 외래어의 생산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수·학습은 어휘 확장의 한 요목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1.2.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한국어에서 형태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을 조어라고 하고 이 조어의 방식을 조어법, 또는 단어 형성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단어를 조어법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가리키며, 복합어는 두 개나 그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복합어는 그 형성방식에 따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전통적인 조어법, 즉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에서의 조어법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눈다. 그러나 합성법이나 파생법에서 벗어난 단어 형성 방법이 매우 많다. 따라서 최근 몇 십 년 사이에는 전통적인 분석법과 달리 단어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의 조어법도 나타난다. 구분관 외(2015:115)에서 단어 형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외래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외래어 조어법이라고 통칭한다. 주로 구분관 외(2015:115)의 '단어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외래어 조어법을 원어형 외래어, 약어형 외래어, 파생 외래어, 그리고 합성 외래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한국어 외래어 중 원어형을 제외한 약어형, 파생형, 합성형 이 세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합 방식, 외래어 단어의 생성 규칙과 예시를 제시하고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정지혜(2013)는 외래어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어휘는 양적으로 팽창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구의 원어 요소가 한국어 속에 유입되어 원어의 모습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형태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외래어가 신조어에서 변화된 형태로 조어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외래어 형태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명희(2009)에서 외래어를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 단일어 형성에는 절단형 단일어와 '어근+하다/되다/시키다' 형식으로 구성된 단일어, 복합어 형성에는 파생어 형성과 합성어 형성 구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정지혜(2013)에서는 네 가지 조어법 유형(즉 절단어, 약어, 합성어, 파생어)으로 원어에서 볼 수 없는 외래어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광호(1997)의 3장에서는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을 고찰하면서 외래어 요소가 국어에서 어기 역할을 할 때 갖는 특성을 관찰한 후,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하는 파생, 그리고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합성을 살펴보았다. 3.4.에서는 3.3.까지 살펴본 방법 이외에 고유어의 단어 형성 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생성된 단어를 살펴보는데, 3.4.1.에서는 동의 중복을 통한 단어 형성을, 3.4.2.에서는 절단에 의한 단어 형성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외래어 요소를 어기로 한 단어 형성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외래어 요소가 접사로 기능하는 단어 형성을 다루었다.

정근용(1998)에서는 약어에는 자른말, 머리음절말, 꼬리음절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자른말을 약어의 하위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꼬리음절말은 외래어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약어는 본말과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말인데, 뒤섞임말이 일어나면 의미의 변화가 생겨 '약어'의 기본 속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스모그(smog)를 스모크(smoke)와 포그(fog)와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섞임말은 본래 형태보다 간략화되어 약어처럼 보이나 약어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약어의 하위분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1994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 발행한 『현대국어 약어목록』<sup>15)</sup>에 수록된 약

14) 박홍길(1983:26)에서는 "뒤섞임말은 의미변화의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15) 정근용(1998)에 의하여 『현대국어 약어목록』에 실린 주요 약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본말을 이루는 단어의 첫 음절이나 첫 글자가 결합된 것.

어를 살펴보면 '프로 ← 프로그램(program)'과 같은 절단형 외래어가 약어에 속한다고 간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단어의 경우 원형식과의 의미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원형식과 축소어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절단형 외래어를 약어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외래어 유형의 분류를 종합하여, 외래어를 크게 '원어형 외래어, 약어형 외래어, 파생형 외래어, 합성형 외래어'로 나누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형태론적 삭감이 적용된 약어의 하위 유형에는 줄곤 두음절어 및 절단어와 같은 것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약어 중에는 두음절어와 절단어라는 개념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sup>16)</sup> 약어의 하위 유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약어형 외래어를 절단형 외래어, 두음절어형 외래어, 그리고 축합어형 외래어의 상위어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약어형 외래어는 세 가지 종류 형태의 축소어를 포괄한다. 파생형 외래어의 경우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으로, 합성형 외래어의 경우 외래어와 외래어, 외래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유형 등으로 세분할 것이다. 즉, 4개 대범주와 15개 세부 유형으로 외래어의 단어형성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래어의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표6〉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원어형 외래어
약어형 외래어	절단형 외래어 (A형/B형/Z형) 18)	전부 절단형 외래어 (B형: B←AZB)
		후부 절단형 외래어 (A형: A←AZB)
		중간 절단형 외래어 (AB형: AB←AZB)

(2) 두 말 이상이 합쳐져 공통부분이 생략된 것.

(3) 본말의 일부가 절단(생략)된 것.

(4) 본말을 이루는 말들의 일부가 절단된 것.

16) 이호승(2014)에서 약어에는 전형적인 두음절어나 절단어 외에도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기 어려운 축소형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7) 정지혜(2013), 정근용(1998)과 노명희(2009)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두음절어 <sup>19)</sup> 형 (AC ← AZB CZD )	
	축합어형 외래어	AD형 외래어 (AD ← AZB CZD)
		'A-+X'형 외래어 (A-+X ← AZB X)
		'X+-D'형 외래어 (X+-D ← X CZD )
		불규칙 축합
파생형 외래어	접두 파생어 형태 외래어	
	접미 파생어 형태 외래어	
합성형 외래어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외래어 단어생성 규칙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외래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언어를 배울 때에는 수많은 단어들과 익숙해져야 한다.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 외래어가 가진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어 외래어를 배우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어 외래어에는 다양한 단어 생성규칙이 있고, 현재에도 새로운 외래어들이 이 규칙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예시를 통해 외래어 생성 방법을 익힌다면 한국어 외래어 학습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약어형 외래어

이혜은(2008)은 영어가 한국에 유입되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영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콩글리시(Konglish)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콩글리시란 'Korean+English'의 합성어로서, 영어 문장을 표현할 때 원어민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식 영어가 사용되어 생성된 단어를 뜻한다. 흔히 알고 있는 콩글리시는 백밀러(영어로는 rear-view mirror)와 같이 한국 안의 영어 어휘 중에서 한

18) 본고는 외래어 형성에 참여하는 두 단어를 X와 Y로, 이 단어가 삭감되는 경우에 X는 AZB로, Y는 CZD로 표시하기로 한다.

19) 한국어 연구에서 acronym을 '두자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자어'라는 개념은 본래 영어와 같은 음소언어에 적합한 용어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음소언어이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는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지양(1996:25)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두음절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어의 기준이 적용되었거나, 영어 문장을 표현할 때 한국어의 문법적인 요소가 사용되어 바른 표준어를 구사하는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말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용의 편리를 추구하여 영어 원어를 한국식으로 줄여 쓰이는 콩글리시는 한국어 외래어 특히, 약어형 외래어에서 많이 발견된다.

약어형 외래어를 크게 영어식 약어와 한국식 영어 약어<sup>20</sup>)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펜(ball-pen←ball-point pen), 에어컨 (aircon←air-conditioner)과 같은 단어는 긴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줄여, 마치 영어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약어가 된다. 본고에서는 약어형 외래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한국식 영어 약어만을 고려하여 영어식 약어와 한국식 약어의 같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겠다. 한국식 영어 약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영어를 어떻게 한국식으로 줄였는지 관찰하고 한국식 영어 약어가 한국어의 음절, 음운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이혜은(2008:5)에서 재인용)

정지혜(2013)는 "매일 접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약어화 된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개인적인 언어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고 급속한 발전을 이룰수록 이러한 약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중시하는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약어와 같은 언어현상이 현대 언어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은 신조어의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많은 신조어들이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약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라고 말하면서 약어형 외래어의 빠른 증가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지혜(2013)는 외래어가 늘어나면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외래어가 한국어처럼 어형이 줄어들어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줄어든 형태가 접사처럼 쓰이면서 서구에서 볼 수 없는 신조어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는 합성어 어기처럼 쓰이면서 절단어나 약어 유형의 신조어를 만들기도 한

---

20) 바우어(Bauer, 1983)에 의하여 영어식 약어는 'clipping(축약어)', 'acronym(약성어)', 'blending(혼성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sec(second)', 'ad(advertisement)', 'burger(hamburger)' 등 단어는 축약어에 속하고,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같은 단어는 약성어에 속하며, 'brunch(breakfast+lunch)', 'smog(smoke+fog)'와 같은 단어는 혼성어에 속한다.

다. 또는 문장 전체가 줄어서 합성어를 이루는가 하면 고유어에서 주로 일어났던 음운 축약 현상이 서구 외래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약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어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7> 약어에 대한 정의 정리

출처	정의
정근용 (1998:101-102)	'약어'를 준말의 하위 술어로 보는 관점에서 단어나 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중 음운이나 음절을 생략, 축약, 절단하여 본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의미나 통사범주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본말과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말이 됨. 이에는 음운줄인말과 음절 단위 이상을 생략하거나 자른 약어가 포함됨.
도원영· 김의수· 김숙정 (2007:279)	사전기술의 차원에서 동의 관계에 있으면서 형태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어휘들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본말/준말'류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송철의 (2008:120)	단어(파생어와 복합어 포함) 혹은 하나의 氣息群으로 묶일 수 있는 구에서 인접한 두 음절이 의미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음절로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형식 (단, 본말도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함).
류철우 (2011:9)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 단위와 단어 이상 단위에서 필요에 의하여 음절을 줄여서 쓰는 말'로 일컫고, 넓은 개념으로는 약간의 형태 변화라도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줄어든 언어형식 전반을 포괄하는 것.

표를 참고하여 약어형 외래어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정희원(2004)은 다음과 같이 외래어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 외래어의 내부에서 혹은 한 개 이상의 외래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외래어 내에서 필요성에 의하여 일부분 음절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둘째, 약어형 외래어의 의미는 원형식 외래어의 의미와 동일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약어화 현상이 한 단일 외래어 내부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외래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외래어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에 따라 절단형 외래어, 두음절어형 외래어, 그리고 축합형 외래어로 다시 분류하였다.

### (1) 절단형 외래어

이윤미(2005)에서 절단어의 유형을 절단 부위에 따라 첫 부분 절단어, 첫 부분과 끝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한 단어의 앞부분이 절단되는 전부 절단형 외래어, 한 단어의 뒷부분이 절단되는 후부 절단형 외래어, 그리고 중간 부분이 절단되는 중간 절단형 외래어로 나누어 이 세 가지 절단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a. 전부 절단형 외래어 (B형: B←AZB)

전부 절단이란 구성 어휘의 앞부분이 잘려나간 단어를 말한다. 새 단어는 원래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예). ㄱ. 드라이버(driver) ← 스크루드라이버 (screw driver)

ㄴ. 렌즈(lenses)← contact lenses

ㄷ. 힐(heel) ← high heel

ㄹ. 더치(dutch) ← go dutch

ㅁ. 케이스(case) ← suitcase

ㅂ. 미션 ← 트랜스미션 (transmission)

ㅅ. 타이 ← 넥타이 (necktie)

ㅈ. 콧 ← 셔틀콧 (shuttlecock)<sup>21)</sup>

위의 예시는 전형적인 절단어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일어로 등재되어 형태소의 경계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앞부분을 절단하여 뒷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의 예이다. (ㄱ)의 '드라이버'는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의 '스크루'를 절단한 형태로 나사돌리개(나사못을 돌려서 박거나 빼는 기구)를 의미한다. (ㅅ)의 절단어 '타이'는 한국식 절단인데 영

---

21) 예시 및 해석은 정지혜(2013:20-21)을 참조했다.

어에서 이런 절단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necktie'를 아는 사람이라도 한국식 절단 규칙을 잘 모르면 '타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타이'는 '뭉다'의 의미보다 '넥타이(necktie)'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접미사 '-족'이나 '-맨'과 결합하여 '타이족', '타이맨'이라는 단어를 파생하기도 한다. (ㅈ)의 '콧'은 '셔틀콧(shuttlecock)'의 '셔틀'을 절단한 형태로 배드민턴 경기에 사용하는 깃털이 돌려 붙여진 공을 말한다. (ㄱ~ㄴ)는 두 단어를 떼어서 쓰는 경우 앞부분을 축약하고, 그 나머지 단어로만 뜻을 이룬 단어들이다. (ㄱ~ㅈ)는 두 단어를 붙여 쓰는 합성어에서 앞부분을 축약하고, 그 나머지 단어로만 축약한 단어들이다. 어떤 유형의 전부 절단이든지 전부 절단형 외래어에는 짧은 단어에 본래의 뜻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 ㄱ. 키퍼 ← 골키퍼(goalkeeper)

ㄴ. 폰 ← 핸드폰

위의 예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단일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절단된 형태 또한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합어로 등재되어 있는 예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단일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ㄱ)의 '키퍼'는 축구나 하키 따위에서 골을 지키는 선수를 의미하는 '골키퍼(goalkeeper)'의 첫 글자 '골'을 절단한 형태이며 건강을 뜻하는 '헬스(health)'와 결합하여 건강 지킴이라는 뜻의 '헬스키퍼'라는 어휘로 조어되기도 한다. 즉, '키퍼'는 골을 지키는 선수 외에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문맥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골을 지키는 선수라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ㄴ)의 '폰'은 '핸드'를 절단한 형태로 '핸드폰(handphone)'을 의미한다. '폰'은 국어로 번역하면 '전화기'인데 대부분 '핸드폰'의 의미로 사용된다.<sup>22)</sup>

#### b. 후부 절단형 외래어 (A형: A←AZB)

한국식 영어 약어 중 후부 절단형 외래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부 절단이란 구성 어휘의 뒷부분이 잘려나가는 단어를 말한다. 후부 절단형은

22) 단어 해석은 정지혜(2013:22)를 참조했다.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난 것인지 두 단어 이상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한 단어에서 파생된 후부 절단형 외래어의 예시를 보겠다.

- 예). ㄱ. 내비 ← 내비게이션 (navigation)  
    ㄴ. 다크 ← 다크멘터리 (documentary)  
    ㄷ. 슈퍼 ← 슈퍼마켓 (supermarket)  
    ㄹ. 프로 ← 프로페셔널 (professional)  
    ㅁ. 싸인(sign) ← signature  
    ㅂ. 아파트(apart) ← apartment<sup>23)</sup>

위의 (ㄱ)의 '내비'는 '내비게이션'에서 절단된 형태의 단어이다. 'navigation'이라는 원 단어가 영어에서는 'navigate+ion'의 구조로 분석이 가능한 파생어의 자격을 갖지만 한국어에서는 단일어로 인식된다. 한자어와 달리 특히 외래어는 국어에서 여러 음절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많은데 이들을 다 쓰는 것이 경제성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절단형 단어가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의 두 음절 '내비'만으로 '내비게이션'을 대신하게 된다. 더구나 오락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대화체의 표현이 많아 경제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더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방송 프로그램보다 오락 방송 프로그램에서 절단형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ㄴ)의 '다큐'도 '다큐멘터리(documentary)'에서 절단된 형태이며, (ㄷ)의 '슈퍼'는 '슈퍼마켓(supermarket)'에서, (ㄹ)의 '프로'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에서 뒷부분을 절단하여 사용되는 말이다. (ㅁ)와 (ㅂ)도 마찬가지로 '싸인'은 'signature'에서 절단된 형태이고 '아파트'는 'apartment'에서 절단된 형태이다. 위의 예는 모두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을 취한 예들로 절단형 단어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위에 제시한 단어들 외에도 '데모(demo←demonstration)', '악셀(accel←accelerator)', '앵커(anchor←anchorman)', '텔레비(televi←television)' 등이 있

---

23) 예시 및 해석은 노명희(2009)의 『외래어 단어형성』을 참조했다.

다. 이와 같은 절단형 단어는 단어 처음의 2음절이나 3음절을 기준으로 읽기 편하게 영어 단어를 줄인 것이다.

다음, 두 단어 이상에서 일어난 후부 절단형 예시이다.

- 예). ㄱ. 에어컨 (air-con)←air-conditioner  
    ㄴ. 오디오(audio)←audio system  
    ㄷ. 헬스 (health)←health club  
    ㄹ. 매스컴(mass-com)←mass communication

위의 단어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앞의 단어는 변화시키지 않고 발음하고, 뒤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부분 축약시켜 만들어진 예들이다.

### c. 중간 절단형 외래어 (AB형: AB←AZB)

이혜은(2008)은 중간을 생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중간 절단형 외래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는 'gameset(game and set)'과 'ball-pen(ball-point pen)'이 있다. 그리고 민현식(2004)에서는 'omelet(te) and rice→오무라이스, curry and rice, curried rice→카레라이스, home and away→홈어웨이' 등이 가운데 생략 현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노명희(2009), 정지혜(2013), 정근용(1998)을 비롯한 대부분 학자들은 전후부 절단형 외래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플루(flu)←인플루엔자(influenza)'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flu←influenza'는 영어식 줄임말과 한국식 줄임말이 같은 경우이기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두음절어형 외래어 (AC ← AZB CZD )

두음절어는 단어 또는 단어에 준하는 말의 머리음절만을 따서 기호처럼 쓰는 말로 약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래어 중 두음절어형 외래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음절어 현상은 주로 합성형 외래어에서 나타난다.

- 예). ㄱ. 베커상 ← best couple賞  
 ㄴ. 패메 ← facebook message  
 ㄷ. 셀카 ← self camera

(ㄱ)는 '베스트'의 첫음절 '베'와 '커플'의 첫음절 '커'를 취하여 만든 '베스트 커플 상'의 두음절어형 줄임말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을 연기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뜻이 있다. (ㄴ)의 '패메'는 'facebook(페이스북)'와 'message(메시지)'의 머리음절만을 따서 이루어진 신조어 외래어이다. (ㄷ)의 '셀카'는 각 외래어의 머리음절만을 따서 원어의 줄임말로 쓰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사진기나 캠코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와 관련된 새말이 여럿 생겨났다. 특히, '몰래카메라'와 '셀프카메라' 같은 새말은 이미 일상어로 자리 잡은 듯하다. '셀프카메라'는 '자기 자신을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일'을 뜻한다. 그런데 '셀프카레마'는 영어권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셀프서비스(self-service)', '셀프컨트롤(self-control)' 따위와 같은 기존 말에서 유추하여 한국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다. 최용기(2003)는 이처럼 각 어휘소의 앞음절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생산적인 경우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두음절어형 외래어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카스←카카오 스토리(Kakao story), 토스←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미피←미스터 피자(Mr. Pizza), 베프←베스트 프랜드(best friend), 라스←라디오 스타(radio star)<sup>24)</sup> 등이 모두 두음절어형 외래어로 간주될 수 있다.

### (3) 축합형 외래어

본에서 제시한 축합어(縮合語)라는 것은 임옥정(2016)에서 언급한 개념이고 중국 언어학자 王吉輝(2001:34)에서 연대 중국어 약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중의 하나인 '縮合詞語'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 '縮合詞語'의 개념은 한국어에서 약어를 분석하는 과정과 개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빌려온 것이나, 본고에서 절단어와 두음절어를 제외한 나머지 약어형 외래어 유형을 포괄하고 분석하기 위해 王吉輝(2001)에서 제시한 '縮合詞語'라는 용어를 '축합어(縮合

24) 최용기(2003:153)을 참조하였다.

語)'라고 칭하기로 한다.

임옥정(2016)은 '축합(縮合)'은 '축(줄어들)'과 '합(합해짐)'으로 이루어진 것, 즉 '줄어들어 합해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어학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용어가 없지만, 화학에는 condensation reaction(축합 반응)이라는 용어가 있다. 화학에서의 '축합'이라는 개념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약어 유형의 개념과 비슷하여 용어를 빌려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의 축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가 통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원어로부터, 어휘소에 따라 나눈 의미 성분(접사가 포함된다면 따로 분석하지 않음)에 따라 대표 음절(대표자)을 취할 때, 첫음절(즉 두(頭)음절)이 아닌 음절을 하나라도 취하여 이루어진 약어 유형'을 의미한다.<sup>25)</sup>

축합형 외래어는 취하는 음절의 위치에 따라 'AD'형 축합, 'A+X'형 축합, 'X+D'형 축합 그리고 불규칙 축합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a. 'AD'형 축합

X단어의 앞부분과 Y단어의 뒷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AD형 축합 외래어는 주로 신조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핑족 ← night camping族'은 영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다. 'night'의 첫 음절 '나'와 'camping'의 뒷부분인 '핑', 그리고 한자어 '족'을 취하여 만들어진 축합형 신조 외래어이다. 이상도·이영순(2013)에서 최근 10년간의 『신어』에서 AD형태의 예로 총 102개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예시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AD'형 축합 외래어 예시

글로벌라이제이션	glocalization ← globalization	glocalization (2008)
디노베이션	denocation ← design innovation	(2009)
뮤런트	muleng ← musical talent	(2009)
베플	bepel ← best reply	(2008)
아파티즌	apartizen ← agriculture netizen	(2009)

25) 임옥정(2016)에서 가져온 정의이다.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education entertainment (2009)
울벌라이제이션	Ulbalization ← Ulsan globalization (2008)
유라비아	urazia ← Europe Arabia (2008)
이코노사이드	econocide ←economy suicide (2009)
치메리카	dhimerica ←China America (2009)
친디아	chindia ←China India (2008)
코리엔티드	Koriented ←Korea oriented (2010)
코벌라이제이션	Kobalization ←Korea globalization (2008)
코스어	coser ←costume player (2009)
콜래보노믹스	collabonomics ←collaboration economics (2009)
크리슈머	resumer ←creative consumer (2008)
테크토닉	techtonic ←teckno electronic (2008)
포툰	potoon ←photo cartoon (2010)
폴리페서	polifessor ←politics professor (2008)
프로튜어	proteur ←professional amateur (2009)
홈퍼니	hompany ←home company (2010)

**b. 'A-+X'형 축합**

한 단어의 앞부분 A를 취하여 축약한 후 나머지 요소(X)와 합쳐진 유형이다. 앞부분 A를 취할 때 처음절 한 가지만을 취하는 경우와 앞부분 음절 몇 개를 같이 취하는 경우가 있다.

- 예). ㄱ. 개파 ← 개강 party
- ㄴ. 닉변 ← nickname變
- ㄷ. 뇌섹남 ← 腦sexy 男

위의 (ㄱ)은 'party'의 처음절 '파'를 취하고 나머지 요소와 결합하여 '개강 파티'의 줄임말이 된다. (ㄴ)은 'nickname'이 먼저 줄어들어 앞부분 'nick(닉)'만을 취한 후 '(變)변'과 결합하여 '닉네임 변경'을 줄여 이르는 말이 된다. (ㄷ)도 마찬가지로 외래어 'sexy(섹시)'의 앞부분 음절 '섹'을 취하여 나머지 요소와 결합한 유형이다. '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이 되어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러스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를 가리킨다.

### c. 'X+-D'형 축합

외래어의 앞부분을 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뒷부분을 취해 나머지 요소(X)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X+-D'형 축합도 있다. 뒷부분 '-D'를 취할 때 마지막음절 한 가지만을 취하는 경우와 뒷부분 음절 몇 개를 같이 취하는 경우가 있다.

- 예). ㄱ. 냥스타그램 ← 냥+Instagram  
      ㄴ. 갠톡 ← 개인+Kakao talk  
      ㄷ. 골든브리티 ← golden celebrity<sup>26)</sup>

위의 예시를 보면, (ㄱ), (ㄷ)는 뒷부분 음절 몇 개를 같이 취하는 경우이고, (ㄴ)는 뒷부분 마지막 음절만을 취하는 경우이다. (ㄱ)의 '냥스타그램'은 고유어 '냥'과 외래어 'Instagram'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다. 'Instagram'의 뒷부분을 취하고 나머지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신조 외래어가 이루어진다. 'X+스타그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외래어는 아주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리는 일, 또는 음식 사진을 주로 올리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의미하는 '먹스타그램(먹다+Instagram)', 자기 자신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의미를 가지는 신조 외래어 '셀스타그램(self+cameraInstagram)', 애완동물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뜻을 가지는 '멍스타그램(멍+Instagram)'을 모두 외래어 Instagram의 뒷부분 '-스타그램'과 다른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말, 즉 'X+-D'형 축합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다. (ㄴ)은 'kakao talk'의 마지막 음절이 '개인'의 줄임말 '갠'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ㄷ)은 'celebrity'가 'brity(브리티)'의 형식으로 줄어들어 다시 'golden'과 결합한 것이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을 뜻한다. '-브리티'인 형식의 외래어도 아주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블로거브리티'는 'X+-D'형 축합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유명한 블로거를 뜻한다.

### d. 불규칙 축합

---

26) 예시 및 해석은 『신어 자료집』(2014)을 참조했다.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축합형 외래어 외에 불규칙적인 축합형 외래어도 있다. 즉, 'AD'형 축합, 'A+X'형 축합, 그리고 'X+D'형 축합을 제외한 모든 축합을 불규칙 축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예). ㄱ. 넉치 ← night lunch

ㄴ. 데이콤 (DACOM)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Data Communication)<sup>27)</sup>

위의 (ㄱ)은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사이의 늦은 밤에 먹는 추가적인 식사나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점심처럼 밤 사이에 먹는 식사를 말한다. 위의 (ㄴ)처럼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약어는 그 수요가 극히 드물고, 생산성도 매우 떨어지는 변형적 약어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원단어와 약어가 모두 활발하게 쓰여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원단어과 약어 중 어느 한쪽만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범위에서 약어 현상은 단어나 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일부분이 음절 단위 이상으로 절단 생략된 것이다. 그 형태가 원어보다 간략하면서도 의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새로운 어형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그러나 임옥정(2016)은 "축합형 외래어는 단일어의 어떤 부분이든 관계없이 잘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절단형 외래어와 달리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어휘 경계부분에서 최소 한 음절만을 떼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절단형 외래어와 축합형 외래어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2) 파생형 외래어

한국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어를 생성한다. 첫째는 실질형태소와 실질형태소가 결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가 결합하는 방법이다. 실질형태소와 실질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을 합성어라고 하고,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을 파생어라고 한다.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접두 파생어를,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하여 접미

---

27) 예시 및 해석은 『신어 자료집』(2014)을 참조했다.

파생어를 이룬다.

### (1) 접두사 파생 외래어

접두 파생 외래어는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 외래어를 형성한 것이다. 짜오원편(2012)에 따르면 접두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파생접두사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에 붙는다.

둘째, 파생접두사는 분리성이 없는 비독립적인 요소이다.

셋째, 파생접두사가 붙을 수 있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다.

넷째, 파생접두사는 뒤의 어근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접두파생어)를 만들어 내므로 이들의 사이에 휴지가 들어갈 수는 없으며, 두 형태소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없다.

다섯째, 파생접두사는 독립성이 없는 형태소이므로 어근에 의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접두사 파생어의 각 구성 요소의 어종 유형에 따라 외래어 요소가 어근으로 참여한 파생어와 외래어 접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의 외래어 요소가 어근으로 참여한 파생어는 다시 접두사가 고유어인 경우와 접두사가 한자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 a. 고유어 접두 외래어

접두사가 고유어인 경우 어근이 외래어이어야 접두 파생 외래어가 된다.

예). 맞-: 맞카드, 맞트레이드

헛: 헛스윙<sup>28)</sup>

가장 생산적인 고유어 접두사는 '맞-'과 '헛-'이다. '맞-'은 '마주 대하여 하는' 또는 '서로 엇비슷한'의 뜻을 지니는데, 주로 '마주'의 의미를 갖고 파생명사를 형성한다. '헛-'은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이유 없는, 보람 없는, 잘못된'의 의

---

28) 단어 및 해석은 이광호(1998)을 참조했다.

미를 더하는 접두사이다. '맞-'과 '헛-' 뒤에 한자어(예. '맞교환', '헛소동'), 고유어(예. '맞바람', '헛이름'), 외래어(예. '맞트레이드', '헛스윙') 등으로 다양한 어종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래어 어근과 결합하면 접두 파생 외래어가 된다.

## b. 한자어 접두 외래어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의는 이익섭(1968), 최현배(1989), 노명희(1998), 김윤화(2010) 등이 있고,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의는 서병국(1975), 정민영(199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섭(1968), 최현배(1989), 노명희(1998) 등의 입장을 취하여, 김윤화(2010)를 참고하여 접두사가 한자어인 접두 파생 외래어를 정리하였다.

- 예). 대(大)-: 대스타, 대히트  
신(新)-: 신에너지  
비(非)-: 비시즌, 비디지털  
고(高)-: 고카페인  
무(無)-: 무세일  
역(逆)-: 역스카우트, 역다이어트,  
저(低)-: 저칼로리

위의 예시는 모두 신어에서 나타난 합성 외래어이다. '대(大)-'는 생산적인 한자어 접두사로 명사와 결합하여 '큰'의 뜻을 더하는 의미로 쓰인다. '대세일', '대히트', '대만족'은 광고에 자주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역(逆)-'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 생산적으로 쓰이며, '반대' 또는 '거꾸로'를 나타낸다.<sup>29)</sup>

한자어 접두사는 같은 어종끼리 결합되는 성질이 강하여 주로 한자어와의 결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외래어 사용의 증가로 외래어와의 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신조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위의 예시 외에

---

29) 김윤화(2010:39-41)의 내용을 참조했다.

'신(新)-: 신에너지', '비(非)-: 비시즌, 비디지털', '무(無)-: 무세일', '고(高)-: 고카페인', '저(低)-: 저칼로리' 등 '한자어 접두사+외래어 어근'의 형식으로 구성된 외래어가 많아지고 있다.

### c. 외래어 접두 외래어

김윤화(2010)는 외래어 요소에도 한국어의 접두사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에서 접두사는 접미사와 달리 어근의 문법적인 성질을 바꿀 수 없으며 의미를 더하는 기능만을 한다. 외래어 접두사 또한 한국어의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어근 앞에 결합하여 어떠한 의미를 추가하는 비자립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 예). ㄱ. 사이버(cyber)-: 사이버캐릭터, 사이버패밀리, 사이버머니  
      ㄴ. 슈퍼(super)-: 슈퍼바이러스, 슈퍼맘  
      ㄷ. 멀티(multi)-: 멀티플렉스, 멀티미디어, 멀티브랜드, 멀티숍  
      ㄹ. 노(no)-: 노메달, 노비자, 노세일, 노브라, 노타이, 노퍼니처<sup>30)</sup>

위의 예시는 접두사와 어근이 모두 외래어인 파생 외래어이다. 뿐만 아니라 외래어 접두사에 고유어 어근이나 한자어 어근을 모두 붙일 수 있어 파생 외래어가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가상공간인 인터넷과 관련된 '사이버(cyber)'와 결합하는 어휘들이 늘어나고 있다. (ㄱ)의 어근 '사이버-' 뒤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결합하여 다양한 파생 외래어가 생성될 수 있다. (ㄴ)의 '슈퍼(super)-'는 명사와 결합하여 '극도의'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슈퍼(super)-'는 영어에서 접두사 같은 자격을 가지는 것인데 한국어 단어 형성에서도 접두사적인 성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ㄷ)의 '멀티(multi)-'는 '많은, 여러 가지'의 뜻을 더하며 주로 외래어와 결합하여 파생 외래어가 된다. (ㄹ)의 '노(no)-'는 '-가 없음'의 뜻을 더하며 한자어 접두사 '무(無)'와 같은 의미 및 기능을 하고 있다.

30) 김윤화(2010:42)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31) 강나탈리아(2008:21)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 (2) 접미사 파생 외래어

짜오원철(2012)에 따르면 접미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파생접미사는 용언어미보다 제한적이다.

둘째, 파생접미사는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말이 있다.

셋째, 파생접미사는 문장 속 대치가 거의 되지 않거나 제약이 있다.

넷째, 파생접미사는 어근과의 수식관계, 지배관계, 치환관계를 가진다.

다섯째, 파생접미사는 연결되는 어근의 수가 제한이 있다.

여섯째, 한 단어에 용언어미와 파생접미사가 같이 있는 경우 용언어미에 파생접미사가 더 가깝게 위치한다.

변시내(2010)에서 외래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조어에서의 외래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래어 접미 파생어는 '-즘(-ism)'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으며 '-파라치(paparazzi)', '-맘(mom)', '-슈머(consumer)', '-맨(man)' 등의 많은 접미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파라치(paparazzi)', '-슈머(consumer)', '-테크(technology)', '-팅(meeting)'은 조어 방식으로 볼 때 혼성어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조어력이 매우 높고 계속해서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 접미사로 처리하였다고 언급했다.

앞의 접두사 파생 외래어의 분류 방법과 마찬가지로 접미사 파생어의 각 구성 요소의 어종 유형에 따라 외래어 요소가 어근으로 참여한 파생어와 외래어 접미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생어가 있다. 전자의 외래어 요소가 어근으로 참여한 파생어는 다시 접미사가 고유어인 경우와 접미사가 한자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파생 형태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 a. 접미사가 고유어인 경우--'외래어+-하다'류 파생 외래어

접미사가 고유어인 파생 외래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다'의 형식이다. 영어 외래어에 고유어 '-하다'를 붙여 이루어지는 외래어가 매우 생산적이다. 다음은 영어 외래어에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된 예시이다.

예). ㄱ. 노크하다 ← 노크(knock)+하다

드라이브하다 ← 드라이브(drive)+하다

오픈하다 ← 오픈(open) +하다

ㄴ. 세일하다 ← 세일(sale)+하다

ㄷ. 섹시하다 ← 섹시(sexy)+하다

뷰티풀하다 ← 뷰티풀(beautiful) +하다

위는 영어 외래어에 한국어 고유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경우이다. (ㄱ)은 영어 동사에 고유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경우이고 (ㄴ)은 영어 명사에 고유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경우이며 (ㄷ)은 영어 형용사에 고유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경우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와 같은 'X-하다'형 외래어들은 가장 대표적인 잉여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순화 대상으로 지목받는 어휘로서, 대개 잉여 차원에서 유행어로만 떠도는 것이 대부분이라 진정한 외래어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sup>32)</sup>

#### b. 접미사가 한자어인 경우--'외래어 어근 +한자어 접미사'류 파생 외래어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접두사 및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어휘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가르는 기준은 '접사'의 단어 형성 참여 여부에 있다. 단어 내부에 '-' 표시가 있다 하여도 선·후행 어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접사가 결합되어 있다면 그 어휘는 파생어가 된다. 그러나 접사가 결합한 것인지 어근이 결합한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sup>33)</sup> 본고에서는 최안나(2012:24)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태에 따라 복합어 내부 어휘 중 한 어휘라도 접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파생어로 인정하여 합성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참고하여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해 낼 것이다. 최안나(2012:24)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외래어에 한자어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외래어+-장', '외래어+-실' 등과 같은 유

32) 민현식(2004)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33) 최안나(2012:2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형들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 ← 테니스(tennis)+장, 스키장 ← 스키(ski)+장<sup>34)</sup>, 캠핑장 ← 캠핑(camping)+장'은 명사형 외래어 뒤에 한자어 '장'을 붙여 활동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파생형 외래어가 된다. '외래어+-실'인 경우에는 '컴퓨터실 ← 컴퓨터(computer)+실, 샤워실 ← 샤워(shower)+실' 등이 있다. 그 외에 '메모지 ← 메모(memo)+지', '싱크대 ← 싱크(sink)+대', '믹서기 ← 믹서(mixer)+기'를 모두 외래어에 한자어 접미사가 붙은 파생형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은 고유어, 외래어나 한자어에 외래어 접미사가 결합된 것이다.

### c. 접미사가 외래어인 경우

#### ① '-팅(-ting)'류

예). 소개팅 ← 소개+-팅(ting)  
 이벤팅 ← event+-팅(ting)  
 테마팅 ← theme+-팅(ting)

'-팅'은 접미사로서 많은 단어에서 사용된다. 그 의미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meeting'의 일부가 접미사로 사용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 헌팅, 미팅, 소개팅, 채팅 등의 단어가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들의 즉석만남을 뜻하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 ② '-맨(-man)'류

예). 개그맨 ← 개그 + -맨(-man)  
 배달맨 ← 배달 + -맨(-man)  
 엘리트맨 ← 엘리트 + -맨(-man)  
 복도맨 ← 복도 + -맨(-man)

3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스키-장(滑雪場)'의 '장'을 '-장(場)<접사>'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스키장'과 같은 형태인 외래어를 모두 파생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예시를 통하여 한국어 파생 외래어는 '어근과의 결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외래어 접사는 외래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외래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 한국어 고유어 어근, 한자어 어근과도 결합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맨'이라는 외래어 접사는 한자어 어근과 외래어 어근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③ '-틱(tic)'류

예). 바보틱 ← 바보+ -틱(-tic)  
아줌마틱 ← 아줌마+ -틱(-tic)  
유아틱 ← 유아+ -틱(-tic)

### ④ '-텔(tel)'류

예). 오피스텔: office+hotel  
이노스텔: innovation+hostel  
노래텔: 노래+hotel

위 예시에서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뒷부분 '텔'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를 축합형 외래어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텔(tel)'이 많은 단어의 어근과 결합할 수 있고 조어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hotel, motel'의 '-tel'에서 유추되어 '월룸텔, 휴게텔, 리조트텔' 등처럼 쓰이는 예를 들 수 있다.

### ⑤ '-룩(look)'류

예). 슬림룩: slim+look  
파파라치룩: paparazzi+look

'-룩(look)'은 옷차림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외래어와 결합한 것이 대부분이다.

## ⑥ '-이스트(ist)'류와 '-어(러)(er)'류:

예). 재미이스트: 재미+ -ist

찌질러: 찌질+ -er<sup>35)</sup>

'재미이스트'는 인생에서 '재미'에 가치를 높이 두는 사람을 지칭한다. '찌질러'는 합리적 논거 없이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뜻한다. '그 행동이 못나고 추잡스럽다'라는 뜻을 지니는 '찌질하다'의 '찌질'과 '...한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 '-er'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 외래어이다. '-이스트(ist)'와 '-어(러)(er)'는 모두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로 쓰였다.

## ⑦ '-텍(theque)'류:

예). 체조텍: 체조(體操)+ -텍(theque)

디스코텍: disco+ -텍(theque)

김윤화(2010)는 '-텍(theque)'은 장소를 의미하여 '체조텍'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체조텍'은 '디스코텍'에서 유추해 만들어 낸 말이다.

위에 제시한 예시 외에도 '-맘(mom)'류 파생 외래어(에코맘, 외동맘, 커리어맘, 키티맘...), '-파라치(paparazzi)'류 파생 외래어(멤파라치, 댕파라치, 명파라치, 양파라치, 영파라치, 전파라치, 짬짜미파라치...), '-슈머(consumer)'류 파생 외래어, '-게이트(gate)'류 파생 외래어(매관매직 게이트, 바다게이트, 처남게이트...)가 있다. '-맘(mom)'은 '-하는 엄마'를 의미하고, 상반되는 의미인 '-파파'는 조어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파라치(paparazzi)'는 직업적으로 무엇인가를 남겨 신고하여 포상금을 취하려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파라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외래어와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와 결합하여 높은 조어력을 보인다. '-슈머(consumer)'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인 'consumer'의 일부가

---

35) 단어 및 해석은 김윤화(2010)를 참조하였다.

접미사로 쓰이는 것으로 '-하는 소비자'의 형태로 결합된다. '트윈슈머(twin+consumer)'는 동일한 생각이나 반응, 취미, 소비취향 등을 가진 소비자를 뜻한다. '-게이트(gate)'의 사전적 의미는 대문이나 문을 나타내지만 '매관매직 게이트, 바다게이트, 처남게이트' 등 단어에서 정치적인 사건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었다.<sup>36)</sup> 윤정아(2008:60)는 '매관매직 게이트'를 합성어로 처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게이트'를 접미사로 판단해 파생어로 처리하고자 한다.

접두사 파생 외래어와 접미사 파생 외래어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외래어 요소가 어근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접사로서 다른 어근 요소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룰 수도 있다. 어근으로서의 외래어 요소는 한자어 접사 및 고유어 접사와 모두 결합 가능한데 그 중 고유어 접사와의 결합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외래어 접사에 의한 파생에서는 접두사보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더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 3) 합성형 외래어

다우닝(Downing, 1977)은 "합성어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은 새로운 개념을 위한 기호의 필요성에 있다. 합성어의 기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더 잘 살피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우닝(Downing, 1977)에서 참조한 합성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의 지시물을 하위범주화시킨다. (예. bowl→sugarbowl, ricebowl 등)

둘째, '진보 문체(電報文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 crade song→a song to lull a child in the cradle to sleep)

셋째, 명칭을 제공한다. (예. Liverty Bell, Hoover Dam)

이에 따르면 합성어는 주로 (1) 하위범주화기능, (2) 명명기능, (3) 지시기능을 가지고 언어 장면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조개나(2012)<sup>37)</sup>의 관

36) 김윤화(2010:50-52)의 내용을 참조했다.

37) 조개나(2012:12)에 의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시기능은 명명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다른 측면에서 관찰하여 부여한 술어인데, 한국어에서 하위범주화기능과 명명기능을 주로 발견할 수 있다.

점을 참고하여 '하위범주화기능'과 '명명기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합성 외래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하위범주화기능

예). 버스 → 공항버스, 셔틀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카드 → 교통카드, 신용카드, 버스카드  
쇼핑 → 아이쇼핑, 인터넷쇼핑, 홈쇼핑

합성어가 하위범주화의 단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다양한 합성명사들이 상위범주의 하위범주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명명기능

예). ㄱ. 밀크데이: milk+day → 우유 생산업체와 축산업 관련 관공서 등의 농·축산업 관련 단체에서 우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 매주 수요일을 가리킨다.  
ㄴ. 워킹 데이트: working+date → 일과 데이트를 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형태의 데이트.  
ㄷ. 프리홈: free+home → 낯선 사람에게 집을 개방하여 온정을 베푸는 캠페인. 프리허그에 유추하여 만든 말이다.  
ㄹ. 오일볼: oil+ball → 바다 위에 유출된 원유나 폐유가 표류하다 휘발분이 없어지고 남은,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모양의 덩어리.<sup>38)</sup>

다우닝(Downing, 1977:823)은 위의 예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ㄴ), (ㄷ), (ㄹ)은 모두 원래 통사적인 구를 줄여서 새로운 합성명사를 만든 경우인데, 이 합성명사들은 구성성분의 의미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ㄱ)은 단어 구성성분의 원래 의미를 일부분 보존하여 뜻을 조금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이다.

38) 단어의 뜻풀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를 살펴본 결과, 합성어의 등장은 '최대의 정보량을 최소의 언어 구조 속에 뭉뚱그려 넣으려는 화자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래어의 합성어 형성은 외래어의 파생보다 더 생산적이다. 외래어 어근끼리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외래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 외래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외래어 합성어를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어근'의 구조 형식,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의 구조 형식, '고유어 어근+ 외래어 어근'의 구조 형식, 그리고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의 구조 형식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 (1) 외래어 어근 +외래어 어근

- 예). ㄱ. 골드미스 ← 골드(gold) + 미스(miss)  
    ㄴ. 힐링캠프 ← 힐링(healing) + 캠프(camp)  
    ㄷ. 셔틀버스 ← 셔틀(shuttle) + 버스 (bus)  
    ㄹ. 헤어카페 ← 헤어(hair) + 카페(cafe)  
    ㅁ. 스포츠센터 ← 스포츠(sports) + 센터(center)  
    ㅂ. 블랙박스 ← 블랙(black) +박스(box)

위의 예시를 보면, (ㄱ)에서는 외래어 '골드'와 외래어 '미스'를 합쳐서 골드미스라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골드'는 '금'이 아닌 '고급, 능력, 특별'의 의미로 '미스'와 결합하여 '능력 있는 미혼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골드'는 '카드, 라벨' 등 외래어와 결합하여 '고급의 XX'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신조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 (ㄴ)에서 '힐링캠프'라는 단어는 외래어 '힐링'과 외래어 '캠프'가 합쳐서 이루어진 외래어 합성어이다. '힐링'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 어근 중 하나이다. '힐링캠프'란 외래어뿐만 아니라 '힐링'과 '푸드', '메세지' 등 외래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힐링푸드', '힐링메세지' 등과 같은 외래어 합성어가 신문 방송, 뉴스에서 많이 나타난다. (ㄷ)의 '셔틀버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셔틀'은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강제로 부리는 형태'

라는 의미로, '버스'뿐만 아니라 어근 '빵'과 결합하여 구성된 '빵셔틀'은 '강제로 부림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또한, '가방'과 결합하여 구성된 가방셔틀도 마찬가지이다. (ㄷ)은 '헤어카페'가 '헤어'라는 외래어와 '카페'라는 외래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지만 머리를 하지 않아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아 커피 전문점이 매우 많다. 이에 따라 '카페'가 활발하게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고 '카페'와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 차도 만들고 간식도 가져갈 수 있는 '셀프카페(셀프+카페)' 등 카페의 개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조어로 조어되고 있다. (ㄱ), (ㄴ)도 마찬가지로 외래어 두 개가 합쳐서 합성어가 된 것이다.<sup>39)</sup>

## (2)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외래어와 외래어의 결합뿐만 아니라 한자어 어근에 외래어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박정순(2003)에서 외래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차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어보다 개념어나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한자어와 잘 결합한다고 분석하였다.

정지혜(2013)에서는 외래어 합성어의 유형은 구 구성과 잘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 구성의 경우 띄어쓰기가 적용되며 그 예로 수중 카메라(水中camera)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중'과 '카메라' 사이에 '자동' 등이 들어가 '수중 자동 카메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지혜(2013)의 관점을 참고하여 구 구성과 구별되는 합성어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정지혜(2013)에서 다음과 같이 단어를 제시하였고 분석하였다.

- 예). ㄱ. 기부마라톤 ← 기부(寄附) + 마라톤(marathon)  
 ㄴ. 공부모드 ← 공부(工夫) + 모드(mode)  
 ㄷ. 한방다이어트 ← 한방(韓方) + 다이어트(diet)  
 ㄹ. 퓨전음식 ← 퓨전(fusion) + 음식(飮食)  
 ㅁ. 휴대폰 ← 휴대(携帶) + 폰(phone)

39) 단어 및 해석은 김윤화(201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위의 예시를 보면, (ㄱ)은 '기부'라는 한자어와 '마라톤'이라는 외래어가 결합하였다. (ㄴ)의 '모드'는 원래는 '방법, 방식, 유행의 스타일'이라는 뜻이었는데 '상황, 상태, 분위기'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 특정한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하여 공부모드와 같은 합성형 외래어가 된다. (ㄷ)은 한자어 '한방'과 외래어 '모드'가 결합하여 한의의 처방으로 하는 '한방다이어트'라는 단어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 고기를 섭취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황제다이어트' 등도 있다. (ㄹ)의 '퓨전'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 음식 '김치'와 서양 음식 '피자'가 결합하면 '김치피자'가 된다. 한국 음식과 서양음식이 섞였으므로 '퓨전음식'이라고 부른다. 또한, 국적이 다른 두 종류가 섞일 때 외래어 어근 '퓨전'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퓨전음악', '퓨전국악' 등이 있다. (ㅇ)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휴대'와 외래어 '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다.

뿐만 아니라 신어 중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신어도 많다. 변시내(2010:4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예). 그린계약서 ← 그린(green)+계약서(契約書)  
 누드항공기 ← 누드(nude)+항공기(航空器)  
 월드컵 응원 증후군 ← 월드컵(word cup)+응원(應援)+증후군(症候群)  
 토플권 ← 토플(TOEFL)+권(券)  
 피겨체조 ← 피겨(figure)+체조(體操)  
 헬기부모 ← 헬(helicopter)+기(機)+부모(父母)  
 오픈자막 ← 오픈(open)+자막(字幕)  
 몬스터부모 ← 몬스터(monster)+부모(父母)  
 로컬 푸드 운동 ← 로컬 푸드(local food)+운동(運動)  
 모바일 세대 ← 모바일(mobile)+세대(世代)  
 다이어트 피로 ← 다이어트(diet)+피로(疲勞)

### (3) 고유어 어근 + 외래어 어근

- 예). ㄱ. 물컵 ← 물+컵(cup)

ㄴ. 불고기 버거 ← 불고기 +버거(burger)

위의 (ㄱ)은 고유어 '물'과 영어 외래어 '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다. (ㄴ)는 고유어 '불고기'에 외래어 '버거'가 붙어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다.

#### (4)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

예). ㄱ. 껌딱지녀 ← gum +딱지 +녀(女)

ㄴ. 셀기꾼 ← self camera +欺 +꾼

ㄷ. 위폴샷 ← 胃 +폴 + shot<sup>40)</sup>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는 신조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ㄱ)의 '껌딱지녀'는 다른 사람에게 들러붙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여자를 가리킨다. (ㄴ)의 '셀기꾼'은 셀카로 찍은 사진이 실제 모습보다 더 예쁘거나 멋있게 나오는 사람을 가리킨다. (ㄷ)의 '위폴샷'은 위가 움직일 정도로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을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변시내(2010:46)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도 제시하였다.

예). 단품 슬라이드 제도 ← 단품(單品)+슬라이드(slide)+제도(制度)

여성 전용 콜 제도 ← 여성(女性)+전용(專用)+콜(call)+제도(制度)

전장 스트레스 증후군 ← 전장(戰場)+스트레스(stress)+증후군(症候群)

주택 바우처 제도 ← 주택(住宅)+바우처(voucher)+제도(制度)

창업 트랙제도 ← 창업(創業)+트랙(track)+제도(制度)

휴대폰 은행 ← 휴대(攜帶)+폰(phone)+은행(銀行)

댓글 마케팅 ← 댓글(對)+글+마케팅(marketing)

반값아파트 ← 반(半)+값+아파트(apartment)

책사랑데이 ← 책(冊)+사랑+데이(day)

런치 쌍꺼풀 ← 런치(lunch)+쌍(雙)+꺼풀

---

40) 위의 예시는 국립국어원 『2014 신어』를 참고하였다.

## 의미의 확장 및 융합이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

최안나(2012:57-58)는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합성어의 의미가 확장 또는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up>41)</sup> 본고에서는 최안나(2012)의 주장을 참고하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합성 외래어의 의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 ㄱ. 이모팬: 이모(姨母) + 팬(fan)

시음버스: 시음(試飲) + 버스(bus)

여가 디자이너: 여가(餘暇) + 디자이너(designer)

ㄴ. 헬기키즈: helicopter+kids

고양이렌즈: 고양이+렌즈(lens)

(ㄱ)의 '이모팬'은 10대~20대 청춘 스타들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중년 모든 여성을 가리킨다. '시음버스'는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술이나 음료수 등의 시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다. '여가 디자이너'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제안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직업을 가리킨다. (ㄱ)와 같은 유형의 합성어는 표면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합성어를 접하게 된다면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확장되어 생성된 의미를 유추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합성 외래어들을 교육할 때에는 단어의 확장된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합성어의 의미를 교육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ㄴ)에 제시한 외래어들은 비유적으로 융합된 합성어들이다. '헬기키즈'는 'helicopter'의 'hel'과 한자어 '機', 그리고 다시 'kids'가 합쳐진 단어로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영향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고양이렌즈'는 미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착용하는 콘택트렌즈 동공에 닿는 부분이 고

---

41) 최안나(2012:57-58)에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합성어와 비유적으로 융합된 합성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밤낮'이라는 단어는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에서 의미적 확장이 이루어져 '늘'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밤낮'은 표면적인 의미에서 의미적 확장이 이루어져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어휘이다.

양이의 눈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외래어는 처음부터 비유적으로 합성이 된 것으로 학습자들이 합성에 참여한 어휘들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합성어의 의미를 유추해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합성된 합성어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ㄴ)과 같은 유형의 합성 외래어는 단어의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텍스트 안에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사용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최안나(2012)에서 재인용)

## 2.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형태적 대조 분석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제2언어와 모국어를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 학습자는 불가피하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언어학자 테렌스 오드린(Terence Odlin, 1989)은 제2언어습득 과정에서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였다. 부정적 전이는 일종의 언어 간의 차이로 실수, 과잉이나 부족, 오해 등을 초래하여 모국어화자와 비모국어화자 간의 다른 행동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긍정적 전이는 언어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언어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한다.<sup>42)</sup>

본 절에서는 주로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 형태의 대비를 통해 외래어 학습에 긍정적인 전이를 증대하고 부정적인 전이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왕정·박덕유(2012)는 세계 수천 종의 언어들은 각기 그 구조면에서 상당히 다르면서도 언어들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교착어<sup>43)</sup>는 형태변화가 풍부하고 고립어는 교착어보다 형태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형태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그 차이가 많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양국 언어 중, 외래 어휘의 형태적인 특징에 비추어 볼

42) 테렌스 오드린(Terence Odlin, 1989:16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43) 세계 언어를 형태론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고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며 영어는 굴절어에 속한다. 또한, 언어는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로 나눌 수 있다. 표음문자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표기하는 문자로 소리글자이며 표의문자란 넓은 의미로 사물의 개념을 표기하는 문자로 뜻글자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고 중국어는 표의문자이다.

때,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조어법 면에서 비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외래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어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적 특징, 담고 있는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외래어를 연구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조어법의 특징에 나타난 대조 고찰을 위해 우선 두 언어의 구조 및 단어의 구성요소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어 조어법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숙홍(2004:42)은 최근에 중국 고등학교 교재에서 중국어 어휘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9> 중국어 어휘 형태에 따른 분류

단 순 어	연면어	성모 같음	山(shān)	단음어	
		운모 같음	澎湃(péng pài)	다음어	
		기타	蒼茫(cāng máng)		
	음역어		芙蓉(fú róng)		
	첩음어		咖啡(kā fēi) 沙發(shā fa)		
합 성 어	복합식	연합	猩猩(xīng xing)	다음어	
		편정	道路(dào lù)		
		보충	皮鞋(pí xié)		
		동빈	提高(tí gāo)		
		주위	司機(sī jī)		
	중첩식		地震(dì zhèn)		
	부가식	접사+어근	姐姐(jiě jie)		
		어근+접사	老虎(lǎo hǔ)		
			刷子(shuā zi)		
		華爾(huā er)	단음어		

위의 표는 최근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중국어 어휘 구조유형이다. 중국어의 조어법은 한국어 조어법보다 더 복잡한 편이다. 오지현(2012)에서는 중국어 조어 유형이 크게 單純詞(단순어)와 合成詞(합성어)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합성어 중 複合式(복합형), 附加式(부가식), 重疊式(중첩식)이 있다. 單

純詞, 複合式 그리고 附加式은 각각 한국어의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와 대응되고 重疊式과 대응되는 한국어 조어 유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합성어 중 두 가지 단어의 복합 관계에 따라 '병렬형(聯合式)', '술목식(述賓式)', '수식형(偏正式)', '보충형(補充式)', '주술형(主謂式)'이 있다<sup>44)</sup>. 그리고 중국어 외래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역어는 대부분 單純詞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어 單純詞(단순) 외래어를 연구할 때 주로 음역어<sup>45)</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음역어를 다시 '원어 형태의 음역어'와 '약어 형태의 음역어'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중국어 合成詞(합성어)인 경우, 그 중 '복합식'과 '부가식' 두 가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복합식'은 한국어의 '합성어'와 대응되고 '부가식'은 한국어의 '파생어'와 대응되기 때문이다.

## 2.1. 원어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1) 원어 형태의 한국어 외래어

원어 형태의 한국어 음역 외래어란 한국어 음역체계에 맞게 발음하거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겪지 않고 도입된 외래어이다. 다음은 원어 형태로 수용된 외래어의 예이다.

<표10> 원어 형태의 한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oil → 오일	golf → 골프	test → 테스트
dollar → 달러	quiz → 퀴즈	radio → 라디오
drama → 드라마	club → 클럽	service → 서비스

44) 병렬형은 병렬된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이며, 앞 뒤 두 어근의 관계는 주종의 구분이 없고 의미상 동등하거나 상반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 형식이다. (예. 語言 언어, 朋友 친구) 수식형은 앞의 형태소가 뒤의 형태소를 수식하거나 제한한다. (예. 漢族 한족, 微笑 미소) 주술형은 앞의 형태소는 어떠한 사물을 표시(대상)하고 뒤의 형태소는 사물의 동작, 행위 혹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예. 地震 지진) 술목식은 앞의 형태소는 동작의 행위를 나타내고, 뒤의 형태소는 동작 행위의 지배를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예. 作文 작문, 有名 유명) 보충형은 앞의 형태소는 그 동작행위의 결과나 방향을 나타내는 형태와 앞에는 명사성 형태소가 오고 뒤에는 양사가 오는 특수한 형태도 있다. (예. 說明 설명) (마숙홍(2004)에서 재인용)

45) 중국어의 외래어는 크게 '음역외래어', '의역외래어', '음의겸역외래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심혜(2012)에서 중국어 외래어를 원어의 표음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외래어의 대부분을 이룬다. 특히 외국의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음우선주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으로 대조 분석하기 위하여 음역 외래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banana → 바나나	table → 테이블	internet → 인터넷
--------------	-------------	----------------

### 2) 원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원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는 원음 형식으로 수용한 외국 인명, 지명, 도량 단위 등에서 많이 존재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1> 원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humor → 幽默 [yōu mò]	heroin → 海洛因[hǎi luò yīn]	Italia → 意大利[yì dà lì]
Shakespeare → 莎士比亞[shā shì bǐ yà]	Chocolate → 巧克力[qiǎo kè lì]	France → 法蘭西[fǎ lán xī]
London → 倫敦[lún dūn]	microphone → 麥克風[mài kè fēng]	mango → 芒果[máng guǒ]
pudding → 布丁[bù dīng]	cartoon → 卡通[kǎ tōng]	Gallon → 加侖[jiā lún]

### 3)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어휘를 수용할 때, 외국의 인명, 지명, 상표, 회사 이름 등 고유명사가 대부분 원어 형태로 수용됨을 발견할 수 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원어 형태의 한·중 외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음절수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어 형태의 한·중 외래어의 음절수를 보면, 똑같은 영어 원어인데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음절수가 일치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음절수 일치한 한·중 외래어 대조 표

음절수		한국어 외래어	중국어 외래어
단음절		쇼	秀
다음절	이음절	망고, 런던, 카툰	芒果, 倫敦, 卡通
	삼음절	초콜릿, 캐나다	巧克力, 加拿大
	사음절 이상	카푸치노	卡布奇諾

<표12>에서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소와 중국어 음역 외래어의 형태소는 단음

절 형태소, 이음절 형태소, 삼음절 형태소, 사음절 이상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쇼'는 한 음절로 이루어진 형태소이고, 중국어와 대응되는 '秀(xiù)'도 한 음절로 된 형태소이다. 이러한 단음절 형태소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가령 '쇼'를 '시'와 '요'로 분리한다면 그 각각은 전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망고, 런던, 카툰'과 같은 외래어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형태소이다. 이러한 형태소들은 2음절로 이루어졌지만 단음절과 같이 더 이상 분리해서는 안 된다. 즉, 두 음절이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정확한 의미가 생성되고, 한 음절이라도 생략되면 본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최소의 의미단위이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또한, 3음절 형태소인 '초콜릿, 캐나다'와 중국어의 '巧克力, 加拿大', 4음절 이상 형태인 '카푸치노'와 '카부奇諾'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최소의 의미단위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표13> 음절수 불일치한 한·중 외래어 대조 표

영어 원어	한국어 외래어 및 음절 수	중국어 외래어 및 음절 수
golf	골프(이음절)	高爾夫(삼음절)
nylon	나일론(삼음절)	尼龍(이음절)
sandwich	샌드위치(사음절)	三明治(삼음절)

위의 표를 보면, 똑같은 원어인데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의 음절수와 중국어 외래어의 음절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골프'는 이음절인데 중국어의 '高爾夫'는 삼음절이 된다. 한국어의 '나일론'은 삼음절인데 중국어의 '尼龍'은 이음절이다.

민현식(2004)은 "한국어 외래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외래어에는 발음상의 편의성을 추구하여 음절을 축약해서 핵심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는 음절간이화 현상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외래어 중 인상 강화를 위하여 또는 철자식으로 읽는 잘못된 발음의 결과로 짧은 음절이 아닌 음절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원어 1음절어 mask>3음절어 '마스크!)"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중국어 외래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어 단어는 대부분 2음절이나 3음절 단어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음절수의 불일치뿐 아니라 한·중 외래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중국어 음역 외래어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한자의 선택을 들 수 있다. 심혜(2012:20)는 원어 형태의 한·중 음역 외래어를 수용할 때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한국어든 중국어든 영어에서 수용하는 외래어는 모두 자국 언어의 조어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인 경우, 음운 체계, 음절 구조 원칙, 그리고 한국어 조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인 경우, 중국어는 표의문자로서 한자의 문자자체가 의미를 나타내는데, 영어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아무렇게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음이 비슷하고 좋은 의미를 담긴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심혜(2012:20)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분석하였다.

"문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인명 'Juliet'을 번역할 때, 중국에 기존하는 성씨 '朱'와 아름다운 '麗', 그리고 여성 분위기가 나는 '葉'자를 조합하여 아름답고 여성의 분위기가 나는 '朱麗葉'을 선택하였다. 만약에, '豬力葉'로 말하면, 원어의 발음에 가깝지만 좋지 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

한·중 외래어의 단어 형태에 있어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단어의 형태에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외래어인데 중국어에서는 뜻풀이가 똑같은 단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라는 외래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각각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둘이 모두 '塑料'로 구분되지 않는다.

- 예). 가. 플라스틱+병, 통, 용기/ 비닐+봉투, 봉지, 팩  
 나. 플라스틱 병(塑料瓶)/ 비닐팩(塑料膜)

(가)의 경우 한국어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각각 다른 뜻이 되지만 (나)의 경우 중국어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은 같은 단어이고, '병'과 '팩'만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플라스틱'과 '비닐'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처

럼 나라마다 단어의 뜻과 용법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외래어를 이해하기에 어렵고 틀리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46)

민현식(2004)은 외래어 차용 방법은 크게 음역어(音譯語), 의역어(意譯語)와 혼역어(混譯語)로 나눈다. 합성형 한국어 외래어 중 직접 혼역어가 존재한다. 즉,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직접음역과 의역을 겸용, 배합, 중복 등의 방식으로 혼합하여 차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체인店←chain store, 샴판酒←champagne, 웰街, 월街←Wall Street 등이다. 이런 형식의 외래어 단어 형성 원리는 직접음역어의 형성 원리보다 더 복잡하다. 현대 중국어 상품명에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可口可樂, 百事可樂'으로 한다든가 'Volvo' 자동차를 부자들이나 탄다고 해서 '富豪'로 쓰는 것과 같은 혼역차용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한다. 丁聲樹(2005)47)에서 제시한 중국어 외래어의 음의겸역어(혼역어)의 예시를 참조하여 재정리하고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중국어 음의겸역 외래어 및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

원어	한국어 외래어	중국어 외래어	중국어의 뜻
Benz	벤츠	奔馳	아주 빨리 달린다.
Coca-cola	코카콜라)	可口可樂	입에 맞아 사람을 유쾌하게 한다.
Fan ta	환타	芬達	향기로운 식물 이름
Hilton	힐튼호텔	喜來登	기쁜 일이 온다.
Marlboro	말보로	萬寶路	만 가지 보물
Pepsi-cola	펩시콜라	百事可樂	모든 일이 다 즐거운 일이다.
7-up	세븐업	七喜	한 주 7일에 다 기쁘다
Volvo	볼보	富豪	부호
Sprite	스프라이트	雪碧	희다 못해 푸른 기가 돌아 맑고 시원함
Gucci	구치	酷奇	아주 멋이다
vitamin	비타민	維他命	생명을 유지한다.
Shampoo	샴푸	香波	향기로운 물건
TOEFL	토플	托福	당신 덕분에

46) 박지영(2011:23)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47) 丁聲樹(2005)는 중국어 외래어는 크게 '음역어', '음·의겸역어', '반음역반의역어', '의역어', '외국어 자모어' 5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의 혼역어는 중국어의 '음의겸역어', '반음역반의역어'와 대응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국어 혼역어와 중국어 음의겸역 외래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외래어 중 혼역법 현상이 모두 존재한다.

둘째, 한국어의 혼역어와 달리 중국어의 혼역어는 주로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에서 나타난다. 외국에 들어오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보다 교묘하게 표기를 만들었다.

셋째, 위의 표에서 제시한 중국어 음의겸역 외래어와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는 모두 음역외래어이다. 따라서 동일한 원어인데 중국어에서는 혼역어가 되고 한국어에서는 음역어가 된다. 즉, 동일한 원어에 대하여 한·중 외래어는 다른 차용 방법을 가진다.

넷째, 위의 표에서 제시한 음의겸역 외래어는 모두 단일어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의 혼역어 중 음의겸역 외래어뿐 아니라 반음역반의역 외래어도 존재한다. 중국어 반음역반의역 외래어는 대부분 파생어이다. 예를 들어, 'Mickey Mouse(미키마우스)-米老+鼠', 'mini skirt(미니스커트)-迷你+裙', 'internet(인터넷)-因特+網'의 중국어 외래어는 모두 파생형 반음역반의역 외래어이다. 그러나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는 역시 모두 단일어이다.

## 2.2. 약어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성희(2009:21)는 일반적으로 언어가 차용될 때는 간편하고 짧게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즉, 외래어 단어 차용 과정에서 원어의 중심 부분만 차용되며 나머지 형태들은 차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 사용에 있어 음절이 길고 발음이 어려운 단어는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을 받으므로 언어의 경제성을 위하여 단어의 일부를 잘라 버리기 때문이다."

### 1) 약어 형태의 한국어 음역 외래어

약어 형태의 한국어 음역 외래어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예시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 2) 약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심혜(2012:21)는 현대 중국어 어휘는 일반적으로 1음절 혹은 2음절로 구성되

기 때문에 원어 발음대로 외래어를 받아들이면 화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심혜(2012:21)에 의하여 외래어를 수용할 때 긴 음절을 피하고 1음절이나 2음절로 축약한다. 이러한 외래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원어의 음절 중 다른 음절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읽히는 부분을 생략해서 수용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언어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의학, 화학, 금속 등의 이름을 축약해서 받아들인 경우이다. 만약 원어의 발음이나 의미와 비슷한 한자가 없으면 새로운 한자를 창조해서 쓰기도 한다. 보통 원어와 발음이 유사한 형태소에 부수(部首)를 첨가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이때 부수의 작용은 원어가 속하는 의미의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氦'자는 helium의 앞부분과 발음이 비슷한 '亥'와 氣體의 '氣'를 부수로 합친 단어이다. '鋰'자는 lithium의 앞부분과 발음이 비슷한 '里'와 金屬을 나타낸 '金'을 부수로 합친 단어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5> 약어 형태의 중국어 음역 외래어 예시

Switzerland→瑞士[rui shì]	phenolphthalein → 酚太[fēn tài]	aluminum→鋁[lǚ]
ampere→安培[ān péi]	cassette → 卡式 (錄音機) [kǎ shì]	hamburger → 漢堡[hàn bǎo]
Celsius→攝氏[shè shì]	kalium → 鉀[jiǎ]	fluorin → 氟[fú]

### 3)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중 외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공통점:

한·중 약어형 외래어의 품사를 보면, 대부분 명사로 이루어져있다.

#### 차이점:

먼저, 약어형 외래어의 형태를 주목하고자 한다. 민현식(2004)에 의하여 외래어는 일단 정착되면 형태나 의미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변화를 입는데 그

양상은 형태변용(形態變容)과 의미변용(意味變容)으로 나뉜다. 그리고 간이화의 관점에서는 음운간이화(音韻簡易化)와 음절간이화(音節簡易化)로 나뉜다. 음운간이화는 음운의 대치, 첨자, 탈락처럼 한국어 음운구조에 맞추려는 노력이 결과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절단 현상이 음운간이화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약어형 외래어 중 대부분이 영어 원어를 한국식으로 줄여 쓰이는 콩글리시이다. 이것이 한국어 외래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써 중국어 외래어 중 음운간이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특유한 콩글리시와 대응하는 중국어 외래어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할 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약어형 외래어의 경우, 절단형, 두음절어형, 축합어형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축약 후 음절 개수의 제한이나 축약 강도에 대한 제한과 같은 축약 제한이 없다. 반면에 중국어 외래어를 축약할 때, 현대 중국어 어휘는 일반적으로 1음절 혹은 2음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긴 음절을 피하고 1음절이나 2음절로 축약하여 수용되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 2.3. 합성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1) 합성형 한국어 외래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성형 한국어 외래어란 두 개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한국어 외래어에서는 합성 형태의 외래어가 종종 보이는데, 'sun cream→썬크림', 'shuttle bus→셔틀버스', 'black coffee→블랙커피'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 2) 복합식(합성식) 중국어 외래어

영어 원어가 합성어인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 외래어도 합성어(복합식)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6> 합성 원어와 대응되는 합성형 중국어 외래어 예시

air bus→	空中[kōng zhōng]+巴士[bā shì]	Wall street →	華爾[huá ěr]+街[jiē]	jazz dance→	爵士[jué shì]+舞[wǔ]
milk shake →		Donald Duck →		credit card →	

奶[nǎi]+昔[xī] neon lamp → 霓虹[ní hóng]+燈 [dēng]	唐老[táng lǎo]+鴨[yā] motor boat → 摩托 [muó tuō]+艇[tǐng]	信用[xìn yòng]+卡[kǎ] Jurassic Period → 侏羅[zhū luó]+紀[jì]
--	--	--

원어가 합성어인 경우뿐만 아니라 원어가 단일어이라도 대응되는 중국어 외래어가 합성어인 경우도 존재한다.

<표17> 단일어 원어와 대응되는 합성형 중국어 외래어 예시

beer → 啤[pí]+酒 [jiǔ]	p i z z a → 披薩 [ p ī sà]+餅[bǐng]	beret → 貝雷[bèi léi]+帽 [mào]
jeep → 吉普[jí pǔ] +車[chē]	bowling → 保齡[bǎo líng]+ 球[qiú]	Big Ben → 大本[dà běn]+鐘 [zhōng]

위의 예시를 보면 단어의 의미나 성질 및 특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음역 부분 뒤에 보충설명을 한다. 즉, '음역 부분+첨가부분'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첨가부분이 없어도 의미전달에 큰 무리가 없다. 심혜(2012)에 따르면 이러한 조어법은 외래어의 음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조어법 상용통성이 있어 현대 중국어의 외래어뿐 아니라 신조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3)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한·중 합성형 외래어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합성형 외래어는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 '고유어 어근+ 외래어 어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air bus → 空中+巴士' 등처럼 중국어에서 고유어라는 개념이 없지만 'air(空中)'라는 단어가 외국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어라고 간주하고자 한다. 이같이 보면 중국어에도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다.

둘째, 원어가 합성어일 때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가 합성어가 될 수 있고 원어가 단일어일 때도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가 합성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un cream'이라는 합성어 원어와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 '썬크림'이 합성이다. 반면에, 'printer'라는 원어가 단일어인 경우,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 외래어 '프린트기'도 합성형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외래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

### 차이점:

심혜(2012:22)에 의하여 중국어 합성형 외래어는 단어의 의미나 성질 및 특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음역 부분 뒤에 보충설명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심혜(2012)는 "이러한 외래어들은 '음역 부분+첨가부분'의 형태로 대부분 명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첨가부분'은 해당 물건의 종류를 강조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으로서, 일부분 중국어 합성형 외래어인 경우에는 '첨가부분'을 생략해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izza→披薩+餅'의 '餅(전)'은 '披薩'의 종류를 강조하기 위하여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餅(전)'을 생략하여 '披薩'라고 할 수도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합성형 외래어 특징이 없다."라고 하였다.

### 어종 유형의 비교

합성형 외래어 구성에 참여한 어근의 어종 유형에 주목하여 한·중 합성 외래어의 어근 어종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합성 외래어에는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고유어'와 같은 다양한 어종 결합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에는 '외래어'와 '중국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외래어가 대부분이고 외래어 요소끼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성형 외래어가 거의 없다.

### 품사 양상의 비교

한·중 합성형 외래어의 품사 유형을 비교하면, 한·중 합성형 외래어의 품사 유형은 거의 모두 명사이고 차이점이 없다. 품사의 유형이 비슷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음절수 양상의 비교

한국어 합성형 외래어는 대부분 2음절수인 어근1이 2음절수인 어근2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음절수인 어근1과 2음절수인 어근2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래어의 수는 많지 않다. 두 어근이 모두 1음절수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어 합성형 외래어의 경우, 1음절수인 어근1과 2음절수인 어근2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래어가 가장 많고 두 어근이 모두 2음절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다. 한국어 합성형 외래어와 달리 두 어근이 모두 1음절수인 합성형 외래어가 존재한다.

## 2.4. 파생 형태의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 1) 파생형 한국어 외래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생형 한국어 외래어는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래어와 접두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래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접미사가 외래어인 경우가 가장 생산적이다. 대부분은 접미사 '-되다', '-하다'와 결합한 후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 예를 들어, 'sexy→섹시하다', 'cool→쿨하다', 'real→리얼하다', 'romantic→로맨틱하다' 등이 있다. 김윤화(2010)는 외래어 접두사를 '사이버(cyber)-', '슈퍼(super)-', '멀티(multi)-', '노(no)-'로, 외래어 접미사를 '-맨(man)', '-룩(look)', '-팅(ting)', '-텔(tell)' 등으로 정리하였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텔(tell)→고시텔, 휴게텔, 원룸텔, 오피스텔, 미니텔, 하숙  
 텔...  
 -맨(man)→개그맨, 당구맨, 배달맨, 정보맨, 파워맨, 엘리트  
 맨...  
 -팅(ting)→폰팅, 소개팅, 방팅, 삐삐팅, 번개팅, 경매팅, 쪽지  
 팅, 짹팅...

### 2) 부가식(파생식) 중국어 외래어

심혜(2012)에서는 원어 전체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와 원어의 일부 형태소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18> 부가식 중국어 외래어 예시48)

원어 전체가 접사인 경우	원어의 일부가 접사인 경우
mini(迷):迷你裙, 迷你電腦 등	disco(迪):迪吧, 老年迪, 迪廳 등
pie(派):蘋果派, 蛋黃派, 草莓派 등	taxi(的):的哥, 的姐, 打的, 摩的 등
show(秀):脫口秀, 時裝秀, 作秀 등	beer(啤):散啤, 生啤, 黑啤 등
bar(吧):網吧, 茶吧, 酒吧, 書吧, 琴吧 등	bus(巴):大巴, 中巴, 小巴 등
tyre(胎):輪胎, 雨胎, 雪胎, 中性胎 등	IP: IP 電話, IP傳真, IP數據, IP卡 등
valve(閥):水閥, 油閥, 氣閥, 閥門 등	E(electronic):E時尚, E生活, E族 등
cool(酷):酷感, 酷哥, 酷姐 등	SOHO: SOHO族, SOHO寫字樓, SOHO生活 등

WANG YAN(2011)은 중국어 외래어의 경우,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의미의 허화(虛化), 단어 구성 시 위치의 고정성, 구사(構詞)의 類化性(품사를 나누는 기능), 생산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ANG YAN(2011)은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허화이다. 위의 표에서 제시했던 'bar(吧)'를 예로 들면, '-bar(吧)'는 영어인 'bar'에서 온 것인데 원래 영어에서의 의미는 '술집'이지만 '琴吧(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는 휴식 장소)', '書吧(책을 보는 것 위주로 음료소도 마실 수 있는 소형 휴식 장소)' 등 단어에서 '吧'는 '작은 오락 장소'라는 의미로 변한다. 의미의 허화를 겪어 '-吧'를 접미사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3)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파생어 형태 외래어인 경우,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에서 접두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와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모두 존재하며 매우 생산적이다.

#### 차이점:

##### 어종 유형의 비교

위에 제시한 한·중 외래어의 접사에 주목하여 접사와 결합 가능한 어근의 어종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심혜(2012:23) <표12>의 내용을 가져왔다.

<표19>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어종의 유형

	-텔	-맨	-팅	사이버-	노-
고유어	+	+	+	+	+
한자어	+	+	+	+	+
외래어	+	+	+	+	+

<표20>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어종의 유형

	mini 迷	pie 派	show 秀	bar 吧	tyre 胎	valve 閥	cool 酷
중국어	+	+	+	+	+	+	+
외래어	+	+	+	-	-	-	-

한·중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의 어종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의 접사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근과 모두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한국어 외래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어종의 요소들끼리 잘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의 어종 유형은 중국어와 외래어 두 유형밖에 없다. 또한 일부 접사의 경우, 중국어 어근과의 결합만 가능하고 외래어 어근과 결합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어 외래어는 다양한 어종과 비교적 활발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 품사 양상의 비교

한·중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 품사 양상의 비교는 주로 한·중 파생 외래어에서 접사가 주로 어떤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지와 어떤 품사의 어근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했던 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품사 정보이다.

<표21>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품사의 양상

	-텔	-맨	-팅	사이버-	노-
명사	+	+	+	+	+
동사	-	-	+	-	-
형용사	+	-	-	-	-

<표22>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품사의 양상

	mini 迷	pie 派	show 秀	bar 吧	tyre 胎	valve 閥	cool 酷
명사	+	+	+	+	+	+	+
동사	-	-	+	-	+	+	+
형용사	-	+	+	-	+	-	-
부사	-	-	-	-	-	-	+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나 중국어의 파생 외래어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어근의 품사는 명사이다. 중국어 파생 외래어에서 접사들이 동사형이나 형용사형 어근과 비교적 활발하게 결합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 어근이나 형용사 어근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지 않다. 또한 부사 어근과 결합되는 용례가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에서는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중 파생형 외래어의 품사 유형을 살펴보면, 파생 형태인 외래어 중 한국어에서는 명사 외에 동사, 형용사의 형태도 많이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 형용사가 거의 없는 편이다.

### 음절수 양상의 비교

한·중 파생형 외래어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어근 음절수의 비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한·중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의 음절수에 대한 정보이다.

<표23>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음절수의 양상

	-텔	-맨	-팅	사이버-	노-
1음절수	+	-	+	-	+
2음절수	+	+	+	+	+
3음절수	+	+	-	+	+
4음절이상	-	+	-	+	-

<표24>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 음절수의 양상

	mini 迷	pie 派	show 秀	bar 吧	tyre 胎	valve 閥	cool 酷
1음절	+	-	+	+	+	+	+
2음절	+	+	+	+	+	+	+

3음절	-	-	+	-	+	-	-
4음절	-	-	-	-	-	-	-

위 표를 참고하면, 한·중 파생형 외래어 어근 음절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외래어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으로 한·중 모두에서 2음절 어근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2음절 어근 외 외래어 접사와 흔히 결합하는 어근은 1음절 어근이나 3음절 어근이다. 4음절 이상의 어근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에는 1음절부터 4음절 이상까지인 어근이 모두 존재한다. 즉,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은 주로 1음절이나 2음절인 것을 취하고 다음절 어근을 잘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어 파생형 외래어의 어근 음절수의 특성은 음절 및 절주론(節奏輪)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어의 가장 이상적인 어휘 음절수는 2음절이며 2음절 어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sup>49)</sup> 절주론에 따라 접미사 앞에 1음절인 어근을 놓아 2음절인 어휘를 만들거나 2음절 어휘에 접미사를 붙여 3음절인 어휘를 만든다. 그러나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 어근의 경우 음절수의 제한이 없다.

### 3. 중국 내 한국어 외래어 교육 현황

#### 3.1.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분석

중국 내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재, 민족출판사 『한국어』 (1~4), 북경대학교 출판사 『표준한국어』 (1~3)을 중심으로 교재 분석하고자 한다.

주일(2011)에서 교수 학습 상황, 교재 내적인 구성, 그리고 교재 외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교재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교재에 실린 어휘 중 외래어 부분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분석 틀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여 교재의 외래어 부분에 대한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이영자(2009)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표25> 분석 기준

분석 내용		구체적인 내용
외래어 학습 내용	외래어 제시 형식	1. 외래어의 양과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다양한가? 2. 외래어가 품사별로 분류하여 제시되는가? 3. 외래어의 영어 원어가 제시되는가? 외래어 뒤에 발음 표시가 따로 있는가? 4. 외래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삽화, 사진, 도표 등을 제시하였는가? 5. 외래어에 대한 설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뜻풀이, 설명, 예문 등) 6. 외래어를 따로 제시하는가? 7. 외래어 조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8. 수록된 외래어가 총 몇 개 있는가?
	외래어 제시 내용	1. 외래어의 의사소통적 맥락을 제시하는가? 2. 주제와 관련된 외래어를 중심으로 제시하는가? 새 어휘를 중심으로 제시하는가? 3. 관련 외래어를 유의미하게 습득할 수 있는가? 4. 외래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찬되는가? 5. 외래어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6. 외래어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는가?
연습 활동		1. 외래어 연습이나 어휘 활용을 배치하였는가? 다양한가? 2. 외래어 연습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가? 3. 연습 문제와 학습 목표는 일치하는가? 4. 연습 문제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5. 연습 문제의 정답을 제공하는가?

앞에서 정리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2종의 교재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하 『표준한국어』를 a로 『한국어』를 b로 표시할 것이다.

먼저, 외래어 학습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 내용 분석 표를 만들었다.

<표26> 학습 내용 분석

교재	외래어 어휘	총 어휘 수	삽화 사진 도표	설명	발음 표시	외래어 구조	의사소통 맥락
----	--------	--------	----------	----	-------	--------	---------

		수				분석 여부		
a	『표준한국어』 (1)	45 개	1167 여개	없음	형태-품사제시 -중국어의미 번역-예문 제시	있음	없음	있음
	『표준한국어』 (2)	48 개	884 여개					
	『표준한국어』 (3)	36 개	1280 여개					
b	『한국어』 (1)	43 개	1047 여개	없음	형태-품사제시 -중국어의미 번역-(예문없 음)	없음	없음	있음
	『한국어』 (2)	52 개	2104 여개					
	『한국어』 (3)	52 개	1800 여개					
	『한국어』 (4)	35 개	2205 여개					

교재 a와 b에서 어휘의 형태와 중국어로 번역된 뜻을 제시한다. 그 중 몇 개의 어휘를 골라서 상세한 뜻풀이와 예문을 제시한다. 어휘 설명에 대하여 단정한 두 개의 간단한 중국어 어휘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단어의 사용 방법, 사용 범위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학습자들은 제일 쉬운 개념만 기억할 수밖에 없으며, 단어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 b 교재의 발음 표시가 없고 단어 구조가 복잡한 외래어인 경우 단어 구조를 분석하지도 않다. 학습자는 제시된 외래어만을 알고 새로운 외래어를 만난다면 여전히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학습자 어휘 능력 신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다.

실제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외래어의 어휘량은 총 어휘량보다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외래어에 대한 연습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27> 연습 활동 분석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	외래어 연습활동의 유형	연습문제의 정답 제공 여부

a	1. 어휘를 이용해서 빈칸 채우기 2. 어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기 3. 중-한, 한-중 번역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외래어 연습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있음
b	1.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2. 제시한 어휘로 대체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 3. 중-한, 한-중 번역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외래어 연습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없음

a, b 교재는 공통적으로 외래어 어휘 연습활동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끔씩 어휘 연습 활동 내용에서 나타날 뿐이다. 중요한 외래어 몇 가지가 연습 활동에 제시되더라도 연습 유형은 대부분 빈칸 채우기나 문장 만들기, 번역하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습할 때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외래어 관련 연습 문제가 적고 연습 유형의 단일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교재의 경우, 연습문제의 정답을 제공하지 않아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재를 살펴본 결과, 교재에 외래어 관련 연습 문제를 많이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쉽게 지칠 수 있는 어휘 부분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지, 어휘 연습을 지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주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위의 교재 분석 내용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교재의 외래어 부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sup>50)</sup>

### (1) 외래어 어휘량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외래어의 어휘량은 총 어휘량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총 어휘량과 각 외래어의 어휘량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정된 어휘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재에서 똑같은 단어를 몇 번씩 반복하여 실은 것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표준한국어』 (1)권 와 (2)권에서 '관광버스'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났다. (1)권에서는 '旅游车, 观光汽车'로 번역되었고 (2)권에서는 '旅游汽车'로 번역되었다. 또한, 『표준한국어』 (1)권에서 '파마하다'를

50) 유연(2013)의 내용을 참조했다.

제시하고 (2)권에서 '파마'를 제시한다. '파마하다'는 '파마'보다 '파마'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형태가 더욱 복잡해서 중급 수준인 학습자에게 더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어휘 선정에 있어 실생활과 거리가 먼 외래어 어휘 선정하는 문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名) 证券交易所运营的场外证券市场(KOSDAQ)', '하이포넥스(名)(Hyponex)美国的肥料公司' 등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전문 용어가 교재에서 수록되어 있어 어휘 선정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2) 외래어 제시 및 뜻풀이 문제점

유연(2013:70)은 "교재 분석을 통하여 외래어 뜻풀이 중에는 연관이 없는 중국어로 설명한 것도 있으며, 같은 한국어 외래어이지만 교재마다 의미와 뜻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중국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어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유연(2013:70)은 다음과 같이 외래어 뜻풀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표준한국어』에서 제시된 '스프레이'는 중국어 번역이 '蛋奶酥(수플레)'라는 식재료로 되어 있는데 미용재료인 '噴霧器'로 수정되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뜻풀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학습자에게 혼란과 오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재의 오류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외래어의 뜻풀이를 규범화하여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교재의 외래어 뜻풀이 중 번역이 이상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1)</sup>

### <표28> 『표준한국어』 (1) 외래어 뜻풀이

로터리(名)街心圆盘, 街心公园, 转盘路,      버스(名)大客车, 公共汽车, 슈퍼마켓(名)超级市场, 自选市场,      스테판(自)斯忒藩,      롯데호텔(名)乐天宾馆, 신라호텔(名)新罗饭店,      티벳(名)西藏,      카네이션(名)康乃馨,      토마토(名)西红柿, 튜립(名)郁金香,      로보트(名)机器人
--

51) 유연(2013)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먼저, 『표준한국어』(1)의 외래어 선정에 있어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 '로터리', '스테판', '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려워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뜻풀이에 있어서 '버스'를 '大客车, 公共汽车'로 번역하였는데 '大客车'와 '公共汽车'는 중국어에서 다른 개념이라 학습자가 '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大客车'의 뜻을 빼고 '公共汽车'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슈퍼마켓'의 경우, 중국어에서 '超级市场, 自选市场'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超市'로 수정되어야 한다. '롯데호텔'을 '乐天宾馆'로, '신라호텔'을 '新罗饭店'로 번역하였는데 똑같은 '호텔'을 의미가 다른 중국어로 번역하여서 학습자가 '호텔'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어 'XX宾馆'로 수정하면 중국어 번역이 보다 정확하며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도 더 가깝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아 오류를 보이는 외래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로보트'는 '로봇', '티벳'은 '티베트'로 수정해야 한다.

<표29> 『표준한국어』(2) 외래어 뜻풀이

드라마(名) 电视剧, 广播剧,	디스코텍(名) 夜总会,	무스(名) 摩丝,
슈바이처(名) 施威策儿(人名),	스프(名) 人造纤维,	컵(名) 奖杯,
스프레이(名) 苏法莱, 蛋奶酥,	프레온 가스(名) 氟利昂,	트렁크(名) 皮箱,
씨클(名) 课外活动小组,	크레파스(名) 彩色粉笔, 蜡笔	

『표준한국어』(2)에서 나타난 오류는 다음과 같다. '드라마'는 '电视剧, 连续剧', '컵'은 '奖杯, 纸杯', '트렁크'는 '行李箱', '프라이 팬'은 '煎锅, 平底锅'로 수정해야 한다. '무스'는 '크림이나 젤리에 거품을 일게 하여 설탕, 향료를 넣고 차게 한 디저트'와 '머리에 발라 원하는 대로 머리 모양을 고정시키는 데 쓰는 거품 모양의 크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재에서는 두 번째 의미만 제시하였다. 보완을 위해 '慕斯, 摩丝'로 수정해야 한다.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디스코텍'은 '디스코텍', '씨클'은 '서클'로 수정해야 한다.

<표30> 『표준한국어』(3) 외래어 뜻풀이

디자인(名) 样式, 款式,	콤플렉스(名) 自卑感,
----------------	--------------

페인트칠을 하다(词组)刷油漆

위에 제시한 문제 뜻을 보면, '디자인'은 '설계'란 기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設計, 樣式, 款式'로 수정해야 한다.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컴플렉스'는 '콤플렉스'로 수정해야 한다. '페인트칠을 칠하다'는 '페인트를 칠하다'로 보다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다.

『한국어』(1)~(4)권의 외래어 뜻풀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한국어』(1) 외래어 뜻풀이

공항버스(名)机场巴士, 노트북(名)笔记本(notebook),  
메모(名)记录,便笺(memo), 버스(名)公共汽车, 스키(名)滑雪(ski)  
스키장(名)滑雪场, 서비스(service), 슈퍼(名)超市,  
쇼핑하다(他)(shopping)购物, 서비스(名)免费赠送, 스케이트(名)滑冰

위의 외래어 뜻풀이를 보면, 중국어 번역과 영어 원어를 같이 제시한 경우도 있고 중국어 번역만 제시하고 영어 원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뜻풀이 제시 방식이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버스'를 '버스(名)公共汽车(bus)'로, '스케이트'를 '스케이트(名)滑冰(skate)'로 제시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노트북'은 '筆記本電腦'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국어 '笔记本'은 '노트북'의 뜻도 있고 '노트/수첩'의 뜻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서비스'는 교재에서 제시한 의미 외에 '장사에서, 값을 깎아 주거나 덤을 붙여 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服务, 加送, 免费赠送'의 뜻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인 뜻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의 어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표32> 『한국어』(2) 외래어 뜻풀이

서비스(名)服务(service), 조깅(名)长跑(jogging), 인터넷(名)互联网,因特网,  
메모(名)备忘录(memo)

앞에서 제시한 『한국어』(1)권의 외래어 뜻풀이 부분의 문제점과 같이 (2)권에서 외래어 뜻풀이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1)권에서

나타난 '서비스'란 단어는 (2)권에서 다시 나타났으며 뜻풀이가 여전히 적절하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1)권에서는 단어 '메모'를 '记录, 便笺'로 번역하며, (2)권에서는 '备忘录'로 번역한다. 이와 같이 같은 외래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그 뜻이 일치하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sup>52)</sup> 중국어 번역에 있어 '조깅'을 '慢跑'로 수정해야 한다.

<표33> 『한국어』 (3) 외래어 뜻풀이

TV(名)电视, 电视机(티브이),    모델(名)模特(model),    사우나(名)桑拿浴, 芬兰蒸气浴(sauna),    서울타워(名)汉城塔,    이메일(名)电子邮件(E-mail), 컴맹(名)(컴퓨터+문맹)不会使用电脑的人, 코스닥(名)证券交易所运营的场外证券市场(KOSDAQ), 하이포넥스(名)(Hyponex)美国的肥料公司
---

'모델', '메일' 등 (1), (2)권에서 반복하여 나타난 어휘가 (3)권에서 다시 나타났다. 선정된 외래어의 난이도를 보면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외래어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이포넥스'와 '코스닥'은 사용 빈도가 낮아서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수록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TV(티브이)'와 같은 제시 순서의 오류는 '티브이(TV)'로 수정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에 있어 '汉城(한성)'은 '서울'의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서울타워'를 '首尔塔'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34> 『한국어』 (4) 외래어 뜻풀이

그리니치(名)格林民治(Greenwich),    그리니치천문대(名)格林尼治天文台, 넷맹(名)(internet+문맹)网盲,    폰맹(名)(phone+문맹)手机盲,    코트(名)大衣, 홈시어터(名)家庭影院(home theater system), 헥타르(名)(依存)公顷(hectare),    휠체어(名)轮椅(wheelchair), 카메라폰(名)数码相机手机(camera phone),    디지털(名)数字(digital)
--

'넷맹'과 '폰맹'은 외래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외래어이기 때문에 뜻풀이를 제시할 때 뒤의 괄호 안에 조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코트'

52) 유연(2013:34)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는 (2)권에서 '外套, 上衣'로 번역되었는데 (3)권에서는 '大衣'로 번역되었다. 의미 상 다소 차이가 있어서 중국어 번역을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다. '카메라폰'을 '拍照手机', '디지터'를 '数字, 数码'로 수정해야 한다.

뜻풀이 문제뿐 아니라 외래어 제시 형식에 면에서의 문제점도 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 교재의 어휘는 모두 '단어(한국어로)-품사/원어-해설(중국어로)'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어를 제시하는 형식도 있으며, 원어를 대신해 품사로 제시하는 형식도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system)', '엘리베이터(elevator)', '가스(명)', '다이어트(외)' 등이다. 교재마다 통일된 어휘 제시 형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휘 제시 형식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단어의 개념만을 이해시키며,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단순히 따라 읽고 암기하는 정도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외래어를 보고 외울 수밖에 없는 학습 현실에서 학습자는 늘 학습에 대한 부담과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유연(2013)에서 어휘 제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유연(2013)의 관점을 참고하여 외래어 제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므로 쉬운 한국어 외래어도 영어 표시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처음 접하는 것이므로 언어 습관의 차이 때문에 불편이나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외래어가 어떤 품사인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즉, 초급 수준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외래어 제시는 '단어(한국어로)-품사-원어-뜻풀이(중국어로)'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표준한국어』(1)에서 '아이스크림', '버스', '커피' 등의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

예). 아이스크림(명사, ice-cream), 冰淇淋  
버스(명사, bus) 巴士, 公交车  
커피(명사, coffee) 咖啡

둘째, 중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한국어 외래어를 선정해야 할 뿐 아니라 난이도가 있는 문화와 경제에 관한 한국어 외래어 또는 뉴

스 신문에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어 외래어를 수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급에서 '모니터, 비닐, 오피스텔,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지 못하는 한국어 외래어가 있다. 이와 같은 외래어는 단순히 한 가지 의미만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외래어 뜻풀이를 제시할 때 한 가지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자로 하여금 외래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뜻풀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1)에서 '모니터'라는 외래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각 의미를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모니터(명사, monitor) 顯示器(컴퓨터 장치),  
 監督員, 試用者, 挑毛病的人(직업)

셋째,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경제 활동, 컴퓨터와 전자의 기술 등 전문 분야의 용어 중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래어를 고려하여 수록해야 한다.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같은 컴퓨터 용어와 '시나리오', '시멘트', '재테크', '인센티브'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어휘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원어가 아니므로 이런 외래어들을 접할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중급 단계의 외래어 제시 형식과 달리 원래 외래어 제시 형식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와 '순화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여 제시하면 더 좋을 것이다. 즉, '한국어 외래어(품사[분야], 원어)-순화어-중국어 뜻풀이'의 형식이다.

예). 가. 시나리오(명사[예술], scenario)  
 대본(臺本), 각본(腳本)-電影劇(台/腳)本  
 나. 시멘트(명사[건축], cement)  
 양회(洋灰)-水泥迷, 水門汀

고급 텍스트를 분석하다보면 친숙하지 않은 주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어 외래어가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뜻풀이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뜻을 알고 접근할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순화어 형식도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 단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 외래어 연습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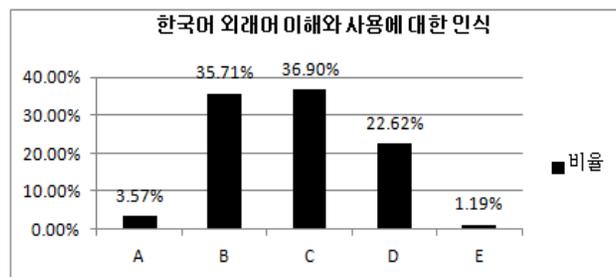
연습 활동 부분에서는 외래어 연습이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제시된 각 단원의 연습 문항 중 외래어와 관련된 문항은 아주 적은 편으로, 몇 가지 제시된 것도 거의 '빈칸 채우기' 식으로 외래어의 뜻만을 묻는 문항이다. 외래어의 표기법, 조어법, 의미 변화 등에 대한 이해 능력 고찰 부분이 부족하다.

## 3.2. 외래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외래어 교육 실태를 보다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에 재학 중인 한국어 중급 학생 84명에게 한국어 외래어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상황 및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외래어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인식<sup>53)</sup>

<그림1> 한국어 외래어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인식



먼저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중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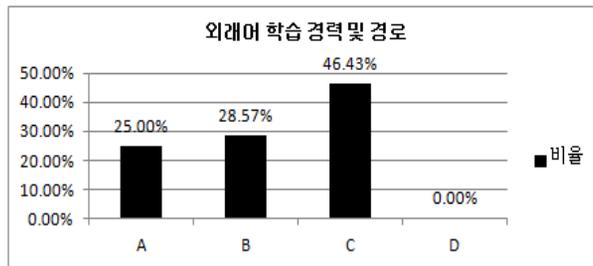
53) A~E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배워 본 적이 없다.
- B. 영어 원어의 발음과 차이가 있다.
- C. 복잡한 외래어인 경우 단어의 형성 구조 규칙이 어렵고 외래어의 형태가 복잡하다.
- D. 영어 원어의 의미와 다르다.
- E. 기타

학습자의 전체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86.90%의 학생이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학생의 91.67%는 외래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 중 '영어 원어의 발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은 30명(35.71%)이고 '영어 원어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은 19명(22.62%)이며 나머지 학생은 거의 모두 '외래어 특히 형태가 복잡한 외래어의 단어 형성 규칙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외래어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래어 학습 경력 및 경로<sup>54)</sup>

<그림2> 외래어 학습 경력 및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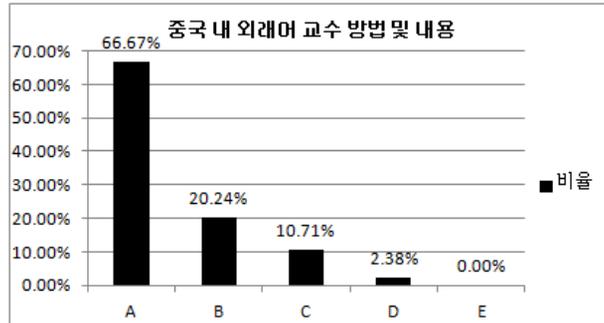
한국어 외래어 학습 경력 및 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외래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외래어에 대해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5%에 그쳤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전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하거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고 대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외래어를 공부하는 데에 교사의 역할이 부족하고 원활히 이루어

54) A~D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B.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D. 기타

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내 외래어 교수 방법 및 내용<sup>55)</sup>

<그림3> 중국 내 외래어 교수 방법 및 내용



중국 내 한국어 외래어의 교수 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66.67%의 학습자는 '외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라고 대답했다. 20.24%의 학습자는 '외래어와 영어 원어를 비교하여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교사가 외래어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한다.'라는 대답을 선택한 중국인 학습자는 단 10.71%에 그쳤다. 이 결과는 다시 한 번 중국에서의 외래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4) 외래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외래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거의 모든 학습자는 '필요가 있다'라고 선택했다. 더불어 교재에서 외래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5) 중국 내 외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

55) A~E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외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 B. 외래어와 영어 원어를 비교하여 설명했다.
- C. 외래어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했다.
- D. 외래어와 같은 뜻을 가지는 한국어 고유어를 같이 제시하여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 E. 기타

마지막으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67.86%의 학습자가 외래어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 4.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의 선정

이충우(2006:5)는 교육용 어휘의 선정은 어휘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용 외래어의 선정은 외래어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어휘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어휘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4.1.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 선정의 현황

최근 10년 간,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가 조은호(2006), 이정희(2007), 김남예(2010), 강현화(2012, 2013, 2014) 등이 있다. 조은호(2006)에서는 학습용 외래어 기본 어휘를 제시하였다. 이정희(2007)에서는 조남호(2003)의 외래어 목록과 이병규(2005)에 나와 있는 외래어 목록을 비교 분석한 후 전체 대상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교사 5인과 연구자가 함께 해당 어휘의 등급 판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정희(2007)에서는 이병규(2005)와 조남호(2003)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거나 실제 빈도수와 검토해 보는 등 어떠한 비판도 없이 그 목록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어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남예(2010)는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출판된 교재 8권에 제시된 전체 외래어를 추출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외래어는 제외한 후 빈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김남예(2010)의 제시된 목록에는 한글 자모로 표기된 외래어뿐만 아니라 다수의 로마자 표기도 포함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외래어 연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sup>56)</sup> 강현화(2012, 2013, 2014)에서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중·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어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강현화(2013)에서는 '중급' 단계의 어휘

56) 김미나(2011:16-1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교수의 방향을 고려한 7종의 어휘 목록(접사, 의성어·의태어, 외래어, 준말, 관용 표현, 속담, 문화 어휘) 중의 하나인 외래어의 어휘 목록 선정과 활용 방안, 그리고 활용 시 필요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본문의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 4.2.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 제시 및 난이도 설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연구 대상은 영국에서 유입된 외래어, 외래어 요소가 참여하여 형성된 단어들(즉, 외래어가 포함된 파생어와 합성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요소가 참여하여 형성된 신어<sup>57)</sup>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할 때 '일반 외래어'와 '신조 외래어' 두 가지 측면의 외래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민현식(2004)에 의하면 외래어는 차용 동기에 따라 '필요외래어'와 '잉여(불필요)외래어'로 나뉜다. 필요외래어는 다시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외래어(일반 외래어)'와 전문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외래어'로 나뉜다. 잉여외래어는 동작과 성상(상질, 상태, 감각, 심리 등)이나 일부 기존 개념을 표현할 때 나타나며 품사적으로 주로 동사, 형용사와 일부 명사들에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하여 순화 대상으로 지목받는 어휘로 대개 잉여 차원에서 유행어로만 떠도는 것이 대부분이라 진정한 외래어로 부를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현식(2004)의 차용 동기에 따른 외래어 분류 유형을 참고하여 '일반 외래어'와 '신조 외래어'로 나누어 교육용 외래어를 선정하고자 한다.

### 1) 일반 외래어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육용 외래어를 선정할 때 강현화(2012, 2013)의 한국어교육용 어휘 초급용 1836개 단어와 중급용 3855개 단어들 중에서 외래어를 추출하고자 한다.<sup>58)</sup> 강현화(2012, 2013)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활용을 염두로 일반 목적으로 한국어

57) 다음 이런 단어들을 신조 외래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58) 강현화(2012, 2013, 2014)가 있는데 본 연구의 교육 대상이 중급 수준인 학습자이어서 고급 수준의 외래어 어휘를 고려하지 않겠다.

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초급과 중급 단계의 한국어교육용 어휘를 선정했다.<sup>59)</sup> 강현화(2012, 2013)를 바탕으로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외래어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휘의 교육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강현화(2013)에서 외래어 목록 선정했을 때 조남호(2003), 김미나(2011), 정정정(2012), 이정희(2007), 조은호(2006)의 외래어 선정 목록을 참고하여 토픽 출제 어휘 목록의 외래어 부분도 포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교재의 타입·토큰, 강범모 외(2009) 빈도, 선행연구와 교재 간의 중복도 등의 객관적 지표도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선정된 외래어가 아주 높은 교육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한국어 외래어를 선정할 때 학습 외래어 음운 현상의 목록보다는 학습 외래어의 표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강현화(2013)에서는 활용 시 필요한 선정된 외래어의 관련어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버스'와 관련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복합어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강현화(2013)에 수록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와 같은 외래어 관련 보조 자료들을 본고의 교육용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하고자 한다. 본고는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래어의 난이도를 설정할 때 단어의 조어 유형의 복잡 정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다.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어형, 약어형, 파생형, 합성형' 네 가지 조어 유형이 있는데 원어 형태의 외래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약어, 파생, 합성' 형태의 외래어는 구성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

---

59) 강현화(2012)에서는 기존 어휘 선정 목록들을 통한 객관적 방법과 친숙도 조사 및 전문가 평정의 주관적 방법을 사용하는 '절충적 어휘 선정 방법'을 통해 초급용 한국어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어휘 선정 자료로 사용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용 기초어휘(서상규 외, 1998,2), 2) 한국어교육용 기본어휘(조현용, 2000), 3) 등급별 한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1: 초급어휘에 한정), 4) 한국어 학습용 어휘(조남호, 2003:A, B등급에 한정), 5) 한국어교육용 초급 어휘(최길시, 1998), 6)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김한샘, 2005),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출현 어휘(초급어휘에 한정).

시내버스', '시외버스'와 같이 '버스'가 어근으로서 참여하여 구성된 합성형 외래어들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래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들은 단일어 '버스'보다 형태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래어는 '버스'류, '카드'류, '커피'류, '택시'류, '쇼핑'류가 있다.

강현화(2012, 2013)에 나와 있는 외래어를 바탕으로 이러한 외래어들의 등급과 조어 유형을 함께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육용 일반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였고 난이도를 제시하였다.<sup>60)</sup>

<표35>교육용 일반 외래어 목록<sup>61)</sup> 및 난이도 제시

난이도	일반 외래어 목록
쉬운 것	게임, 껌, 벡타이, 노트, 뉴스, 다이어트, 데이트, 드라마, 디자인, 라디오, 러시아, 레스토랑, 마트, 말레이시아, 메뉴, 메모, 메시지, 바나나, 버스, 베트남, 볼펜, 블라우스, 비디오, 빌딩, 사이다, 사이즈, 샌드위치, 서비스, 센터, 소파, 쇼핑, 슈퍼마켓, 스웨터, 스카프, 스케이트, 스키, 스키장, 스타, 스트레스, 스파게티, 스포츠, 아나운서, 아르바이트, 아이스크림, 아파트, 앨범, 에어컨, 엘리베이터, 오렌지, 올림픽, 와이셔츠, 원피스, 인도네시아, 인터넷, 주스, 초콜릿, 치킨, 카드, 카레, 카메라, 카페, 캐나다, 커피, 컵, 케이크, 콘서트, 콜라, 크리스마스, 택시, 터미널, 테니스, 테니스장, 테이블, 텔레비전, 토마토, 트럭, 티셔츠, 파티, 프라이팬, 프랑스, 프로그램, 피아노, 피자, 햄버거, 헬스클럽, 호텔, 휴대폰
어려운 것	가스, 가스레인지, 가톨릭, 개인택시, 고속버스, 고속 터미널, 골프, 골프공, 골프장, 공중전화 카드, 공테이프, 공항버스, 교통 카드, 그래프, 냉커피, 네티즌, 노트북, 녹음테이프, 다운로드, 달러, 댐, 도심 공항 터미널, 드라이, 드라이브, 드라이클리닝, 드레스, 디자이너, 디지털, 레몬, 렌즈, 렌터카, 로그인, 로봇, 리듬, 리무진, 리본, 마라톤, 마우스, 마을버스, 마이크, 메뉴판, 메달, 메모지, 멜로디, 모니터, 모닝커피, 모범택시, 물컵, 뮤지컬, 미니, 미디어, 미팅, 밀리

60) 강현화(2012)에 나와 있는 외래어를 초급으로, 강현화(2013)에 나와 있는 외래어를 중급으로 간주하였다. 단어 등급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는 '버스'류, '카드'류, '택시'류, '쇼핑'류 단어의 경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어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난이도를 설정하였다.

61) 단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p>미터, 바바리코트, 반코트, 버터, 버튼, 베란다, 배터리, 벤치, 벨, 벨트, 보너스, 볼링, 부츠, 뷔페, 비닐, 비닐봉지, 비닐우산, 비닐장갑, 비닐종이, 비닐하우스, 비자, 비타민, 사우나, 샴푸, 선글라스, 세미나, 세일, 세트, 센티미터, 셔츠, 셔틀버스, 소개팅, 소스, 소시지, 쇼, 쇼핑몰, 쇼핑센터, 슈퍼, 스커트, 스케줄, 스타일, 스튜디오, 슬리퍼, 시내버스, 시디, 시리즈, 시멘트, 시외버스, 신용카드, 아이디어, 아이스크림, 아프리카, 알레르기, 액세서리, 에너지, 에스컬레이터, 오토바이, 오페라, 오피스텔, 온라인, 와인, 요구르트, 원두커피, 원룸, 월드컵, 유럽, 이메일, 이벤트, 인스턴트, 인터뷰, 재킷, 잼,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접퍼, 종이컵, 채널, 챔피언, 체크무늬, 치즈, 카드놀이, 캠페인, 커트, 커튼, 커피숍, 커피포트, 컴퓨터 게임, 컴퓨터실, 코너, 코미디, 코스, 코트, 콘도, 콜택시, 크림, 클래식, 키스, 킬로, 킬로그램, 킬로미터, 텔런트, 터널, 테스트, 테이프, 트렌치코트, 파마, 파일, 파트너, 패션, 패스트푸드, 팬, 팬티, 페이지, 포크, 프로, 프린터, 플라스틱, 핸드백, 핸드폰, 현금카드, 홈 쇼핑, 홈페이지</p>
--

## 2) 신조 외래어의 선정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외래어는 영어에서 유입된 외래어 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와 다른 어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 외래어까지도 포함하나, 강현화(2012, 2013)에서는 신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의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2014)을 참고하여 신어로 등재된 단어 중 외래어 요소가 참여하여 형성된 신어들을 추출하였다.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형성은 주로 최근에 많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외래어 요소가 포함되어 형성된 단어들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료를 『신어 자료집』에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신조 외래어의 선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1차로 영어에서 유입된 신어를 추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외래어는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2단계:** 2차에서는 추출된 신어 중 전문어, 구 표제어, 그리고 일반어 구 표제어를 제외하였다. 선정된 외래어 중 일반 용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의학, 약학, 화학 등 전문 영역의 학술 용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자 한다.

**3단계:**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외래어는 '원어' 외 '외래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고유어' 네 가지 결합 형식이 있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원어인 경우와 두 번째, 외래어 요소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된 신어들을 배제하여 고유어나 한자어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만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어 요소끼리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어에 차용되기 전에 형성된 것인지 한국어에 차용된 후에 형성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62)</sup>

둘째, 『신어 자료집』 중 외래어 요소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된 신어가 매우 많으나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다. 또한, 단어 구성에 참여한 각 외래어 요소가 어렵고 학습자가 이와 대응되는 영어 원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전체의 단어를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외래어+외래어' 형식인 신어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4단계:** 위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외래어 64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외래어들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것도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본 단계에서는 10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로 하여금 64개 신조 외래어 중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외래어 20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모어화자들의 선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20개를 추출하였다.

**5단계:** 다음으로 추출한 신조 외래어의 난이도를 설정하였다. 이충우(1994)는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에 대해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경험적 방법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sup>63)</sup>. 주관적 방법은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어휘 평정에 의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선정한 방법론이며, 객관적 방법은 말뭉치나 교재 자료 등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자료의 일부분을 추출하고 빈도와 분포를

62) 전명미·최동주(2007)는 이와 같은 단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검색이 되는 것은 차용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63) 주관적 방법은 어휘를 선정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객관적 방법은 각 자료를 선정하여 이 자료의 일정 부분(목적하는 어휘를 추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어휘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어휘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경험적 방법은 선정자의 주관에 개입되기 때문에 주관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를 선정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관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것이기에 경험적 방법 또는 절충적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계량적인 연구 방법론이 도입된 후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후자는 객관성 측면에서 적절한 연구 방법이지만 기초 문헌 자료가 타당한가, 빈도의 결과가 교육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sup>64)</sup> 마릉연(2016)에 따른 경험적 선정 방법이란 교사가 교수·학습할 때 주관적·객관적 방법에서 제시되지 않은 어휘를 수업의 흐름상 학습자에게 제공하면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경험적 선정 방법은 교사가 쌓은 경험이지만 교사 개인의 주관 의식과 판정에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마릉연(2016)을 참조하여 경험적 선정 방법을 주관적인 선정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본 단계에서 신조 외래어의 난이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방법론이나 객관적인 방법론만으로는 난이도 설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절충적인 방법도 사용하게 된다. 즉, 객관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난이도를 설정한 후에 한국인 모어화자 10명의 평정을 통한 주관적 방법론으로 객관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신조 외래어의 난이도를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각 기준에 해당되는 요소에 특정한 점수<sup>65)</sup>를 부여한다. 단어의 점수 범위는 3점부터 10점까지인데 각 단어의 총 점수를 통하여 난이도를 판정할 수 있다. 난이도를 판정하는 각 기준, 요소 및 점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6> 난이도 설정 참고기준 및 각 요소 점수 부여

방법	판정 기준	해당 요소	점수 부여
객관적 방법론	내부 구성 한자어/고유어의 등급	초급	1
		중급	2
		고급	3
주관적 방법론	조어 유형	약어형(축약, 축합 등 포함)	3
		파생형	2
		합성형	1

64) 마릉연(2016:148)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65) 점수는 높을수록 단어가 더 어렵고, 반면에, 점수는 낮을수록 단어가 더 쉽다.

	노출/사용 빈도	자주 쓴다	1
		보통	2
		자주 안 쓴다	3
	배경 지식	있어야 돼	1
		없어도 돼	0

먼저, 객관적 방법은 어휘 참조 자료<sup>66)</sup>에 따라 신조 외래어의 내부 구성 개별 어휘의 등급을 참고하여 전체 신조 외래어의 난이도를 정한 방법이다. 예컨대, '외래어+고유어'와 '외래어+한자어'인 경우, 내부 고유어나 한자어의 등급은 초급 1점, 중급 2점, 고급 3점으로 각각 부여하였다. 내부 구성 한자어나 고유어 몇 개가 함께 있는 경우, 그 중 제일 큰 점수를 취한다.

다음, 주관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주관적 방법에는 '조어 유형'에 따른 판정 기준, '노출/사용 빈도'에 따른 기준, '학습자의 배경 지식'에 따른 판정 기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어 유형'에 따른 판정이다. 앞의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 분류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어형 외 약어형, 파생형, 합성형이 있다. 그 중 약어형에 있어 절단형이나, 축합형 등 다양한 축약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래어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어형 신조 외래어를 모두 3점으로 부여하였다. 합성형 외래어의 경우, 어근으로서의 각 요소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결합하면 합성형 외래어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파생형 외래어보다 조어 유형이 단순하고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파생형 신조 외래어와 합성형 신조 외래어를 각각 2점, 1점으로 부여하였다.

둘째, 외래어의 난이도는 노출 및 사용 빈도와 연관성이 있기도 하다. 신조 외래어의 노출 및 사용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10명의 한국어 모어화자들로 하여금 선정된 20개 신조 외래어를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자주 쓴다(1점) - 보통(2점) - 자주 안 쓴다(3점)'의 점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배경 지식의 판정 방법도 마찬가지로 '외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꼭 있어야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배경 지식이 없어도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선정된 20개 신조 외래어의 총 점수가 나올 수 있

66) 강현화(2012-2014)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3단계)』는 주로 어휘 참조 자료이다.

다. 예를 들어, 베댓(best+댓글)이라는 신조 외래어의 난이도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강현화(2012-2014)에 따라 내부의 구성 요소 '댓글'이 중급 수준이므로 2점을 부여하였다. 다음, '베댓'의 조어 유형을 고려하면, '베스트'와 '댓글'의 일부분을 축약한 후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이루어진 축합형 단어이기 때문에 약어형 외래어에 속한다. 그래서 3점을 더 부여하였다. 10명의 한국어 모어화자는 '베댓'에 대하여 노출 빈도에 평균 점수 2.5를 부여하였고 배경 지식에 1점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베댓'의 최종 점수는 8.5(2+3+2.5+1)이다.

위와 같은 선정 과정 그리고 난이도 설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신조 외래어 목록 및 난이도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7> 신조 외래어<sup>67)</sup> 목록 및 난이도 제시

신조 외래어 목록	난이도 점수	신조 외래어 목록	난이도 점수
노관심	4.5	베커상	8
교카충	5	오티	8.25
개파	6	멕스타그램	8.5
종파	6	셀스타그램	8.5
비글미	6.33	웹스타그램	8.5
소셜력	7	베댓	8.8
갠톡	7.2	냥스타그램	9
허니잼	7.5	뇌섹남	9.33
메뉴판남	7.9	셀기꾼	9.76
셀피	8	껌딱지녀	10

앞에서 언급한 강현화(2012, 2013)에서 추출한 '일반 외래어' 목록과 『신어 자료집』(2014)에서 추출한 '신조 외래어' 목록을 합쳐서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67) 교육할 때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이런 신조 외래어들의 사용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신문기사나 인터넷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베커상(<영>←best couple賞) ¶ooo는 "대상을 받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ooo와 {베커상을} 받고 싶다."라고 말해 ooo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스포츠투데이 2014년 10월》; 멕스타그램(멕←Instagram) ¶이번 화보에서 ooo은 '셀스타그램', ...{멕스타그램}' 등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주제로, ooo만의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했다.《마이데일리 2014년 8월》(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2014)을 참조했다.)

### Ⅲ.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양상 및 오류 분석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인지 양상과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인식 및 오류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중국인 학습자 초급 4명, 중급 8명, 고급 8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 실험으로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중국인 학습자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 및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 1. 조사 방법 및 절차

##### 1.1. 조사 참여자 정보

강현화 외(2013)에서 외래어는 서로 다른 음운 체계로 인한 음운(발음)과 형태(표기) 상의 차이, 사용 맥락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한 교수가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급 단계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기초 어휘로서의 외래어가 많고,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전문용어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초급에서는 교재의 단원별 주제와 관련한 외래어를 중심으로 교수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의 절단이나 파생, 합성 등에 의한 외래어의 확장과 한국어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의 축소와 확대, 유의 관계 어휘를 통한 세밀한 의미 등을 함께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고는 조어법을 활용하여 외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 단계에 더욱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의 조사 대상은 한국어 중급 수준(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기준)의 중국인 학습자로 정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참여 대상자는 중국 국내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중급 학습자 총 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출신의 중국인 중급 학습자이다. 한국어 외래어 이해 양상에 언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학습자를 한국에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자들 중에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이나 교류 중인 중국인 학습자도 있고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학습자도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및 한국 거주 기간 등에 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38>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대학 정보	중급 학습자 총 인원(명)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 이상
상해해양대학교	27	17	4	6
산둥대학교	19	17	2	
대련외국어대학교	24	20	4	
연변대학교	14	13	1	

첫째, 조사에 참여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4급 수준에 해당하는 중급 학습자이다.<sup>68)</sup>

둘째, 성별에 따라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조사 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주로 20대이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의 나이는 20대를 위주로 한다. 조사 자료를 통해 제시될 외래어는 신문 매체에서 많이 노출된 신조 외래어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외래어에 대한 인식은 연령층에 따라 인지 및 이해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20대 학생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을 고정시키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

넷째,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고찰이어서 영어를 모르면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정된 조사 참여자는 모두 중국 대학교에서 영어 CET 4급 이상 수준을 도달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영어 CET 4급

68)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하여 고급 학습자는 외래어 형태 표기, 단어 내부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뜻을 모르는 복잡한 외래어의 경우, 대부분의 고급 학습자는 발음의 특성과 외래어 내부 구조 분석을 통하여 뜻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다. 또 본 연구는 일부 신조 외래어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의 경우 어휘량이 부족하여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초급, 고급 수준인 학습자를 모두 조사 참여자에서 제외하고 중급 수준인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이상 수준이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대부분 단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 1.2. 조사 방법 및 자료 구성

앞에서 제시했던 교육용 외래어 목록 중에서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추출하여 본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다.

설문 조사는 크게 '교수 학습 실태 조사'와 '학습자 이해 능력 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교수 학습 실태 조사

교수 학습 실태 조사는 중국 현지 대학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외래어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안하였다. 교수 학습 실태 조사에 관한 문항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2. 한국어 외래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3. 한국어 외래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  
A. 배워 본 적이 없다.  
B. 영어 원어의 발음과 차이가 있다.  
C. 복잡한 외래어인 경우 단어의 형성 구조 규칙을 잘 모르고 외래어의 형태가 복잡하다.  
D. 영어 원어의 의미와 다르다.  
E. 기타

### (2)학습자 이해 능력 및 오류 양상 조사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한계 및 변인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어판 설문지를 만들었다. 중급 학습자의 외래어 지식의 양적 및 질적 측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 능력 조사 부분의 설문지 내용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문항(1)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이해 능력 고찰, 문항(2)외래어 어휘 양적 능력에 대한 고찰, (3)

외래어 어휘 능력(양적&질적 능력)에 대한 고찰<sup>69)</sup>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이해 능력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항1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외래어 조어 형태를 먼저 제시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각 외래어의 형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다형 문제이다.

두 번째는 외래어 어휘에 대한 양적 능력을 고찰하는 문항이다. 구분관 외(2014:58)는 '어휘 단위(양적 능력 포함)'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기준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1)단어보다 작은 단위(파생 접사, 어미 등)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2)단어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가? (3)단어보다 큰 단위(관용구, 속담, 연어 등)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능력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외래어 중 특히 파생형, 합성형 외래어가 가장 생산적이다. 파생형 외래어인 경우 '사이버-', '-팅', '-텔'과 같은 접사가 참여한 파생형 외래어가 많고 합성 외래어의 경우 여러 가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하위범주화기능이나 명명기능을 가지는 합성 외래어가 아주 많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단어 한 가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성이나 파생 외래어를 얼마나 만들고 생성할 수 있는지,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 양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 구분관 외(2014:58)의 관점을 참조하여 문항2를 만들었다.

셋 번째, '어휘 유추'를 통해 외래어 어휘지식의 양적인 측면을, '단어 분석하기'를 통해 외래어 어휘지식의 질적인 측면을 가늠해 보기 위해 문항3을 만들었다.

파리바흐트와 베쎄(Paribakht & Wesche, 1993, 1997)에서 개발한 '어휘지식 평가 척도(VKS: Vocabulary Knowledge Scale)'는 어휘지식을 '발달적 접근법(developmental approach)'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평가 방법은 '자기 보고(self-report)'와 어휘 시험이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들이 어휘지식

---

69) 구분관 외(2014:58)에서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각 기준별로 세분화하였다. 즉, (1) 어휘 능력의 속성, (2)어휘 단위(양적 능력 포함), (3)어휘들 간의 관련성(어휘부의 거시 구조), (4)개별 어휘에 대한 질적 능력(어휘부의 미시 구조), (5)어휘 사용의 양상이다. 본고에서는 '어휘 단위(양적 능력)'과 '어휘 질적 능력' 이 두 가지 능력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설문지 '이해 능력 조사' 부분에서 문항2, 3을 만들었다. 문항2는 학습자의 어휘 양적 능력에 대한 고찰이고 문항3은 학습자의 어휘 질적 능력에 대한 고찰이다.

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 '1) 단어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 2) 형태를 인식하는 단계, 3) 의미도 어느 정도 추측하는 단계, 4)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단계, 5) 생산적으로 문맥 속에서 사용하는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sup>70)</sup> 황은하(2014:344)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래어의 음성적 형태 유사성을 활용한 어휘 유추의 실제적인 성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단순한 'Yes/No' 형식 대신 '어휘지식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어휘지식 평가척도'를 참고하여 문항3을 만들었다. 문항3의 구체적인 질문 구성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1: 이 단어를 안다.(중국어 의미를 쓴다.)

질문2: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다.(추측해보기)

질문3: 이 단어를 전혀 모른다.

질문4: 단어 분석하기

질문1은 학습자들이 외래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쓰인 외래어를 중국어로 의미를 표시하게 한다는 부분이고 질문2는 외래어 뜻을 잘 모르는 경우 추측하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질문1은 학습자가 해당 외래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이때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 모국어로 쓰면 된다. 이에 비해 질문2는 해당 외래어 단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 단어를 모르지만 조어법에 주목하여 외래어의 형태와 조어법적 지식을 연계하여 유추를 시도해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외래어 유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한국어 외래어의 단어 조어법을 분석한 어휘 유추의 실제적인 성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2를 설정하였다. 질문3은 추측도 아예 할 수 없어서 결국 해당 외래어의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외래어의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기' 부분으로서 질문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구성과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sup>71)</sup>

70) 리드(Reed, 2000:132-135)와 황은하(2014:34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71) 본고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1'에서 제시하였다.

<표39>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예시

구성	고찰 측면	문항 예시
교수 학습 실태 조사	교수 학습 실태	<p>* 자기가 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한국어 외래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p> <p>A. 외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p> <p>B. 외래어와 영어 원어를 비교하여 설명했다.</p> <p>C. 외래어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했다.</p> <p>D. 외래어와 같은 뜻을 가지는 한국어 고유어를 같이 제시하여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p>
학습 자 이 해 능 력 조 사	조어 법 고찰	<p>*韩语中的外来词按照单词的构造来分析，一共有以下四种形态。请判断每个单词对应的形态类型，并在该单词后的横线上用①~④标记。(한국어 외래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각 외래어의 형태 유형을 선택하여 쓰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①英语单词原始形态 (영어 단어 원래 형태): 예) 소파←sofa</p> <p>②英语单词的缩略形态 (영어 단어 축약 형태): 예) 에어컨←aircondition</p> <p>③有前缀或后缀的派生词形态 (접사가 있는 파생 형태): 예) 드라이브하다←드라이브(drive)+ -하다</p> <p>④几个单词结合的形态 (어근 몇 가지가 결합한 형태): 예) 휴대폰←휴대(携帶)+ 폰(phone)</p> </div> <p>보기: 물컵 (      ④      )</p>
	외래어 어휘에 대한 양적 능력 고찰	<p>*请选出能和以下外来语结合的单词，并写出结合后的新单词(可重複選擇)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 다음 외래어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쓰십시오.) (복수선택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보기:    밀리    전기    킬로    관광    공항    백(bag)    카 드    폰    신용    교통    전자    고속    센터    인터 넷    홈    서틀    현금    범죄    강좌    대학</p> </div>

외래어휘에 대한 양적 & 질적 능력 고찰	버스: ( 관광버스, 공항버스, 고속버스, 셔틀버스 )			
	*请写出以下单词的中文解释, 并分析单词构成 ( 不认识的单词可以猜测, 猜不出的情况下请在问题3下方用 'v' 标记 )			
	(다음 단어의 중국어 의미를 쓰시고 단어를 분석해주시요. 모르시면 추측해보세요. 추측할 수 없으면은 질문3에서 'v'로 표시하세요.)			
	단어 72)	질문1 : 중국어 의미	질문2: 뜻을 추측해보기	질문3 :  모른다
보기: 휴대 폰	手机			携帯+ phone

## 2. 조사 결과 및 분석

수집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외래어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외래어의 이해 양상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문항에서 노출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Excel 프로그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치를 계산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편차, t-검정 그리고 유의 확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의 유형별 양상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외래어에 대해 학습자가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래어에 대한 교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설계 시 보충하고자 한다. 외래어 이해 양상의 결과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1. 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72) 설문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교카층, 오피스텔, 노관심, 아파트, 바보틱, 보디빌딩, 싱크대, 소셜력, 개파, 허니잼, 멕스타그램, 힐, 베커상, 전자레인지, 종이컵, 핸드백, 골프장, 비닐봉지, 마을버스, 골프공, 신용카드, 냉커피, 비닐장갑, 시내버스, 스키장, 모범택시, 컴퓨터실, 공항버스, 카드놀이, 테니스장, 에어컨, 반코트, 고속터미널, 녹음테이프, 헬스클럽)

학습자가 조어법에 대한 이해 능력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중급 수준인 외래어뿐만 아니라 원어형, 축약형, 합성형, 파생형에 해당되는 초급, 고급 수준인 외래어도 몇 가지를 선정하여 문항1을 만들었다. 참여자의 답안을 보면, '베란다'를 파생형으로 선택한 참여자가 두 명이 있었다. 참여자들 중 가장 많이 범한 오류는 '소개팅'을 합성형태로 간주한 오류이다. 다음으로, '오피스텔'을 합성형태로 착각한 참여자는 36명, 원어형태로 착각한 참여자는 17명, 약어형태로 간주한 참여자는 15명이 있었던 반면에 파생형이라고 선택한 참여자는 16명이 있었을 뿐이다. '전자레인지'를 파생형이라고 선택한 참여자는 23명이 있었다. 약어형에 속하는 '아파트'와 '오티'를 원어형으로 간주한 참여자도 소수 있었다.

네 가지 조어 유형에 대한 대상 학습자의 이해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11개의 외래어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해당 외래어의 조어 유형별로 묶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원어 형태에 속하는 '베란다', '카메라', 축약 형태에 속하는 '아파트', '오티', 파생 형태에 속하는 '노크하다', '오피스텔', '소개팅', 그리고 합성 형태에 속하는 '물컵', '신용카드', '전자레인지', '비닐봉지'이다. 각 유형의 참여자 오답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0> 조어 유형별 오답률

조어 유형	단어	단어별 오답률	조어 유형별 오답률
원어형	베란다	2.38%	2.38%
	카메라	0	
축약형	아파트	5.95%	26.19%
	오티	46.43%	
파생형	노크하다	10.71%	59.13%
	오피스텔	80.95%	
	소개팅	85.71%	
합성형	물컵	2.38%	11.61%
	신용카드	1.19%	
	전자레인지	27.38%	
	비닐봉지	15.48%	

위의 표를 보면, 참여자는 원어형태의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파생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약어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소수 있다.

참여자는 왜 틀리게 답했는지 조어법에 대해 도대체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명 참여자한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에 대한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6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베란다'는派生詞, '오티', '오피스텔'은英語原型,為什麼這麼認為呢? ('베란다'가 파생어, '오티', '오피스텔'이 영어 원어 형태라고 선택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여자6: '베란다'의意思不記得了,單從形態上來看,'베란'加上'-다'所以應該是派生詞. ('베란다'의 의미를 기억이 안 났는데요. 형태만으로 보면 '베란+ -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파생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有'-다'의形態的就是派生詞? 你是這麼認為的嗎? ('X+ -다'의 형식이어서 파생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6: 是的. '오티'의意思我也不知道,形態上是兩個音節組成的,形態沒有那麼複雜,所以我猜應該不是合成或者派生,所以選擇了原型. (네, 그리고 '오티'의 의미도 잘 몰라요. 형태가 두 음절만 있어 가지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합성, 파생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어 형태를 선택했어요.) '오피스텔'這個詞課堂上老師講過,是英語的'officetel', 所以是原型. ('오피스텔'은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이고요. 영어는 'officetel'이어서 원어 형태예요.)

<참여자7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為什麼認為'소개팅'是合成詞? (왜 '소개팅'이 합성어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7: '介紹'和'팅'結合在一起,所以是合成詞. ('소개(介紹)'와 '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요. 그래서 합성어인데요.)

연구자: 那麼'팅'是什麼意思呢? (그러면은 '팅' 무슨 뜻이에요?)

참여자7: 應該是英語的'ting'吧? 可能表示某個行為動作的進行時. ('ting'인가? 어떤 행위가 진행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연구자: 為什麼 '전자레인지'是派生詞呢? (왜 '전자레인지'가 파생어예요?)

참여자7: 我也不太確定,憑感覺選的.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느낌대로 선택했어요.)

조사 참여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참여자는 조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합성어와 파생어, 접사와 어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가지 단어의 결합이면 바로 합성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합성어와 파생어

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학생이 적었다. 그리고 '오티'와 '아파트'처럼 어떤 영어 단어가 형태변화를 거쳐 원어보다 더 짧은 형태로 나타난 외래어인 경우, 참여자는 단어 형태의 변화 과정을 잘 몰라서 외래어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외래어 어휘 양적 능력의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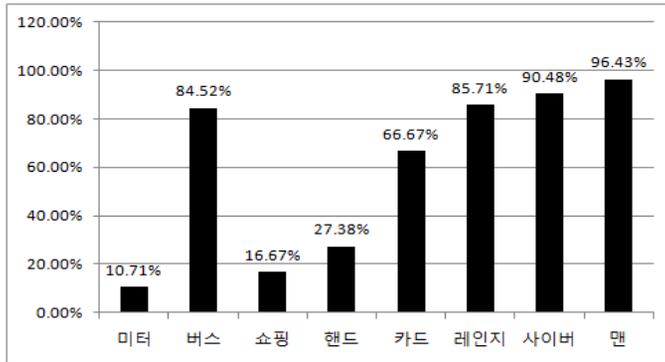
문항2는 보기에서 제시했던 단어들 중 각 외래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결합 가능한 단어를 빠짐없이 모두 선택한 후 새로운 단어를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하였고 한 가지라도 빠진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조사 결과, '미터'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가 '밀리, 킬로, 센티'가 있는데 대부분 참여자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썼다. '쇼핑'과 '핸드'의 경우, 대부분 참여자는 '인터넷 쇼핑'과 '핸드폰'을 정확하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홈쇼핑'과 '핸드백'을 쓰지 않았다. '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관광, 공항, 카드, 고속, 셔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모두 정확하게 쓴 참여자가 13명밖에 안 되었다. '카드'와 '레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참여자는 '신용카드'와 '전자레인지'를 썼는데 '현금카드'와 '전기레인지'를 안 쓴 참여자가 60명 정도 넘었다. 마지막 '사이버'의 경우, 접두사로써 뒤의 '범죄', '강좌', '대학'과 같은 어근이 결합되어 '사이버범죄', '사이버강좌', '사이버대학'이 될 수 있다. 참여자 중이 세 가지 파생형 외래어를 모두 정확하게 쓴 참여자는 매우 적었다. 각 항목의 오답 비율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 해당 외래어를 모두 찾지 못한 비율

단어	비율	단어	비율
미터	10.71%	카드	66.67%
버스	84.52%	레인지	85.71%
쇼핑	16.67%	사이버	90.48%
핸드	27.38%	맨	96.43%

<그림4> 해당 외래어를 모두 찾지 못한 비율



위의 도표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외래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외래어를 유추하는 능력이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터(10.71%)', '쇼핑(16.67%)', '핸드(27.38%)'의 오답률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나머지 단어의 오답률은 아주 높다고 보인다.

둘째, 제시한 외래어의 유형을 보면, 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형',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파생형' 두 가지가 있다. '버스(84.52%)'가 참여한 '관광버스, 공항버스, 버스카드, 고속버스, 셔틀버스', '카드(66.67%)'가 참여한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카드', 그리고 '레인지(85.71%)'가 들어 있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레인지'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형태의 외래어이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접사는 접두사 '사이버-(90.48%)'와 접미사 '-맨(96.43%)'이었다. 참여자의 오류 양상을 보면, 어근이나 접사가 참여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만을 알고 있었고 어근이나 접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어휘량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참여자는 외래어보다 더 작은 단위인 파생 접사, 어근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의 어휘 양적 능력이 한국 거주 기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자의 오답률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4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자의 오답률<sup>73)</sup>

73) 조사 참여자 84명 중 한국 거주 6개월 이하인 학생이 67명이 있고, 6-12개월인 학생이 11명 있으며 나머지 6명이 12개월 이상인 학생이다. 각 거주 기간에 해당되는 학생 인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총 인수 84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동

한국 거주 기간	단어	오답 인수	오답률	단어	오답 인수	오답률
6개월 이하	미터	3	4.48%	카드	47	70.15%
	버스	59	88.06%	레인지	62	92.54%
	쇼핑	14	20.90%	사이버	63	94.03%
	핸드	21	31.34%	맨	67	100%
	62.69%					
6-12개월	미터	4	36.36%	카드	7	63.64%
	버스	10	90.91%	레인지	8	72.73%
	쇼핑	0	0%	사이버	11	100%
	핸드	2	18.18%	맨	9	81.82%
	57.59%					
12개월 이상	미터	2	33.33%	카드	2	33.33%
	버스	2	33.33%	레인지	2	33.33%
	쇼핑	0	0%	사이버	2	33.33%
	핸드	0	0%	맨	5	83.33%
	31.25%					

위의 표를 총괄적으로 보면,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참여자의 평균 오답률은 낮고 어휘 양적 능력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2개월 이상인 조사 참여자의 오답률은 6개월 이하인 참여자의 오답률보다 확실히 낮게 나타났다. 6-12개월인 조사 참여자의 오답률은 6개월 이하인 참여자의 오답률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고 일부 단어의 경우 오히려 오답 인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의 경우, 각 단어의 오답 인수가 모두 현저히 낮았다.

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2개월 이상의 모든 조사 참여자는 '쇼핑'과 '핸드'가 포함된 합성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썼다. 그러나 6개월 이하의 참여자의 오답 양상을 보면, '쇼핑'의 경우, 대부분 참여자는 '인터넷 쇼핑'은 썼지만 '홈쇼핑'은 쓰지 못했다. '핸드'의 경우, 6개월 이하인 참여자 67명 중 20명은 '핸드폰'만 쓰고 '핸드백'은 쓰지 못했다. '홈쇼핑'과 '핸드백'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서 실제 한국에서 그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한국에 와 본격적이 있으면 이 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버스'와 '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포함된 '공항버스', '셔틀버스', 그리고 '카드'가 어근으로서 포함된 '현금카드'라는

---

일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답 인수가 해당 거주 기간 유형에 속하는 총 인 수(67, 11, 6)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였다.

단어는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앞에서 분석한 중국에서 출판된 두 가지 한국어 교과서의 어휘 부분에서는 '관광버스'만 제시하고 있고 '공항버스'와 '셔틀버스'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습활동 부분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에 교사가 '버스'라는 외래어를 가르칠 때 '공항버스', '셔틀버스'와 같은 '버스'류 합성 외래어를 보충 설명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현금'보다 '카드'가 더 많이 편하게 쓰이는 편이고 그 종류도 '버스카드', '현금카드', '스마트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한국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동안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틀림없이 다양한 '카드'류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카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면 학생의 어휘 양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한편, 파생 접사의 경우 접미사 '-맨'의 오답 인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중 특히 '배달맨'을 쓰지 못한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배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합성어의 오류 원인을 알아보고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4와 참여자9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4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셔틀버스'是什麼意思呢? ('셔틀버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여자4: 不曉得。第一次見到。應該是巴士的一種吧。(몰라요. 처음 들은 표현이에요. 혹시 그것도 버스예요?)

연구자: 對的, 對於的英語是shuttle bus, 這個單詞日常生活中會經常見到。(예, 영어는 'shuttle bus'인데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還有, 為什麼寫了'쇼핑홈'這個單詞? 這個單詞是什麼意思呢?(그리고 왜 '쇼핑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참여자4: 網上購物這個單詞我是確定的, 但是'쇼핑홈'這個詞我不是很確定。

(사실은 저는 '인터넷 쇼핑'은 확실한데 '쇼핑홈'은 확실하지 않아요.)

연구자: 教材中出現過'쇼핑홈'這個詞?(교과서에서 나온 단어예요?)

참여자4: 沒有, 網上購物學過, 但是這個詞沒有學過。(아니에요. '인터넷쇼핑'을 수업 시간에 배웠고 '쇼핑홈'은 안 배웠어요.)

<참여자9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배달맨'這個單詞是怎麼知道的呢? ('배달맨' 어떻게 알아요?)

참여자9: 我交換生來韓國的時候認識了這個詞, 發現日常生活中還經常用到。特別是平日里叫外賣的時候經常會用到。(저는 교환학생으로써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단어를 한국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 이후 자주 썼어요. 특히, 우리 피자나 치킨을 시킬 때 '배달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연구자: 原來如此....'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這兩個詞有什麼差別嗎? 請分析一下。(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두 단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여자9: 前者以前學校學習過, 後者是我來韓國以後才認識的. ('전자레인지'는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어이고요. '전기레인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표현이에요.)

연구자: 是嗎? 來韓國之後從哪裡學習到的呢?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참여자9: 我當時來淑明女子大學交換, 住在國際管宿舍。每一層有一個公用廚房, 廚房的牆上貼著的公告上寫有這個詞, 然後查字典就理解了。(저는 작년 교환학생으로써 한국에 있었을 때 숙명여대의 국제관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우리 층의 취사실에서 '전자레인지'와 '전기레인지'가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와 '전기레인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썼어요.)

### 2.3. 외래어 어휘 능력(양적&질적 능력)의 조사 결과 분석

문항3 조사 내용은 문항1과 문항2의 고찰 내용을 종합하여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 능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만든 문항이다. 문항3의 조사 결과를 통해 조사 참여자의 어휘 능력을 어휘 양적, 질적 능력 두 가지 측면으로 가늠하고자 한다. 즉, 외래어 지식의 크기와 외래어 지식의 깊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외래어 지식의 크기

외래어 지식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질문1, 2, 3 범주를 주목하고자 한다. 외래어 지식의 양적인 측면은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외래어 어휘를 알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가 테스트를 통해 대답한 '1)알고 있는 외래어, 2)모르지만 유추해 본 외래어, 3)모르는 외래어'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오답 분석을 통한 전체 이해 가능한 외래어 지식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전체 조사 참여자들이 답한 질문 범주 세 가지의 양적인 측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3> 참여자의 범주별 외래어 지식의 양

전체 질문 범주	중급 학습자 84명	
	평균	표준편차
질문1 (이 단어를 안다)	19.58(54.40%)	5.21
질문2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다.)	8.29(23.67%)	3.51
질문3 (이 단어를 모른다)	7.01(20.03%)	4.44

\*단위(개): 총 외래어 인식 테스트 항목은 35개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질문1에 대답한 조사 참여자의 평균 외래어 항목 수는 전체 어휘 35개 중의 54.40%를 차지하는 19.58개였다. '질문3'은 원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전혀 추측도 할 수 없어서 결국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이다. 이 항목에 대한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평균은 전체 항목의 20.03%이었다. '질문2'에서 참여자들이 일단 단어의 형태나 발음의 특징을 관찰해 봄으로써 의미 추측을 시도한 항목은 평균 8.29개(전체 항목의 23.67%)였다. 즉, 참여자는 외래어에 대한 선지식이 부족하고, 테스트 자체에 문맥적인 단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형태 특징을 분석하여 의미를 추측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의 표준편차 수치를 살펴보면, '질문1, 2, 3'의 표준편차 수치가 대체로 비슷하고 그 수치 역시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중급 수준의 학습자의 외래어에 대한 지식의 양이 대체로 비슷하고 이에 따라 외래어에 관한 양적 능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질문2 '유추 시도' 부분의 표준편차(3.51)와 질문3 '모른다'(4.44)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어휘 추측이 성공적일 경우, 기습득된 외래어 지식량이 적었어도 유추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어휘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이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1) 질문1에서의 오답 비율

참여자들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질문1'의 개별 응답 어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 스스로가 해당 외래어의 의미를 안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오답인 단어들(74) 즉,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래어 인식 조사에서 단어 형태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유추한 경우도 있었고 한국어 외래어 어휘의 음운적, 형태적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 유추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 본인은 그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1의 실제 정답과 오답의 평균 수치 및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4> 질문1 (알고 있는 단어)의 실제 정답과 오답의 평균

질문1	중급 학습자 84명	
	평균	표준편차
알고 있는 단어(정답)	18.23(52.07%)	5.34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틀린 단어(오답)	2.07(5.92%)	0.95
총합	19.58(54.40%)	5.21

참여자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틀린 단어의 비율이 전체 중 5.92%로 나타났다. 주로 '오피스텔'과 '노관심'이 그러한 단어들이었는데 추후 면접을 통해 이 두 외래어의 오답률이 높은 원인을 찾아보았다.

(2) 질문2(어휘 추측해보기)의 성공 여부

조사 참여자의 '어휘 추측해보기'의 성공 및 실패의 평균 수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5> '어휘 유추'의 성공 및 실패 평균

어휘 유추	중급 학습자 84명	
	평균	표준편차
유추에 성공한 외래어	7.87(22.48%)	3.30
유추에 실패한 외래어	0.42(1.20%)	0.83
총합	8.29(23.67%)	3.51

74) 라우퍼(Laufer, 1997)는 이렇게 학습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어휘를 'Deceptive transparency'라고 하고, 그 세부 하위를 '1) Words with a deceptive morphological structure, 2) Idioms, 3) False friends(L1의 부정적 언어 전이), 4) Words with multiple meanings, 5) Synforms(similar lexical forms)'로 나누었다.

참여자들이 모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휘 유추를 통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어휘 항목의 전체 평균은 7.87개로 전체 어휘량의 22.48%뿐이었다. 그래서 참여자는 외래어의 형태의 특징을 주목하여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4명 참여자 중 대부분 학생의 유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중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A의 경우, 질문1(알고 있는 외래어) 항목이 10개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 25개 외래어 중 9개를 추측하여 의미를 모두 맞혔다. 이 예시를 통하여 참여자A는 앞에서 살펴본 '질문1(테스트 항목에 대한 선지식)'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성공적인 유추의 결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선지식의 한계를 보상하며 전체적인 어휘 이해의 크기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참여자 A의 경우를 통하여 외래어 조어의 유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학습자 외래어 지식의 크기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외래어를 알고 있는 경우와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휘 유추를 통하여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이해가 가능한 어휘량에 포함된다. 반면에 처음부터 아예 몰랐고 추측을 시도해봤는데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항목들은 결국 이해가 불가능한 어휘량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전체 외래어 어휘 항목 중에서 이해 가능한 것과 이해가 불가능한 것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해 가능한 단어와 불가능한 단어의 평균 백분율과 표준편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6> 참여자들의 총 외래어 지식 크기

전체 외래어 지식량	중급 학습자 84명	
	평균	표준편차
이해 가능한 단어 (아는 단어+유추 성공)	26.13(74.66%)	4.23
이해 불가능한 단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틀린 단어+유추 실패+모르는 단어)	8.87(25.34%)	0.97
총합	35(100%)	5.21

위의 표를 살펴보면, 중급 수준의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74.66%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 <표44>의 '이 단어를 안다'고 응답한 54.40%보다 20.26%가 늘었다. 그래서 학습자의 어휘 유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급 참여자들의 어휘 유추 전략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편차와 t점수를 계산해 보았다. 참여자 집단이 어휘 유추를 시도하기 전과 후로 실제 이해 어휘량이 유의미하게 차아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유의확률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7> 참여자들의 '어휘 유추' 사전과 사후 결과 비교

어휘 유추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양쪽)
사전	18.23(52.07%)	5.34	7.9 (22.59%)	4.411	0.007
사후	26.13(74.66%)	4.23			

유의확률 p값이 0.007(<0.05)로 참여자 집단의 어휘량 증가의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휘 유추'는 어휘량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 외래어 지식의 깊이

앞의 내용은 조사 문항3의 질문 범주1, 2, 3을 통하여 조사 참여자의 외래어 지식의 크기를 살펴본 것이다. 참여자의 외래어 어휘에 대한 질적 능력을 반영하는 지식의 깊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질문4 '단어 분석하기' 부분의 답안 양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단어 분석하기' 부분에서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한 경우를 '이해 가능'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경우를 '이해 불가능'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부분 답안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는 외래어의 구조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하기' 부분의 고찰 내용은 외래어의 조어 유형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래어 35개를 조어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에 속하는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불가능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당 질문에 지시된 단어들을 앞에서 언급

했던 조어법에 의한 외래어 분류 방법에 따라 '절단형, 축합형, 파생형, 합성형'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어를 유형별로 묶어서 각 조어 유형의 평균 '이해 불가능'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8> 조어 유형별 이해 불가능 비율

조어 유형	단어	유형별 평균 이해 불가능 비율
절단형	에어컨, 힐, 아파트	21.83%
축합형	교카충, 멕스타그램, 개과, 베커상	67.26%
파생형	골프장, 테니스장, 스키장, 노관심, 바보틱, 오피스텔	25.00%
합성형	모범택시, 고속 터미널, 전자레인지, 녹음테이프, 종이컵, 핸드백, 골프공, 비닐봉지, 비닐장갑, 마을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신용카드, 카드놀이, 컴퓨터실, 헬스클럽, 반코트, 냉커피, 싱크대, 소셜력, 보디빌딩, 허니잼	15.82%

전체적으로 참여자는 외래어 단어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가지 조어 유형에 따라 외래어 이해 불가능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따르면 축합형 외래어의 이해 불가능 인수(67.26%)가 제일 많았다. 하지만 합성형 외래어의 경우, 조사 자료로 삼은 외래어 중 합성형 외래어의 양이 많은 만큼 오답 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적은 것(15.82%)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 두 명에게 일대일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5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공항버스, 시내버스各是什麼意思呢? 請具體分析一下。(공항버스, 시내버스는 각각 무슨 뜻이에요? 분석해 주시겠어요?)

참여자5: 공항버스는 '공항+버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一個是機場大巴一個是市內公交的意思。(공항버스는 '공항+버스'이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이에요. '공항버스'는 機場大巴인데, '시내버스'는 '市內公交'의 뜻이에요.)

연구자: 我看你的 '마을버스'意思推測對了而且分析正確, 是怎麼想得呢?(그리고 '마을

버스'의 뜻을 추측하였는데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참여자5: 是的, 以前沒有學過, 但是根據上面機場大巴和市内公交, 我推測這個也應該是  
公交的一種, 意思就是마을和버스의結合。(네,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앞의 '공항버스', '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의미도 '  
마을'과 '버스'의 결합이겠지요? 저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참여자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感覺難嗎?(문항3을 어렵다고 느껴요?)

참여자1: 有幾個很難, 比如 베커상, 허니잼, 以前從來沒有接觸過的單詞。(몇 개만 어  
려워요. 예를 들어, 베커상, 허니잼 등의 단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연구자: '비닐봉지', '비닐장갑'這兩個詞以前學過嗎?('비닐봉지', '비닐장갑' 배운 적이  
있어요?)

참여자7: 비닐, 봉지, 장갑這三個單詞單獨學過, 合在一起就能知道它們的意思了。(비닐  
'과 '봉지', '장갑' 세 단어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서로 합쳐서 합성어의 의미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는 단어의 형태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만  
나더라도 조어법 분석을 통해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  
성 외래어인 경우, 실질형태소 몇 가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외래어인데 각 실  
질형태소의 의미를 알면 어근의 의미를 합쳐서 합성 외래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당 외래어 이해에 있어 조어 유형에 대한 인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위의 표에서 참여자의 각 외래어에 대한 오답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조어 유형에 속하더라도 각 단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불균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합성형인 경우, '소셜력'을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의 비중은  
3.57%인 반면에 '싱크대'와 '허니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의 비중은  
50%를 넘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외래어 조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  
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자 유형별의 구체적인 오  
류 양상 및 오류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절단형 외래어 조사 결과 분석

첫 번째 절단형 단어 중 '힐'을 'heal(치유하다)'로 쓴 참여자가 열 명 있었고,

간혹 'hair(머리카락)'으로 쓴 참여자도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정확하게 답했다.

<참여자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為什麼'힐'是'heal'治愈的意思? 以前見過這個單詞嗎?(왜 '힐'이 'heal'이에요? '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여자3: 第一次見到, 因為發音很相近所以猜測是'heal'。(발음이 비슷해요. '힐'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한국인이 흔히 쓰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고층 건물로 된 공동주택을 의미하지만, 원어로 볼 수 있는 'apartment building'의 본래 뜻은 '셋집 건물'이다. 원어 'apartment'는 보통 2-3층 높이의 건물인 셋집을 의미하고 한국처럼 주인이 살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와 같은 한국어 외래어 '아파트'와 영어 원어 'apartment'의 차이점은 교수·학습 때 교사가 강조해야 한다.

(2) 축합형 외래어 조사 결과 분석

두 번째 축합형에 속하는 단어가 '교카충', '먹스타그램', '개과', '베커상'이 있다. '개과'를 '開+파티'로 분석한 사람이 2명 있었다. '베커상'의 경우, 'back+song'으로 분석하는 등 정답과는 거리가 먼 답안이 많이 나타났다.

<참여자2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為什麼把'베커상'翻譯成'背景音樂'? ('베커상'이 왜 'back song'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2: '베커'和英文的back發音一樣, '상'和'song'對應, 所以應該是背景音樂吧. ('베커'는 영어 'back'의 발음과 비슷하고 '상'은 'song'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했어요.)

(3) 파생형 외래어 조사 결과 분석

일반 외래어 '골프장, 테니스장, 스키장, 오피스텔'과 신조 외래어 '노관심, 바보틱'은 파생형에 속한다. '골프장, 테니스장, 스키장'은 모두 '어근'과 접미사 '-장'이 결합하여 구성된 파생형 외래어이다. 이 세 가지 외래어는 틀리게 분석한 참여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반 외래어 중 예외가 있었다. '오피스텔'을 'officetel'로 분석하여 '办公楼'로 번역한 참여자가 상당히 많았다. 신조 외래어의

경우, '노관심'을 '老+관심'로 쓴 사람이 아주 많았다. '바보틱'은 '바보+tick'으로 쓴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쓰고 빈칸으로 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바보틱'은 '바보+틱'으로 분석하였고 단어의 의미도 대충 알고 있었지만 '틱'이 영어의 '-tic'인 것을 모르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것은 일대일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참여자4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오피스텔'为什么是办公大楼呢? ('오피스텔'이 왜 '办公楼'이예요?)

참여자4: 书本上写的, 以前学的时候老师教的是这个意思。(교재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연구자: '바보틱'你这样解剖是对的, 請問'틱'是什麼意思呢? ('바보틱'을 '바보+ 틱'으로 분석하였는데 혹시 이 '틱'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여자4: 不太清楚, 我猜是不是修饰前面的'傻瓜', 表示带有某种性质的...

(모르겠어요. 아마 뭐뭐처럼? '바보처럼'? 앞의 '바보'를 수식한 건가?...)

연구자: '노관심'你是怎麼分析的呢? ('노관심'을 어떻게 분석했어요?)

참여자4: '노'是東北話里的'老', '관심'是'關心', 合在一起是'老關心了'這個意思? 哈哈...

('노'는 우리 동북 지역 방언의 '老' 발음인데, '관심'이 '關心'이예요. 합쳐서 '老關心'이예요. 아주 관심이 있다는 뜻인가? ㅋㅋ 재미있어요.)

'오피스텔'의 정확한 의미는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다.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학생이 이를 '办公楼(사무실)'로 번역하였고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는 특징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officetel'을 단일어로 파악한 참여자가 많았다. '오피스텔'은 사실 'office'와 'hotel'의 뒤 부분 '-tel'이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형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한국어로 유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 풍습,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영향을 받아서 원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가지 특징이 하나의 외래어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외래어의 특징은 조어법의 다양성, 구성 요소 결합 복잡성과 같은 다른 외래어의 특징과 함께 학습자가 외래어를 어렵다고 느끼게 하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 역시 어렵게 한다.

#### (4) 합성형 외래어 조사 결과 분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성 외래어의 오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단어마다 참여자의 이해 능력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와 같이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인 경우, 참여자는 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 참여자는 '소셜력', '보디빌딩', '핸드백' 등 합성의 구조 형태가 뚜렷한 단어의 경우 이에 대한 선지식이 없더라도 조어법 분석을 통해 의미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싱크대'와 '허니잼'의 경우, 다양한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싱크대'의 경우를 '싱크+대(台)'로 맞게 분석했지만 그 의미를 '洗手台(세면대)'로 착각한 사람이 소수 있었다. 그리고 'think+대(台)'로 한 참여자가 두 명이 있었다. 한편 '허니잼'의 경우에는 이를 '허니+jam'으로 분석하여 '(蜂蜜)벌꿀'이라고 생각한 참여자가 생각보다 더 많다.

<참여자8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싱크대'是洗手間里的那個洗手台的意思嗎? ('싱크대'가 화장실에서 쓰이는 그 '洗手台'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8: 是的, 以前學過. (네, 그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연구자: 허니잼這個詞聽過嗎? ('허니잼'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여자8: 第一次聽說...(아니예요. 처음이에요. 'honey+ jam'이라고 생각해요.)

설문지 문항3에서 제시한 외래어 중에는 일반 외래어도 있고 신어 자료집에서 추출한 신조 외래어도 있다. 일반 외래어와 신조 외래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이해 양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35개 단어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집단에 속하는 외래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9> 외래어 유형 분류

외래어 유형 집단	외래어 단어
일반 외래어	오피스텔, 보디빌딩, 전자레인지, 종이컵, 핸드백, 골프장, 골프공, 비닐봉지, 비닐장갑, 마을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신용카드, 카드놀이, 컴퓨터실, 냉커피, 테니스장, 모범택시, 고속 터미널, 녹음테이프, 스키장, 에어컨, 헬스클럽, 반코트, 아파트, 힐, 싱크대
신조 외래어	교카충, 베커상, 노관심, 소셜력, 허니잼, 개파, 바보틱, 멕스타그램

그리고 한국어 학습 환경이 신조 외래어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참여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라는 정보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두 유형의 외래어 집단에 대한 이해 불가능 비율의 차이를 찾기 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50>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참여자의 이해 불가능 비율

한국 거주 기간	외래어 유형 집단	이해 불가능 평균 비율
6개월 이하	일반 외래어	23.10%
	신조 외래어	62.69%
6개월-12개월	일반 외래어	21.21%
	신조 외래어	45.45%
12개월 이상	일반 외래어	27.78%
	신조 외래어	26.19%

<표50>에 따르면 외래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이해 불가능 비율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다. 먼저 종적으로 분석하자면, 일반 외래어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하로 생활한 참여자의 이해 불가능 인수가 제일 많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해 불가능 인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습자들의 이해 불가능 비율이 27.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중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조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불가능 비율은 예상한대로 거주 기간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 거주 시간 12개월 이상의 학습자의 이해 불가능 비율은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적으로 분석하자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조사 참여자는 신조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불가능 인수가 일반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불가능 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반 외래어보다 신조 외래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거주 기간이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 3명<sup>75)</sup>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75) 참여자 세 명을 각각 참여자8, 참여자9, 참여자10로 표시한다. 참여자8의 한국 거주 기간은 6개월 이하이고, 참여자9의 한국 거주 기간은 6-12개월이며 참여자10의 거주 기간

<참여자8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교카충', '베커상', '노관심', '허니잼', '개과', '바보틱' 這些單詞不認識嗎? ('교카충', '베커상', '노관심', '허니잼', '개과', 그리고 '바보틱'을 몰라요? 질문3 '단어를 모른다'에서 표시했는데...)

참여자8: 嗯嗯, 不知道是啥意思。(네, 뜻을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以前見過這些單詞嗎?(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 들었어요?)

참여자7: 沒有, 第一次聽說。(처음 들었어요.)

<참여자9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교카충' 是什麼意思知道嗎? ('교카충'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여자9: 知道, 上回來韓國旅遊, 地鐵站看到幾個韓國妹子在充交通卡說到這個單詞, 最後知道是充交通卡的意思。(네, 원래 여행하러 한국에 와서 교통카드 충전했을 때 옆에 있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화에서 처음 들었어요. '교통카드 충전'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자: '베커상', '개과' 這兩個單詞意思又是怎麼知道的呢? (그럼, '베커상'과 '개과'도 정확하게 답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참여자9: '베커상' 這個單詞在每年的演技大賞裡面會出現, '개과'也是經常出現在一些綜藝節目裡面。因為我很愛看綜藝, 所以知道這兩個詞。('베커상'은 한국 연기대상에서 자주 들은 단어예요. 저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요. '개과'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거예요.)

<참여자10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什麼時候來韓國的? (한국에 언제 왔어요?)

참여자10: 我是去年3月份來的。已經1年多了。(저는 작년 3월에 왔어요.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연구자: '오피스텔' 這個單詞你是怎麼理解的呢? ('오피스텔'을 'office+ -tel'로 분석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한 건가요?)

참여자10: 它是'office'和 'hotel'的 'tel'的結合。('오피스텔'은 'office'와 'hotel'의 뒷부분 'tel'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我在韓國經常能看見一些建築房子的門頭寫著 XX텔。(한국 건물 이름 중 'xx텔'의 표현은 자주 보여요.)

일대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한국에 거주 기간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구의 이 12개월 이상이다.

어휘들이 많이 유입되어 한국식이 된 콩글리시,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신조 외래어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상에서 역시 새로운 언어가 하루가 다르게 생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변화는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 습득 환경은 언어 습득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간판이나 신문, 뉴스를 통해 많은 외래어 어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어 어휘력 신장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반면에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외래어, 콩글리시, 심지어 신조 외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하여 중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외래어를 교수·학습할 때 교사가 한국인 실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는 외래어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 3. 학습자의 오류 원인 분석

이 절에서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오류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정리하여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의 의한 오류'로 분류했다. 코더(Corder, 1981)는 학습자의 오류를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환경 요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정희(2002)와 코더(1981)의 관점을 참고하여 학습자 오류를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구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 '표기법과 조어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오류',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오류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원인이 단 한 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오류 원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학습자의 오류 예시와 함께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1.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구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이주영(2008:61)은 "외래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형태적 오류를 범하는 어휘

목록 중에 하나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외래어는 모두 현지화 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이 외래어가 실제 외국어의 발음과 유사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있어 외래어는 매우 생소한 어휘가 되므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영(2008:61)은 중국어에서 외국어를 수용하여 외래어로 사용할 때는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환하는 경우와 뜻을 중국식으로 풀어쓰는 경우,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혼용한 경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외국어의 의미를 중국어로 풀어쓰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설령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식 음운으로 전환하여 발음하거나 일본을 거쳐 들어와 원어의 발음과 떨어진 상태에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래의 어형을 짐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학습자의 외래어 오류 원인은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가 주로 학습자 외래어의 형태에 대한 이해 능력 고찰이기 때문에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구조 형태의 차이점에만 주목하여 오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단어 형태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외래어의 형태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조사 결과 모국어 조어법 간섭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오류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외래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에서 사용하던 언어 습관이 학습하는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즉, 한·중 외래어 간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중국어 외래어에 대한 선지식이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한·중 파생어 유형에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파생형 외래어를 이해할 때 오류를 쉽게 범한다. 한국어 파생어에 비해 중국어 파생어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결합 유형이 있다. 중국어 파생어의 구조를 보면,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어근과 접사의 위치에 따라 '前附加式(전부가식(접사+어근))', '后附加式(후부가식(어근+접사))', '中附加式(중부가식(어근+접사+어근))' 세 가지 결합 방식이 있다.<sup>76)</sup> 전부가식은 접사가 어근 앞에 부가되는 형식이고 후부가식은 접사가 어근 뒤에 부가되는 형식이다.

전부가식과 후부가식 파생어의 의미는 주로 어근의 뜻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후부가식 파생 외래어에는 '派(pie)'가 핵심적인 한 단어 뒤에 부가되어 형성된 '蘋果派, 蛋黃派 巧克力派, 草莓派' 등이 있다. 전부가식 파생 외래어에는 'mini'라는 접사가 핵심 요소인 어근 앞에 부가되어 생성된 '迷你裙, 迷你電腦'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부가식과 후부가식 파생 외래어는 모두 접사가 하나만 있는 경우이다. 중국어 파생어에는 이 외에도 중부가식, 그리고 특수한 구조를 가진 파생 외래어 역시 존재한다. 특수한 구조를 가진 파생 외래어의 예로는 '前綴+詞根+後綴(접두사+어근+접미사)'형 파생어, '詞根+詞綴+後綴(어근+접미사1+접미사2)'형 파생어, '前綴+詞根+詞綴+詞綴(접두사+어근+접미사1+접미사2)'형 파생어, 그리고 '詞根+詞綴+詞綴+詞綴(어근+접미사1+접미사2+접미사3)'형 파생어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파생형 외래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분석할 때 불가피하게 모국어의 파생 원리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한국어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의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개 종류밖에 없는데 중국어 파생어의 구조 유형은 더욱 복잡하다. 즉 한·중 파생어 유형이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는 한국어의 파생 외래어를 분석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한·중 파생 외래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접두 파생 외래어와 중국의 전부가식 파생 외래어, 한국의 접미 파생 외래어와 중국의 후부가식 파생 외래어에 비슷한 형성 원리가 있지만 단어의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파생어로 간주되는 외래어가 한국어에서 파생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오류 예시는 밑에서 제시하겠다.

둘째, II장 한·중 외래어의 형태적 대조 분석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생형 음역 외래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명사 외에 동사, 형용사인 단어도 많이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 형용사가 거의 없다. 이렇듯 중국어 파생 외래어의 품사 종류가 단일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파생형 외래어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셋째, 학습자는 한·중 약어형 외래어 간에 존재하는 축약 제약의 차이점을 잘

---

76) 許王橋(201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인식하지 못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현대 중국어 어휘는 일반적으로 1음절 혹은 2음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외래어가 들어올 때 화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긴 음절을 피하고 1음절이나 2음절로 축약하여 수용된다. 반면에, 한국어 약어형 외래어인 경우, 절단형, 두음절어형, 축합어형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축약 후 음절이 몇 개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축약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과 같은 축약 제한이 없다. 만약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식 약어형 외래어에 존재하는 제약을 고려하면서 한국어 약어형 외래어를 분석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형태 구조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는 외래어의 형태 유형을 고르는 설문지 문항1인 외래어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주로 나타났다. 오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51> 설문지 문항 예시(1)

<p>문항1: 韩语中的外来词按照单词的构造来分析, 一共有以下四种形态。请判断每个单词对应的形态类型, 并在该单词后的横线上用①~④标记。(한국어 외래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 각 외래어의 형태 유형을 선택하여 쓰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①英语单词原始形态 (영어 단어 원래 형태)          ②英语单词的缩略形态 (영어 단어 축약 형태)          ③有前缀或后缀的派生词形态 (접사가 있는 파생 형태)          ④几个单词结合的形态 (어근 몇 가지가 결합한 형태)</p> </div> <p>오류 예시:          노크하다 (④)    비닐봉지 (③)          아파트 (①)</p>
---

중국인 학습자는 외래어의 조어 유형을 판단할 때 자연스럽게 모국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 조어 유형 중 복합식 조어 유형에는 '연합식', '편정식', '보충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노크하다'의 경우, 중국어에서 '敲门(문을 두드리다)'인데 '동사+명사'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빈식動賓式'이 된다. 그래서 10.71%의 중국인 학습자는 '노크하다'를 합성어라고 판단하였다. '비닐봉지'의 경우, 중국어에서 '塑料袋'인데, '塑料'는 의미

적으로 '재료'를 의미하며 뒤의 '袋'를 수식하는 부가 성분이 된다. 이와 같이 핵심적인 요소 '袋' 앞에 수식어가 붙은 봉지와 관련된 표현에는 '方便+袋', '購物+袋', '環保+袋'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핵심 요소 앞이나 뒤에 부가 성분이 붙여 구성된 단어가 파생어이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비닐봉지'를 파생어로 간주한 학습자(15.48%)가 상당히 많았다.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먼트'의 뒷부분 '먼트'가 절단되어 앞부분 '아파트'만이 남아 있어 약어 형태가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약어형은 대부분 다 1음절이나 2음절 단어이고 3음절 약어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단일어로 착각한 학습자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한·중 약어형 단어의 축약 제한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약어형 외래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為什麼'비닐봉지'是合成詞呢? 請分析一下。(왜 '비닐봉지'가 파생어예요? 분석 해주시겠어요?)

참여자1: '塑料+袋'의構成形式, '塑料'用來修飾'袋', '袋'是詞根, '塑料'是前綴, 所以是派生詞。( '塑料+袋'의 구조 형식이예요. '袋'가 어근이 되고 '塑料'가 접두사가 되어서 '塑料+袋'는 접두 파생어가 됩니다).

학습자1 뿐만 아니라 오류를 범한 다른 학습자에게도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으며 모국어 조어 방식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모국어 조어 방식의 간섭뿐 아니라 모국어 음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현상도 문항3에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노관심'인데 '노관심'을 '老關心'로 번역한 학생이 많았다. 이는 '노'와 '로'의 발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노'와 중국어의 '老[로]'를 대응시켜 생산한 오류이다.

한국어든 중국어든 외래어는 자국의 고유어가 아닌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따라서 외래어와 원어의 음운, 형태,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는 같은 원어를 배경으로 했다고 해도 다른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를 배우는 데 큰 장애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조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학습자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

한 오류를 최소로 하는 것이 외래어 교수·학습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된다.

### 3.2.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

미국 사회언어학자 하임즈(Hymes, 1972)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 체계를 아는 언어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소통의 도구로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sup>77)</sup> 하임즈(1972)가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구축한 이래, 이 개념은 외국어 교육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고, 카날레와 스웨인(M. Canale & M. Swain, 1980), 모리레인드(S. Moirand, 1982) 등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개념을 언어 교육학적으로 재정립하려 시도하면서 의사소통능력 구성요소를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문법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중분(2008:136)에서 재인용) 본고의 연구대상이 외래어 어휘이기 때문에 언어적 측면의 문법적 능력과 비언어적 측면의 사회·문화적 능력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마금선(2012:173)은 '문법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법적 능력은 협의의 언어학적 능력으로 한 언어의 어휘, 음운, 문장 구성, 형태의 요소들을 판별하는 능력과 단어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짜 맞추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능력은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 사회 환경의 기준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과 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언어에는 그 집단의 문화가 함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에 함의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적 원인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주로 사회·문화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권중분(2008:145)은 "타 문화권 사람과 상호 행위적인 의사소통 시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상호간

---

77) Aspect of theory of Syntax(1965)에서 Chomsky는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으로 구분했는데, 언어능력이란 '이상적인 화자-청자'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언술들을 무한적으로 생산해내는 내재적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Hymes와 같은 사회언어학자들은 Chomsky의 언어능력의 개념은 언어의 사회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못 된다. 나아가 비언어적 기호 또한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화 의존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외래어를 교육할 때 새로운 언어와 함께 동시에 비언어적 요소 특히 사회·문화적 요소도 학습해야 한다.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문항2, 3에서 많이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문항2의 각 단어의 오답률을 다시 주목하면 '버스', '카드', '레인지', '사이버'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이유를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해석해도 된다. 문항3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일부 외래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품고 있는 문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2> 설문지 문항 예시2

문화 항목	오류 예시
한국 대중교통	문항2: 버스-(관광버스, 공항버스, 고속버스, 셔틀버스) 문항3: 모범택시
한국 카드 결제 문화	문항2: 카드-(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카드)
한국의 사이버 문화	문항2: 사이버-(사이버범죄, 사이버 강좌, 사이버 대학)
인터넷, SNS 문화	문항3: -스타그램:(멕스타그램)
예능 프로그램 문화	문항3: 베커상...

문항2에서의 '버스'류 합성형 외래어와 문항3에서 '모범택시'는 모두 대중교통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한국의 대중교통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바로 '버스 교통' 문화와 '택시 문화'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방식은 역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다. 버스 교통수단에는 여러 가지 버스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간선버스, 유람 버스, 광역버스, 시외고속버스 등이 있다. 택시의 종류를 보면, 색깔에 따라 검은

색, 노란색, 주황색, 회색 등의 택시 종류가 있고 소속 관계에 따라 모범택시,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있으며 이밖에도 다인승 택시, 리무진 택시, 밴택시, 장애인 및 노약자용 택시 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교통문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통방식을 표현하는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현금'보다 '카드'가 더 많이 편하게 쓰이는 편이고 그 종류도 '버스카드', '현금카드', '스마트카드', '체크카드' 등처럼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한국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동안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틀림없이 다양한 '카드'류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카드'류 단어를 생산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SNS문화, 예능 프로그램 문화 등을 접하는 빈도 및 인식 정도가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NS를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멕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여행스타그램' 등의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SNS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전혀 모르는 학습자의 경우, '-스타그램'류의 단어를 모를 수도 있다. '베커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연예계에서 자주 노출된 단어로서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배경 지식을 전혀 가지지 않은 학습자보다 훨씬 더 높은 추측 정답률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멕스타그램' 這個詞是怎麼認識的? ('멕스타그램'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참여자3: 以前沒學過, 我是自己推測出來的。因為上ins經常看到類似結構的單詞, 所以我推測'멕스타그램'應該也是同樣的構詞方式形成的。(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저는 추측했어요. 왜 이렇게 추측해냐면은...인스타그램에서 #부부스타그램#, #여행스타그램#과 같은 'xx스타그램'의 형식으로 구성된 단어를 자주 봐요. 그래서 혹시 '멕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멕+스타그램'의 형식으로 구성된 단어인가? 이렇게 추측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 중 감정표현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오류 현상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 예시는 '허니잼'이다. 권중분

(2008)은 비언어적 행위를 신체 구성 요소인 신체부위별과 의사소통 행위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해서 제시했다.<sup>78)</sup> 본 절에서는 권중분(2008)의 분류를 참고하여 의사소통 행위별에 속하는 '감정표현'만 주목하였다. 권중분(2008)에 의하면 '긍정적 감정상태', '부정적 감정상태', '신체적 고통', '관심 여부' 등 여러 가지 감정 분류 항목이 있다. '허니잼'이라는 단어는 '매우 재미있다'라는 뜻을 가진 '꿀잼'의 앞부분 '꿀'을 영어 'honey'로 변환한 신조 외래어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기쁨의 긍정적인 감정상태가 담겨 있다. 비언어적 원인뿐 아니라 한국어의 준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허니잼'을 이해할 때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요새 한국어에서는 새로운 준말, 은어, 조어를 만들어 내는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발음상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재미'보다 '잼'을 더 많이 쓴다. 중국인 학습자는 '재미'의 줄임말 '잼'이라는 형태를 잘 몰라서 '허니잼'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고 뜻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단어로는 '예스잼'이 있다. '예스잼'은 '예스(yes)+잼(재미)'을 합친 말인데 긍정적인 감정표현의 뜻이다. 반면에, '예스잼'의 반대말 '노잼'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습자는 이와 같은 외래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감정표현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허니잼'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연관성이 있는 '예스잼', '꿀잼', '노잼' 등 여러 가지 감정표현 단어와 함께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듯 학습자의 오류 원인이 단순한 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 세트 형식으로 판단하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발견하였듯이 참여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 참여자의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래어의 이해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고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래어 교육할 때,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교육하면 더 효과적이다. 교재의 외래어 제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삽화, 그림 등을 통해 문화적 측면이든 의사소통상황 측면이든 비언

78) 신체부위를 크게 머리, 얼굴, 손, 손과 얼굴, 손과 몸, 팔, 머리, 얼굴과 손, 몸으로 분류했다. 의사소통행위별로 분류하면 '표상부호(최고, 우두머리, 침묵요청, 약속, 긍정, 부정)', '삽화적 부호(강조+제안, 의문, 지시, 동작행위, 모욕, 설명...)', '규제부호(거부, 거절, 동의, 발언권요청)', '조정부호(인사)', '감정표현' 등이 있다.

어적 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학습자는 외래어를 이해하고 기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면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자의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 발화 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습 초기부터 인식시키면서 학습자들에게 완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다.

### 3.3. 표기법과 조어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오류

한국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파생어, 합성어에 대한 인식 부족'에 반영된다. 표기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한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의 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오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53> 설문지 문항 예시3

오류 원인	오류 예시
1. 조어법 인식 부족	문항1: 소개-팅: ( ④ ) 문항1: 오피스-텔: ( ④ ) 문항2: -맨:(엘리트맨, 배달맨, 개그맨)
2. 표기법 인식 부족	문항3: 베커샹: (back(백) song(송)) → 모음 인식 부족

먼저, 조어법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보면, 학습자 조어법의 인식 부족은 주로 파생어 특히, 접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파생 외래어에 사용되는 접사에는 '-팅', '-텔', '사어버-', '-맨'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한 어근이 이들 접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파생 외래어가 생성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문항1에서 '소개팅'과 '오피스텔'을 합성어로 간주한 경우, 그리고 문항2에서 '-맨'이 접사로서 참여한 파생 외래어를 모두 정확하게 쓸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목표어의 조어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간주될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많은 참여자는 '맨'이라는 단어가 접미사로서 다양한 파생형 외래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참여자는 '맨'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합성

형 단어로 간주하고 '맨'을 어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5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맨'作為詞綴能和許多詞根結合形成新的派生詞, 這種結合方式以前知道嗎? ('맨'을 접미사로서 어근과 결합하여 만든 '개그맨', '엘리트맨', '배달맨'이라는 파생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파생법을 알아요?)

참여자5: 不知道還有這種派生詞. '개그맨'以前見到過, 但是我一直以為它是合成詞, 沒想到和'人'結合還能組成這麼多新詞啊. (전혀 몰라요. '개그맨'을 원래 들어봤는데 합성 형태의 단어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맨'을 붙여서 많은 단어가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몰랐어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문항3에서 표기법 및 한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나타났다.

점점 늘어나는 외래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외래어 표기법인 『외래어 표기법』(1986, 문교부)까지 이어져왔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년 1월 7일)<sup>79)</sup>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미 제정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규정이다. 황재성(2006)은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언어의 교류도 활발해졌음을 감안할 때 30년간 들어온 말은 매우 많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아직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물론 외래어 표기 세칙은 국가별로 하나하나 정리되어 발표하고 있다고 하나 그 큰 틀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시대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며 특히, '외래어 표기의 기본원칙'에서 문제점이 있다<sup>80)</sup>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제4항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79) 1986년에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1986, 문교부)는 세계적 행사들을 위해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다듬어 제정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표기의 기본원칙이다. 기본원칙에 이어 제2장은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80)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에서는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가 있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규정과 다르게 흔히 쓰고 있는 외래어 발음이 많다. 예를 들어, '가스-까스, 댄스-뎀스, 버스-뵍스, 선글라스-썬글라스, 사인-싸인, 세일-쎄일' 등이 있다. 황재성(2006)에 따르면 된소리를 쓰지 않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현지음에 가깝게 내려는 의도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ㄱ'의 발음을 / ㄱ/으로 한다고 해서 그 발음이 현지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들어와 한국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인 만큼 사람들이 편하게 발음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사람들이 쉽게 쓰고 익숙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래어 표기법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1)</sup>

<표54>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래어 표기법의 예

문제점		현행 외래어 표기법	문제점을 고친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기본 원칙	1항의 문제	가스, 달러	까스, 깨스, 딸러
		2항의 문제	p, t	프, 티, 프 트, 스티, 트
		3항의 문제	북(book), 갭(gap)	북, 갭
		4항의 문제	버스, 사우나	뵍스, 뵍너스
		5항의 문제	드라큐라, 하이라이트	드라쿨라, 하일라이트
	표기 세칙	동양 인명, 지명	야요이 문화 조몬 문화	미생 문화 승문 문화
		산, 강, 바다 표기	카리브 해 발리 섬	카리브해 발리섬

위와 같은 표기법의 문제점이 있을 뿐, 사람들이 외래어를 사용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주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외래어를 사용할 때 자주 범하는 표기의 오류를 살펴볼 것이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습자는 외래어 표기법 및 음운체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베커'를 '백(back)'으로, '상'을 'song(송)'으로 이해하였고 이로 인해 '베커상'의 의미를 '배경음악'이라고

81) 황재성(2006:38)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추측한 학생이 9명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 후설 평순 저모음 'ㅏ'와 후설 원순 중모음 'ㅛ'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커상'의 오답 원인도 마찬가지로 표기법에 대한 인식 부족 외 사회·문화, 학습자의 배경 지식 등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실, 'ㅏ'와 'ㅛ'뿐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모음 '개'와 '내', '너'와 '노'를 구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개'와 '내'는 다 전설모음인데 혀의 위치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발음과 대응하는 중국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 같은 경우 구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 외래어 중에는 나머지 음절 요소가 똑같은데 모음 '개'와 '내'만 다른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펜&팬', '메일&매일'이 있다. 만약에, 학습자는 '개'와 '내'의 발음 특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형태가 비슷한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너'와 '노' 역시 중국인 학습자에게 구별하기 어려운 모음이다. '너'와 '노'는 모두 후설 중모음인데 입술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한 '너', '노'의 발음과 완전하게 대응되는 중국어 발음이 없고 발음상 '너', '노'와 비슷한 중국어 발음으로는 'ao'라는 복운모 한 가지만 있다. 이러한 음운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너'와 '노'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사실, 위에 제시한 오류뿐 아니라 음운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유형이 더 있다. 예를 들어, chocolate를 '초콜릿'으로, juice를 '쥬스'로 파악하는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것은 한국어 'ㅈ'와 'ㅊ'의 다음에는 이중모음 'ㅈㅈ, ㅊㅊ, ㅈㅈ, ㅈㅈ'를 쓰지 못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간판이나 신문에서 accessory라는 단어를 '악세서리'로 표기한 경우가 많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액세서리'가 정확한 표기이나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간판이나 주변 사람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악세서리'로 틀리게 쓸 수도 있다.

모음뿐 아니라 한국어의 자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외래어 표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중국인 학습자든 한국어 모어 화자든 fighting을 '화이팅'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처럼 영어 'f'음을 'ㅎ'로 하는 틀린 외래어 표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rypan'를 '후라이팬'으로,

'fried chicken'를 '후라이드 치킨'으로 틀리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황재성(2006)에서는 학습자의 '외래어 남용', '잘못된 외래어 사용' 등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들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간판·상호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인명·지명 표기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방송 매체, 컴퓨터 메뉴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이다. 이러한 외래어의 오남용을 줄이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규정의 정비일 것이다. 올바르게 확실한 규정이 있을 때 사용자들의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방송과 각종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방송과 신문 등의 각종 매체이다. 이런 것들에서 먼저 한국말 순화작업과 올바른 사용의 예를 보여줄 때 언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외래어를 쓰는 것을 보다 교양 있고 세련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통해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막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82)</sup>

한편 앞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따로 다루지 않았으나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 양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부 학습자가 외래어의 표기법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외래어 교육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수 있는 틀린 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래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학습자가 어휘력을 전면적으로 신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4.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이정희(2002)에서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가 공식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칭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외래어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크게 한국어 교재의 문제, 교수·학습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82) 황재성(2006:4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는 외래어 제시 방식, 뜻풀이 설명, 연습 활동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교수·학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외래어를 공부한 적이 있지만 '교사가 외래어의 기본적인 의미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뿐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외래어의 단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외래어의 확장적 의미가 무엇이고 영어 원어의 의미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외래어를 정서법에 맞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에 대해 교사가 일부러 강조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외래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내비(내비게이션)'처럼 영어 원어 발음과 다른 한국어 외래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교재에서 단어의 구조에 대한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어휘와 마찬가지로 단어 뒤에 중국어 뜻풀이를 제시할 뿐이다. 만약 '내비'와 같이 조어 형태가 복잡한 단어를 가르칠 때 교사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은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구조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외래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모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교재에서의 외래어 제시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능력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교재에서 제공하는 외래어의 뜻풀이 부분이다. 정확한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외래어를 잘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교재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외래어 뜻풀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에서는 뜻풀이 제시의 문제로 인한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문항3 중 '오피스텔'과 '싱크대'의 중국어 의미 번역이다. '오피스텔', '싱크대'는 모두 교재에서 나타난 단어들인데 교재에서 뜻풀이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할 때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면 학생이 잘못된 뜻풀이를 그대로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1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연구자: 為什麼'오피스텔'是辦公室的意思呢? ('오피스텔'의 뜻이 '辦公室'인데, 확실해요?)

참여자1: 課本里這樣寫的。 (네, 교재에서 배웠어요.)

연구자: 你們用的是什麼教材呢?(무슨 교재를 써요?)

참여자1: 我們用的是標準韓國語, 延邊大學出版的那個。我記得教材里是這樣解釋它的意思的。(우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연변대학교 출판사의 <표준한국어>예요. 제 기억에는 교재에서 '辦公室, 辦公樓, 辦公大樓'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II장 교재 분석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래어에 대한 연습문제가 거의 없다. 극소수의 연습 문제마저도 외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뜻풀이를 쓰도록 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즉 접사나 어근을 활용하여 어휘를 생성하도록 하는 연습 활동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한계점으로 인하여 기존 교재의 외래어의 제시 방식 및 외래어 관련 연습문제는 학습자 외래어의 어휘 지식의 크기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어휘 양적, 질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어 교재에서 외래어 제시의 문제점, 연습문제의 한계점, 그리고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통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갖은 오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5. 기타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오류 원인 외 노출빈도, 사용빈도, 학습자 외래어의 지식, 학습자 내적 원인<sup>83)</sup> 등의 원인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항2의 '밀리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와 '사이버 강좌, 사이버 범죄, 사이버 대학' 등 이들은 특정한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써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모를 수도 있다. 문항3의 단어들 중 일상생활 노출빈도가 높은 몇 가지 단어를 제외하고 특정 영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단어의 경우, 학습자는 이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는 주방 용품류 단어, '

83) 이주영(2008:73)에서 모든 오류가 학습 부족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특히 어휘학습의 경우 직접 사전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 오류 원인이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학습에 대한 노력의 부족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보디빌딩', '헬스클럽'은 운동과 관련된 단어, '아파트', '오피스텔', '고속터미널' 등은 공간, 주택류 단어이다. 이처럼 외래어의 의미범주가 아주 넓기 때문에 중급 수준인 학습자들에게 모든 영역의 외래어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없다. 실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만을 잘 이해하면 된다. 외래어를 교육할 때에도 참여자의 오답률과 각 외래어 단어의 노출빈도 및 사용빈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인이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어법과 목표어에 대한 인식 부족', '조어법과 모국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류가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다. '베커상', '멕스타그램', '사이버 강좌'와 같은 단어의 경우, 단순히 한 가지 오류 원인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생성된 오류이다.

## IV.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실제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교재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 절에서 외래어 교육에 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어 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외래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할 외래어 목록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편이지만, 그것을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측면의 대안 마련에는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조어법을 활용하는 외래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둘째, 학습자가 외래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외래어의 어휘 형성 원리를 이해할 때 이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외래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외래어를 직접 교육하고, 그 후의 어휘 확장은 학습자의 재량과 자율 학습에 맡기는 데에 그쳤다. 즉 학습자가 외래어를 학습하고 난 후의 성취도를 검증하여 외래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앞서 II장에서 밝힌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 선정 원리와 III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외래어에 대한 이해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목표를 설정한 후, 중국인 학습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 외래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실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의 목표는 크게 목적과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목적과 목표는 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민현식(200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는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고 규명하였다. 성기철(1998)에 따르면 목적은 목표보다 더 상위 개념이어서,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목적은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목표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직접적인 종착점이다. 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목적은 목

표에 우선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목표는 이 목적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하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목적과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된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의 외래어에 대한 이해와 실험 오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래어의 조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래어의 형태적, 의미적, 더 나아가 화용적 지식의 습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을 질적,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외래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휘 교육의 목표로 어휘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언급한 논의로는 손영애(1992a), 이충우(2001) 등이 있다. 손영애(1992a)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은 '개개의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계되는 지식의 총체'로 정의했고 이충우(2001)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휘 능력을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 정의했다.<sup>85)</sup> 구분관(2014)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어휘 능력, 어휘 사용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이라고 언급하였고 다음과 같이 어휘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였다.

#### [어휘 교육의 목표]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어휘를 사용하는 표현과 이해의 절차와 방법을 익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확충한다.

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외래어는 어휘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범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교

---

84) 장월형(2015:9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85) 구분관 외(2014:35)의 부분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와 III장에서 제시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외래어 교육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목적과 목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5>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학습자의 어휘력(양적, 질적)을 신장시킨다.
목표	1. 외래어 형성원리를 인식할 수 있다. 2. 외래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조어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외래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외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이 목표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래어 교육의 내용은 II장에서의 교육 현황 조사 결과, III장에서의 학습자 이해 양상 조사 결과, 그리고 학습자의 오류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앞장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 중국 대학에서 외래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교재에서 외래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된 외래어의 뜻풀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업에서 교사는 간단히 외래어의 의미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외래어 형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 교육을 위한 내용적 지식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외래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외래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어와 대응하는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긍정적인 전이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이가 될 수도 있다.

셋째, III장 조사 결과에 따라 학습자는 외래어의 조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외래어 어휘에 대한 양적, 질적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넷째,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언어 환경은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에 영향을 미

친다.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는 조사 참여자의 경우 외래어를 많이 접했고 이에 따라 어휘력도 어느 정도 신장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일부 부분 표기법이 틀린 외래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가 외래어를 습득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외래어를 교육할 때 틀리게 쓰기 쉬운 단어들을 일부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II장과 III장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체계화한 외래어 교육 내용을 만들고자 한다.

실제 교수·학습할 때, II장에서 선정된 외래어들을 아무 순서 없이 마음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같은 의미 부류에 속하는 외래어들을 같이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II장 <표35>에 나와 있는 외래어 목록을 의미 부류에 따라 묶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문승실(2004)과 조은호(2006)에서 제시된 외래어 분류를 참고하여 선정된 초중급 수준인 외래어(일반 외래어&신조 외래어)를 생활용품 류, 예체능 류, 일상생활 관련어 류, 교통수단 류, 과학 및 정보통신 류, 단위 류, 공간 및 국가 류, 인물 및 직업 류, 전자기계 류, 음식 류, 의류 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56> 외래어 목록 분류화

분류	외래어 목록
생활용품	가스, 드라이기, 렌즈, 비닐봉지, 컵, 물컵, 종이컵, 가스레인지, 플라스틱, 비닐, 비닐우산, 비닐장갑, 비닐종이, 리본, 샴푸, 메모지, 배터리, 시멘트, 포크, 버튼, 노트, 볼펜, 소파, 카드, 테이블, 프라이팬
예체능	디자인, 쇼, 월드컵, 프로그램, 코미디, 클래식, 오페라, 월드컵, 카드놀이, 컴퓨터 게임, 소개팅, 스케줄, 아이디어, 에너지, 이벤트, 체크무늬, 커튼, 키스, 테스트, 파마, 교통카드, 그래프, 알레르기, 인스턴트, 커트, 리듬, 볼링, 골프, 골프공, 메달, 멜로디, 뮤지컬, 미디어, 시디, 게임, 드라마, 스키, 스포츠, 앨범, 올림픽, 콘서트, 테니스, 피아노, 베키상
일상생활 관련어	카톨릭, 미팅, 사우나, 인터뷰, 신용카드, 현금카드, 패션, 마라톤, 팬, 흡쇼핑, 벤치, 보너스, 스타일, 에너지, 멕스타그램, 쉐스타그램, 웹스타그램, 냅스타그램, 달러, 드라이, 드라이클리닝, 비자, 세일, 뉴스, 다이어트, 데이트, 메모, 서비스, 쇼핑,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파티, 개과, 교카충, 노관심, 비글미, 소셜력, 종과, 허니잼, 베댓, 오티
교통수단	트럭, 공항버스, 셔틀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널, 터미널, 오토바이, 코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콜택시, 렌터

	카, 에스컬레이터, 버스
과학 및 정보통신	온라인, 채널, 파일, 핸드폰, 텔레비전, 다운로드, 네티즌, 디지털, 로그인, 로봇, 벨, 이메일, 테이프, 홈페이지, 공중전화카드, 공테이프, 녹음테이프, 메시지, 인터넷, 프로그램, 휴대폰, 갠톡
단위	그램, 세트,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 킬로그램, 킬로미터, 미니, 시리즈, 사이즈
공간 및 국가	골프장, 스튜디오, 아파트, 베란다, 오피스텔, 캠페인, 컴퓨터실, 헬스클럽, 커피숍, 고속터미널, 세미나, 쇼핑몰, 쇼핑센터, 슈퍼, 슈퍼마켓, 아프리카, 원룸, 유럽, 댐, 콘도, 비닐하우스, 러시아, 레스토랑, 마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빌딩, 센터, 스키장, 인도네시아, 카페, 캐나다, 테니스장, 프랑스, 호텔
인물 및 직업	디자이너, 아나운서, 텔런트, 챔피언, 파트너, 스타, 메뉴판남, 껌딱지녀, 뇌섹남, 셀기꾼
전자 기계	모니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프린터, 마이크, 엘리베이터, 노트북, 마우스, 리무컨, 커피포트, 라디오, 비디오, 에어컨, 엘리베이터, 카메라, 텔레비전
음식	버터, 비타민, 소스, 와인, 카레, 레몬, 메뉴판, 비타민, 소시지, 요구르트, 잼, 치즈, 크림, 패스트푸드, 냉커피, 모닝커피, 아이스크림, 원두커피, 껌, 메뉴, 바나나, 사이다, 샌드위치,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오렌지, 주스, 초콜릿, 치킨, 커피, 케이크, 콜라, 토마토, 피자, 햄버거, 뷔페
의류	부츠, 블라우스, 스웨터, 스카프, 액세서리, 재킷, 코트, 원피스, 점퍼, 팬티, 드레스, 벨트, 선글라스, 셔츠, 스커트, 슬리퍼, 핸드백, 바바리코트, 반코트, 트렌치코트, 넥타이, 스웨터, 스카프, 와이셔츠, 티셔츠

선정된 교육용 외래어를 수업 시간에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약어형, 파생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법 및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교육용 외래어를 선정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설문 조사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 파생형의 외래어 중의 '오피스텔', 합성형 외래어 중의 'XX버스'류, 그리고 약어형 외래어 중 '-스타그램'류 약어 외래어를 선택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외래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형의 외래어 중의 '오피스텔'과 합성형 외래어 중의 'XX버스'의 오답

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자의 이해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본다.

둘째, 'X-텔'류 파생 외래어는 장소, 주택과 관련된 표현인데 '의식주행' 중 '주(거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국에 와서 방을 찾으려는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 일반어보다 전문적인 성격의 외래어를 익힐 때 더 어렵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 외래어 어휘 학습을 피해갈 수는 없다. 생활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주택, 집 등과 관련된 외래어 어휘는 전문적인 성격의 어휘로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어휘이다.

셋째, 'X-버스'류 합성어도 마찬가지로 '의식주행' 중 '행(행동)',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로서 잘 이해해야 한다.

넷째, '-스타그램'류 약어 외래어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어 젊은이들이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므로 잘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외래어를 중심으로 각각 어휘 의미망을 구성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선정된 세 가지 외래어 유형과 의미 부류 및 각각의 어휘 의미망을 구성하는 외래어 어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7> 교육 유형별 내용 및 어휘

의미 부류	교육 유형별 내용	의미망 구성 어휘
일상생활 관련어	'X+-스타그램'형	먹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웹스타그램, 여행스타그램...
공간 주택	'X+-텔'형	오피스텔, 이노스텔, 노래텔, 고시텔, 리빙텔, 아파스텔, 아파텔, 벤처텔, 콘도텔, 민텔, 미니텔, 원룸텔...
교통수단	'X+-버스'형	공항버스, 셔틀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민현식(2004)에 따르면 생활(일반)외래어는 '넥타이, 블라우스, 스커트, 점퍼(점바)...; 우동, 콜라, 치킨...; 아파트, 베란다, 커튼...' 따위처럼 외래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의식주와 관련된 외래어를 말한다. 반면에 전문(특수)외래어는

자연과학 전문어, 사회과학 전문어, 그 밖에 인문과학, 예술, 스포츠(체육) 전문어처럼 각 학문 영역에서 쓰이는 전문어로 이는 외래어 차용의 주종을 이룬다. 이런 의미 부류 기준을 참고하여 'X+-스타그램'형, 'X+-텔'형, 'X+-버스'형 단어는 모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일반)외래어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래어들을 그것이 사용되는 경우 및 장소에 따라 각각 '일상생활 관련어', '공간 관련어', '교통수단 관련어' 세 가지 의미 부류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II장과 III장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58〉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

1. 조어법(어근, 접사 등 단위) 및 외래어 조어 유형에 대한 이해
2. 조어법 지식을 활용하여 외래어의 형태 특징 분석
3. 외래어 표기법을 고려한 일부 외래어의 표기에 대한 강조
4. 외래어의 의미와 영어 원어 및 중국어 외래어의 의미 비교 설명
5. 의미망 구축 및 어근이나 접사 활용을 통한 새로운 단어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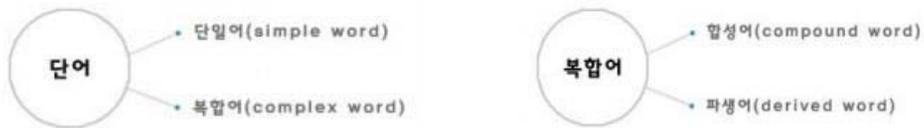
### 2.1. 조어법 및 외래어 조어 유형에 대한 이해

II장과 III장에서 언급한 듯이 조어법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이해에 큰 역할을 한다. 왕정·박덕유(2012)에 의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휘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조어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유사한 점도 적지 않다. 단어의 결합법을 이루는 규칙을 인지하면 이질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학습의 흥미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어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어법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 외래어 교육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교육 항목이다.

앞서 설문 조사 및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외래어 조어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특히 파생 외래어와 합성 외래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파생 접사와 어근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외래어 교육의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접사나 어근과 같은 단어보다 작은 단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할 교

육이 필요하다. 즉, 앞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반영된 학습자의 어휘 양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어법에 대한 교육 내용 부분을 설계하고자 한다. 짜오원쥘(2012)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의 단어는 무수히 많으며, 그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단어 구성의 조어법을 이해하면, 한국어 어휘들의 의미 파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한국어 조어법 및 외래어의 조어 유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한국어 외래어의 조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5> 한국어 단어의 조어법



<표59> 한국어 외래어의 조어 유형

가. 원어 형태의 외래어: 버스(bus), 가스(gas)...
나. 약어 형태의 외래어: 에어컨(aircondition), 아파트(apartment)...
다. 파생 형태의 외래어: 오피스텔(office+-tel), 샤워하다(샤워+-하다)...
라. 합성 형태의 외래어: 비닐봉지(vinyl+봉지), 셔틀버스(셔틀+버스)...

학습자는 단어의 짜임새와 조어법을 먼저 알아야만 외래어의 조어 유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어의 조어법에 대한 학습은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기초가 된다.

## 2.2. 조어법 지식을 활용한 외래어의 형태적 특징 분석

본 연구에서 정리한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60> 조어법에 의한 외래어 형태 특징 분석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원어형 (예).	버스(bus), 가스(gas), 코드(code), 팩스(fax), 팬(fan)...

약어형 외래어	절단형 외래어 (A형/B형/Z형)	전부 절단형 외래어 (B형: B←AZB) 예) 힐 ← 하이힐(highheel), 폰 ← 핸드폰(handphone)
		후부 절단형 외래어 (A형: A←AZB) 예) 에어컨←(aircondition), 아파트←(apartment),
		중간 절단형 외래어 (AB형: AB←AZB) 예) 볼펜(ball-pen) ← ball-point pen
	두음절어형(AC←AZB CZD )    예) 셀카←self camera	
	축합어형 외래어	AD형 외래어 (AD ← AZB CZD) 예) 홈퍼니: hompany←home company
'A+X'형 외래어 (A+X ← AZB X) 예) 개파 ← 개강 party		
'X+D'형 외래어 (X+D ← X CZD) 예) 먹스타그램← 먹+tagram		
불규칙 축합		
파생형 외래어	접두 파생어형 외래어 예) 슈퍼(super)-: 슈퍼바이러스, 슈퍼맘	
	접미 파생어형 외래어 예) 노크하다← 노크(knock)+하다, 배달맨 ← 배달 + -맨(-man),    오피스텔 ← office +hotel	
합성형 외래어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예) 셔틀버스 ← 셔틀(shuttle) + 버스(bus)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예) 비닐봉지←비닐(vinyl) + 봉지(封紙)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예) 물컵 ←물+컵(cup)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예) 껌딱지녀 ← gum +딱지 +녀(女)	

이상 한국어 외래어 조어 유형의 분류 및 예시를 통하여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어법을 인식하고 외래어의 형태 측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조어 유형별에 따라 외래어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2.3. 일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강조

Ⅲ장 오류 원인 분석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인식이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실제 외래어 교육할 때 표기가 어렵거나 쉽게 틀릴 수 있는 외래어에 대해 일부러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른 영어 표기 세칙은 다음과 같다.

<표61> 국립국어원 영어 표기 세칙<sup>86)</sup>

<p><b>제1항</b> 무성 파열음([p], [t], [k])</p> <p>1.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book [buk] 북)</p> <p>2.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l],[r],[m],[n])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apt[æpt] 앵트)</p> <p>3.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예: stamp[stæmp] 스탬프)</p>
<p><b>제2항</b> 유성 파열음 ([b], [d], [g])</p> <p>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예: signal[signəl] 시그널)</p>
<p><b>제3항</b> 마찰음 ([s], [z], [f], [v], [θ], [ð], [ʃ], [ʒ])</p> <p>1.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예: mask[ma:sk] 마스크)</p> <p>2.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예: flash[flæʃ] 플래시)</p> <p>3.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자'으로 적는다. (예: mirage[mira:ʒ] 미라지)</p>
<p><b>제4항</b> 파찰음([ts], [dz], [tʃ], [dʒ])</p> <p>1.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예: Keats[ki:ts] 키츠)</p> <p>2.모음 앞의 [tʃ], [dʒ]는 '츠', '즈'로 적는다. (예: chart[tʃɑ:t] 차트)</p>
<p><b>제5항</b> 비음([m], [n], [ŋ])</p> <p>1.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예: steam[sti:m] 스팀)</p> <p>2.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로 적는다. (예: hanging[hæŋŋɪŋ] 행잉)</p>
<p><b>제6항</b> 유음([l])</p> <p>1.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hotel[houtel] 호텔)</p> <p>2.어종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앞에 올 때에는 '르'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르'로 적는다. (예:</p>

slide [slaid] 슬라이드)
<b>제7항</b>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team [ti:m] 팀)
<b>제8항</b> 중모음 ([ai], [au], [ei], [o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예: time [taim] 타임)
<b>제9항</b> 반모음 ([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위', [wɑ]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예: woe [wou] 위)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예: swing [swiŋ] 스윙)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예: yard [ja:d] 야드 yank [jæŋk] 앵크)
<b>제10항</b> 복합어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예: cuplike [kʌplaik] 컵라이크)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예: Los Alamos [lɒs æləməʊ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표에서 제시하였듯이 세칙 항목이 너무 많아서 10개 세칙 항목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 뿐 학습 효율도 떨어질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량이 많아짐에 따라 영어 원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한 지식이 고정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단순히 제시하여 설명하기보다는 특정 표기 세칙 항목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나올 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한 표기법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어 형태의 외래어 '모텔&모텔', 원어 형태의 외래어 '메일'과 고유어 '매일'이 형태가 아주 비슷해서 학습자가 이를 혼동할 수 있다. 또한 '썬글라스', '악세사리', '화이팅', '초콜릿' 등과 같이 한국인 모어화자도 쉽

86)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참조해서 제시하였다.

(출처: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4&mn\\_id=97](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4&mn_id=97))

게 오류를 범하는 외래어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음 'ㅏ'와 'ㅑ', 'ㅓ'와 'ㅕ', 자음 중의 경음과 평음 등이 들어가는 외래어인 경우, 해당 외래어의 발음을 강조해야 한다.

## 2.4. 외래어 의미에 대해 설명

외래어를 교육할 때 조어법을 활용하여 외래어를 분석하면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외래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합성 형태의 외래어를 예로 들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단어인 경우, 합성 외래어의 의미는 두 개의 어근이 가진 의미가 단순히 결합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II장의 합성 외래어 부분에서 분석하였듯이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합성어의 의미가 확장 또는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명숙(1997:20-27)에서는 의미 충돌은 외래어가 들어와 같은 뜻의 고유어와 공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같은 뜻을 가진 외래어와 고유어는 어느 기간 공존하다가 어느 한쪽이 사회의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우세해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외래어가 수용된 후에 이것이 기존 어휘 체계 속에 들어가면서 기존 언어와 동의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동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과 의미 충돌을 일으켜 의미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현식(2001:374-380)에서는 외래어가 차용되면서 일어나는 변용을 형태변용과 의미변용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의미 변용 부분에서는 의미대치, 의미확대, 의미축소, 의미향상(상승), 의미타락 5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미 변용:

(1) 의미대치: 의미가 다른 뜻으로 전이된 경우

예) lesson 레슨: 학과 → 개인지도, overeat 오바이트: 과식하다 → 토하다

(2) 의미확대: 의미 영역의 확대되는 경우

예) apartment 아파트: (미국)월세 아파트 → 모든 아파트

(3) 의미축소: 의미 영역의 축소되는 경우

예) cake 케이크: 서양식 빵, 과자 → (주로) 원형식 케이크

(4) 의미향상(상승): 의미 가치가 향상하는 경우

예) fashion 패션: 유행 → 고급 유행복

(5) 의미타락(하락): 의미 가치가 타락하는 경우

예) madam 마담: 귀부인 → 유흥업 여주인

심혜(2012)에서는 최명숙(1997)<sup>87)</sup>의 심리적 요인, 언어의 요인, 사회적 요인에 근거하여 외래어 수용 과정에서 의미가 분화되거나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미의 분화와 통합을 통한 외래어의 의미변화는 의미의 '축약', '확대'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의미변화는 의미 영역의 변화 이외에도 의미 감각의 변화로도 이루어진다. 의미 감각의 변화는 의미의 '향상(向上)'과 의미의 '비하(卑下)'로 분류할 수 있다. 심혜(2012)에서 제시했던 외래어 의미변화의 유형 및 예시를 참고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 (1)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대는 의미 축약의 경우와 대조되는 현상으로 외래어가 갖고 있던 의미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외래어가 유래될 때 원어가 지니고 있지 않은 의미까지 부여되어 수용되는 경우에 의미의 확대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외래어 중 대표적인 의미 확대의 예시는 'word-워드'이다. 'Word'는 영어에서의 뜻이 주로 '말, 낱말, 이야기'로 쓰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Microsoft Office Word'의 준말로써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87) 최명숙(1997:23-2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심리적 요인	①구체적인 한 사물을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다른 사물에 적용시키면서 의미변화를 하는 경우.
	②구체적인 한 사실이나 사물을 유사한 개념에 적용시켜 의미 변화를 하는 경우.
언어의 요인	③음운의 생략이나 음운 변화를 통한 의미 변화.
	④수용 경로의 차이로 인한 의미의 차이.
	⑤환유에 의한 의미 변화.
	⑥의미의 불확실성이나 잘못 분석함으로서 오게 되는 의미 변화.
	⑦유연성의 상실로 인한 의미 변화.
사회적 요인	⑧사회 계층에 의한 의미 변화.
	⑨사회 변천에 의한 의미 변화.

쓰인다. 특히, 한국어에서 '워드'는 문서를 작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원어의 의미 영역보다 그 범위가 넓어진 의미 확대가 일어난 외래어이다. 그리고 'leisure-여가'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leisure'는 명사로서 '여가'라는 뜻이 하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어 '레저'에는 '일이나 공부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뜻 외에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일'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시간'과 '활동'의 뜻을 모두 포함한 한국어 '레저'는 '시간'의 뜻만을 포함한 영어 원어 'leisure'보다 그 의미 범위가 확대되었다.

### (2) 의미의 축소

의미 축소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한국어 외래어는 '노트북'이다. 'notebook'은 영어에 '공책'과 '노트북 컴퓨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筆記本'은 영어 원어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한국어의 '노트북'은 '노트북 컴퓨터'의 의미만 차용되었고 '공책'의 뜻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의미의 축소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중국어에서는 의미가 축소되고 한국어에서는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 'shock'는 주로 의학 전문용어인 '쇼크'의 뜻과 '충격'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 한국어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 '休克'는 의학용어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의미 범위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중 외래어의 의미 범위가 차이가 나타나면 교수·학습할 때 교사가 일부러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 의미의 향상

의미의 향상은 외래어가 사회적으로 동화되어 쓰일 때 그 의미의 가치가 높아져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경희(2006:43-44)에서는 의미 향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처음 차용 당시의 사회문화가 사회 변천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상승됨으로써 사회적인 통념이 변화되어 본래의 의미에서 상승되어 나타난다.

둘째, 외래어에 사용되는 대상 자체가 고급화됨으로써 그 의미가 상승한다.

셋째, 단어를 좋은 일에 계속 적용시킴으로써 상승한다.

넷째, 완곡법을 사용하여 고유어로 표시하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외

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래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고유어보다 상승된다.

'drive'는 동사로서 '물다, 운전하다; 태워다 주다; 만들다; 추진시키다' 등 뜻이 있는데, 한국어에서 '드라이브'는 '기분 전환을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일'로 그 의미가 향상되었다. 'mini'의 뜻은 '미니의, 아주 작은, 소형의'인데, 중국어에서는 작고 귀엽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위의 제시한 예시처럼 외래어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 의미 가치가 상승되어 의미의 감정색채가 포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때 의미 향상이라고 간주한다.

#### (4) 의미의 비하

의미의 향상과 반대인 비하 향상이 외래어에서도 많이 존재한다. 'shopping'은 영어와 한국어에 다 물건 사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 '血拼'은 장보기의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미친 듯이 물건을 사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 무작정 쇼핑하기, 충동구매' 등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즘 '血拼族(쇼핑족)', '血拼狂人(쇼핑광인)' 등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표현도 나타나게 되었다.

위의 제시한 예시처럼 영어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후 자기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감정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원어 의미의 감정색채가 달라진다.

앞에서 제시한 의미 대조 부분을 통하여 의미 범위가든지 의미 감정 색채이든지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의 의미가 같은 방향으로 모두 변한 어휘도 있고 한 가지 어종의 외래어 의미만 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 변화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의미 변화는 각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한테는 낯선 한국 외래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외래어를 가르칠 때 교사는 의미 측면에서 학생이 해당 외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 2.5. 새로운 단어의 생성

본 연구에서 외래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력을 신장시키

는 데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근이나 접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외래어를 생성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외래어를 만났을 때 조어법 분석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을 수업 시간에 훈련시키고자 한다.

앞에서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텔'형 외래어는 외국어 단어의 일부를 절단해서 남는 부분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텔'이라는 접미사는 강한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와 결합하여 혼성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어 생성에도 강한 조어력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xx-텔'형과 같은 파생 외래어를 교육할 때, 이러한 외래어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각 형태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면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이다.

'-버스'형 외래어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접미사로 기능하여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생성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합성명사를 제시하고 '단어+단어'의 형태로 쪼개보라고 할 수 있다.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합성명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항버스'는 '공항+버스'로, '셔틀버스'는 '셔틀+버스'로 분리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리된 명사가 각각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 자체가 자립적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단어의 본래 의미와 결합한 후의 의미를 함께 이해시킨다.

그리고 접사와 어근을 활용하여 많은 단어를 생성시키는 연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단어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멕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웹스타그램' 등의 외래어처럼 '인스타그램'의 앞부분을 먼저 절단하여 나머지 '-스타그램'을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만든 '-스타그램'류 신어 외래어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스타그램'류 외래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므로 조어법을 활용하여 '-스타그램'류 외래어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다.

### 3. 한국어 외래어 교육 · 학습의 방법

#### 3.1. 인식과 탐구를 통한 교육 방법

롱(Long, 1991)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접근 방법을 형태 중심 접근법(Focus

on forms), 의미 중심 접근법(Focus on meaning),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황선유(2005)에서는 언어 교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2> 언어 교수법의 분류

분류	소분류	주요 초점	주의집중 변화
의미중심 접근법 (Meaning-based approach)	의미중심 교수법 (Focus on meaning)	의미	없음 (의미에만 주의집중)
	의미중심 형태교수법 (Focus on form)	의미	있음 (때때로 형태에 주의집중)
구조중심 접근법 (Structure-based approach)	형태중심 교수법 (Focus on form)	형태	없음 (형태에만 주의)

본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언어 교수법 중 의미중심 형태교수법을 바탕으로 조어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언어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돈몰(Donmall, 1987)의 '언어 인식<sup>88)</sup>'과 러더포드(Rutherford, 1987)의 '언어 의식 고양<sup>89)</sup>'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외래어의 언어적 특질을 느끼고, 그것에 주목하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을 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 삼고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언어 의식'이라는 표현을 선택한다. 언어 의식 고양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교수·학습 전략은 '주목하기'와 '탐구하기'이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중시하는 루이스(Lewis, 1993)의 'OHE(관찰(observation)-가설(hypothesis)-실험(experiment))'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OHE'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8) 돈몰(1987)에서는 언어 인식을 '언어 사용자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적인 인식(sensitivity to and conscious awareness of language)'이라고 개념화하였다.

89) 루더토드(1987)는 언어 의식을 '학습자의 목표어 특질에 대한 주목(the learner's attention to features of the target language)'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관찰 (Observation)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그림, 미디어, 장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실 제 자료를 사용한다.
---------------------	-----------------	--



가설 (Hypothesis)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교사는 학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적 질문에 답 변이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 휘항목에 대한 연습도 과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	-----------------	---



실험 (Experiment)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학습자들은 어휘항목을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탐구·시도' 단계를 통해 어휘항 목을 사용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늘릴 수 있다.
--------------------	-----------------	--

본 장에서는 슈미트(Schmitt, 2000), 베츠톤(Batstone, 1996), 톰린슨(Tomlinson, 2003), 손버리(Thornbury, 1997)에서 논의되는 '발견과 인식(Noticing, Language Awareness)'<sup>90)</sup>을 참가하여 'OHE' 방법론을 바탕으로 '도입-관찰-발견-실험-연습 및 활동-정리'의 수업 절차를 설정하고자 한다.

### 3.2. 외래어 어휘지도 수업 모형 제시

한국어 외래어를 교육할 때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90) 톰린슨(Tomlinson, 2003)에서 제시하는 '인지와 인식'의 개념은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발견 및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경민(2013:109)의 내용을 가져왔다)

- ㄱ.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의 자질들에 대해 의도적인 집중을 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들의 목표언어 수행과 모국어 화자나 그에 가까운 유창성을 지닌 화자들의 언어 수행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 ㄴ. 발견·인식은 언어 자질을 두드러지게 한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언어 입력을 받을 때에도 점점 더 쉽게 발견·인식하게 되어 결국 학습자들이 그 언어자질(language-feature)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 ㄷ. 교사와 학습 자료의 주요 임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는가를 발견·인식하는 것을 돕는 데에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이 교사나 학습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언어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ㄹ. 학습 항목을 교사가 바로 설명하거나 분석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이 관찰하고 인지·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ㅁ.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학습과정을 통해(구어/문어) 텍스트 안에서 특정 언어 자질들을 발견한 후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 내재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언어를 학습/습득에 나간다.

첫째, 교육 순서를 고려하여 단어 구조가 쉬운 외래어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앞에서 정리해 온 '약어형, 파생형, 합성형' 세 가지 외래어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각 유형에 속하는 외래어의 음절수를 고려하여 음절수가 적고 단어 구조가 쉬운 외래어를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외래어 각각의 조어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면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중점을 두어 하나의 외래어를 가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단어 구조 분석을 통해 그 단어(외래어)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한다. 혹은, 외래어 하나를 제시하고 그 외래어에 사용된 조어법을 활용하여 여러 합성 외래어나 파생 외래어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외래어의 특징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재미있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외래어를 개별 어휘로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어휘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외래어의 구조적 특징인 조어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외래어 어휘 지도 방안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연구하여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지도안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 학습 지도안을 구상하였다. 본 지도안은 약 50분간의 수업을 위한 것으로 조어법을 활용하여 '-스타그램'류, '-텔'류, '-버스'류 외래어를 교육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이때 '도입-관찰-발견-실험-연습 및 활동-정리'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수업 구성

학습 주제	'X+-텔'류 파생 외래어 'X-버스'류 합성 외래어 'X-스타그램'류 약어 외래어
학습 대상	중국인 중급 학습자
학습 목표	1. 외래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조어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외래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3. 외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새로운 외래어인 경우, 단어의 형태분석을 통해 뜻을 추측할 수 있다.
학습 시간	50분

● 수업 절차

(1) 도입 단계(2분)

단계	시간(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도입	2	PPT 자료	1. 수업 목표 명료화 2.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도입 단계**는 수업 목표를 명료화하는 단계로서 교사는 간단한 질문으로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 새로운 외래어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 선행지식을 확인한다. 그러나 질문이 너무 어렵거나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될수록 간단히 새로운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2) 관찰 단계(8분)

단계	시간(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관찰	8	PPT 자료	1. PPT에서 나온 단어들의 형태를 관찰해 보며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단어를 골라보도록 한다. 2. 골라 나온 단어들의 형태의 비슷한 점을 말해본다. 3. 골라 나온 단어들이 표현하는 의미 부류를 추측해 본다.

**관찰 단계**는 교사가 PPT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제시한 단어를 관찰하도록 한다. 이때 단어들의 형태적인 공통점을 찾아내고 의미를 유추하기 위

해 인지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PT 자료에서 제시된 단어들의 형태에 대해 관찰하게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정의적 전략으로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 (3) 발견 단계(10분)

단계	시간 (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발견	10	PPT 자료	1. '-텔'류, '-버스'류, '-스타그램'류 외래어의 의미망을 제시한다. 2. 각 조어 유형별에 속하는 외래어들의 형성 원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d>오피스</td> <td rowspan="4">+ -텔</td> </tr> <tr> <td>고시</td> </tr> <tr> <td>민</td> </tr> <tr> <td>리빙</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d>공항</td> <td rowspan="3">+ 버스</td> </tr> <tr> <td>마을</td> </tr> <tr> <td>셔틀</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d>멕</td> <td rowspan="3">+ -스타그램</td> </tr> <tr> <td>웹</td> </tr> <tr> <td>셀</td> </tr> </table>	오피스	+ -텔	고시	민	리빙	공항	+ 버스	마을	셔틀	멕	+ -스타그램	웹	셀
오피스	+ -텔															
고시																
민																
리빙																
공항	+ 버스															
마을																
셔틀																
멕	+ -스타그램															
웹																
셀																

**발견 단계**에서 교사는 '-텔'류, '-버스'류, '-스타그램'류 외래어의 의미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조어 유형별에 속하는 외래어들을 한꺼번에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같은 조어 유형에 속하는 외래어들의 단어 형성 원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별 토론의 시간을 준다.

### (4) 실험 단계(15분)

단계	시간 (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실험	15	교재	1. 대화를 읽고 내용을 설명한다.

		<p>장면1: (공항에서)</p> <p>-경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p> <p>-승진: 아니에요. 만나서 반가워요.</p> <p>-승진: 어디서 살아요?</p> <p>-경아: 저는 아직 방이 없는데 일단 방을 구하려고요. 혹시 학교 근처에 괜찮은 방이 있어요?</p> <p>-승진: 네, 우리 학교에 멀지 않은 대학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u>고시텔</u>, <u>리빙텔</u> 같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 번 물어볼까요?</p> <p>-경아: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요?</p> <p>-승진: 우리는 여기서 6007 <u>공항버스를</u> 타고 서울대정문에서 내려요. 그 다음에 대학동으로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멀지 않아요. 걸어가기 싫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6013번 공항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학교 후문에서 내려서 <u>셔틀버스</u>로 환승한 후 대학동에서 내리면 돼요. 경아씨, 어떤 걸 더 좋아해요?</p> <p>-경아: 그럼 우리 6013번을 탑시다.</p> <p>장면2: (학교에서)</p> <p>-경아: 여보세요? 응, 승미야, 왔어?</p> <p>-승미: 아직...난 지금 낙성대역 도착했어!</p> <p>-경아: 그래. 낙성대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쪽 가면 왼쪽에 초록색 <u>마을버스를</u> 볼 수 있거든. 그걸 타고 대학원 기숙사에서 내려. 나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릴게.</p> <p>-승미: 응응, 알겠어. 이따봐.</p> <p>(학교에서 만난 후)</p> <p>-승미: 경아야, 오래만이야! 잘 지냈어?</p> <p>-경아: 진짜 오래만이다. 자, 우리 학교 어때?</p> <p>-승미: 야! 너 학교 진짜 좋은데. 역시 서울대구나! 멋지다!</p> <p>-경아: 당연하지! 가자. 우리 학교 한 바퀴 돌면서, 구경도 좀 하고...</p>
--	--	---

		<p>-승미: 그래. 아, 잠깐만. 우리 셀카를 찍자. 오랜만에 우리 경아, 오랜만에 우리 <u>셀스타그램</u>.</p> <p>장면3: (카페에서)</p> <p>-경아: 승미야, 너 전주 여행 어땠어? 재미있었어?</p> <p>-승미: 응응, 아주 재미있었어.</p> <p>-경아: 어디서 잤어? 한옥마을 숙박에서?</p> <p>-승미: 아니, 원래 거기서 한 번 체험해보려고 했는데 성수기여서 빈 방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u>민텔</u>에서 잤어.</p> <p>-경아: 헐...아쉽네. 미리 인터넷에서 예약했으면 좋았겠다.</p> <p>-승미: 그치. 근데 전주 진짜 한 번 가볼 만한 곳이야. 강추! 우리 한복도 빌려 입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어.</p> <p>-경아: 와! 부럽다.</p> <p>-승미: 그리고 전주 콩나물국밥, 한정식 너무 맛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내 <u>먹스타그램</u>이랑 <u>여행스타그램</u>을 보여줄게. 봐봐~</p> <p>2.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에 대답하기.</p> <p>-경아는 어떤 방을 구하려고 해요?</p> <p>-승미는 지하철을 내린 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에 갔어요?</p> <p>-승미는 전주에서 어디서 잤어요?</p> <p>-승미는 경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어요?</p>
--	--	--

실험 단계에서는 각 모둠이 돌아가면서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후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한다. 새로 제시된 외래어 형태의 특성에 비추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단계화된 안내나 힌트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학습 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화를 제시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학습자로 하여금 대화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교사는 구체적인 대화 자료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던 조어법에 관련된 지식과 새로운 외래어 학습을 연결시킨다. 목표 외래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형태뿐만 아니라 음운적, 의미적, 화용적 정보를 대조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목표 외래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5)연습 및 활동 단계(13분)

단계	시간 (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연습 및 활동	13	연습 지, PPT 등	1. 어휘와 뜻 연결하기 2. 외래어 어휘 만들기 3. 조어법을 통해 새로운 외래어 어휘를 찾아보기. 4.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외래어 어휘장 만들기 5. 어종별 어휘장 빈칸 채우기 6. 오늘은 배운 외래어로 대화를 만들기(팀 활동)

**연습 및 활동 단계**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외래어를 활용하여 대화 만들기, 토론, 질의응답, 의미 번역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목표 지식을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목표 외래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연습 문제도 있고 어근, 접사를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성시키는 활동도 있으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고 의미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있다. 즉,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조어법적 지식을 최대한 끌어내어 연습문제를 완성하게 한다. 그리고 어종별 외래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습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고 오류들을 분석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교사와 학습자들이 어우러져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 지식이 비 자동화에서 자동화 단계에 이르도록 할 수가 있다.<sup>91)</sup>

연습 및 활동 단계의 구체적인 연습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외래어와 뜻 연결하기

[활동 예시1]

어휘와 뜻 연결하기	
가) 공간과 관련된 의미망	
민텔•	•원래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 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나, 수험

91) 김의숙(2015) 교수학습 모형의 연습 단계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하였다.

	생 이외의 사람들도 비용이 다른 주거 시설보다 싼 까닭에 많이 찾고 있다.
고시텔•	•호텔 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호텔같은 집을 말한다.
리빙텔•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춘 민박.
나) 교통수단과 관련된 의미망	
공항버스•	•공항을 기점으로 하여 해당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
셔틀버스•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다니는 버스
마을버스•	•고지대·아파트와 지하철역 사이 등에 연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미니버스
시내버스•	•일정 속도 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일반 버스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설계 제작된, 고속 운송수단의 하나인 여객 고속 수송용 대형 버스의 총칭
고속버스•	•대도시와 주요도시의 지역끼리 서로 연결해서 운행하는 버스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미망	
먹스타그램•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 또는 음식 사진을 주로 올리는 SNS
여행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
셀스타그램•	•여행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
웹스타그램•	•개인 컴퓨터용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누리 소통망 서비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공간', '교통수단', '일상생활' 관련 외래어에 해당하는 어휘를 범주화해서 나누었고 해당 어휘에 맞는 뜻을 고르도록 하였다. 이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외래어 학습을 구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해당 외래어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각 외래어마다 세부적인 뜻을 파악하여 연결함으로써 그 뜻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 외래어 어휘 만들기

[활동 예시2]

외래어 어휘 만들기  
<보기>



<보기>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결합하여 새 어휘 만들어 봅시다.

가)  
나)  
다)

이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결합하여 새 어휘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앞에서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학습자의 어휘 양적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조어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외래어 어휘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습자의 어휘 양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습 및 활동 단계에 이 문제를 배치하였다. 외래어 어휘 만들기 활동은 조어론적인 관점에서 '합성'과 '파생' 이 두 가지 단어 구조 유형을 활용하여 공통어를 활용한 맵을 만드는 것이다. 조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텔', '버스', '-스타그램'류 외래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어휘 학습을 한다면 학습자들은 어휘의 단어 형성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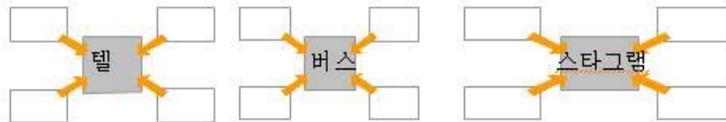
위의 <보기>에서 제시하였듯이 '-텔'이 초급 수준인 '오피스'와 결합하여 '오피스텔'이 되고, '버스'와 초급 수준 단어 '카드'와 결합하여 합성 외래어 '버스카드'가 된다. 이는 '-텔'과 '버스'의 조어력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와 결합시키면 새로운 외래어 어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연습 활동은 중급 외래어를 배우는 단계이지만 초급에서 배웠던 어휘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활용하여 새 어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외래어 어휘 학습

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 \* 조어법을 통해 외래어 어휘 찾기

[활동 예시3]

조어법을 통해 새로운 외래어 어휘를 찾아보기.  
(공통 접사 '-텔'로 생성되는 어휘 확장하기)  
(공통 어근 '버스'로 생성되는 어휘 확장하기)  
(공통 부분 '-스타그램'으로 생성되는 어휘 확장하기)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맵을 완성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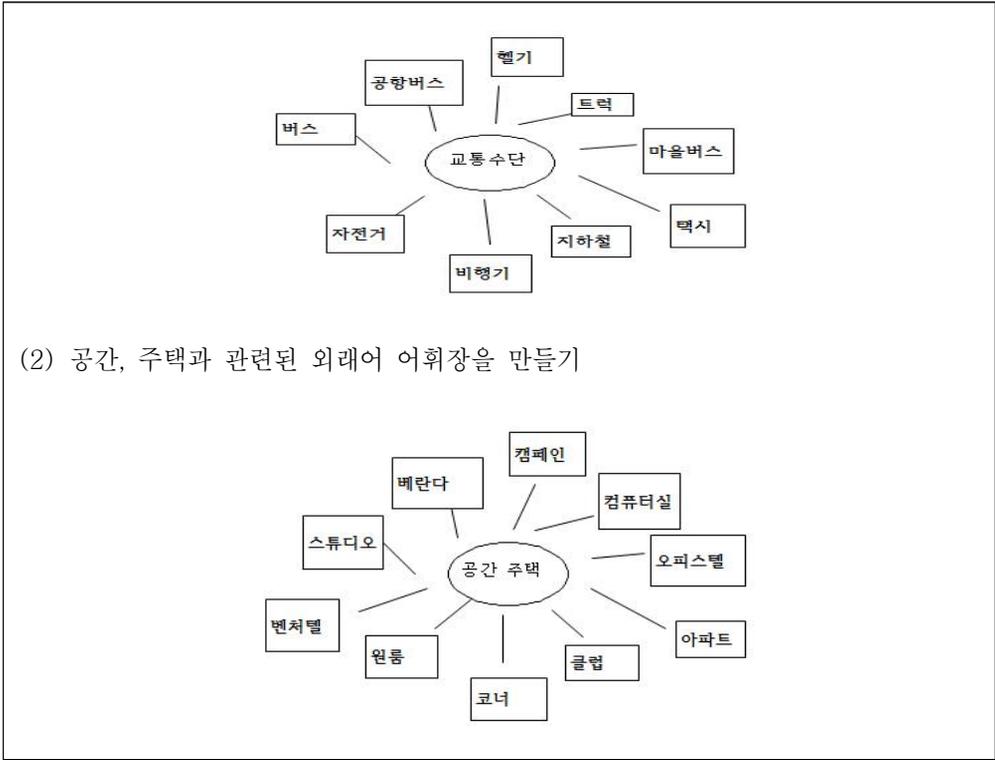
수업 시간에 배웠던 '-텔'류 외래어, '-버스'류 외래어, '-스타그램'류 외래어 외에 이런 합성 관계나 파생 관계에 있는 외래어들을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어휘의 확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휘를 찾아서 맵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외래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조어론적인 관점에서 외래어를 더욱 깊이 있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외래어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신조 외래어를 발견할 수도 있다.<sup>92)</sup> 이것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하여 구안된 연습 활동이다.

### \*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외래어 어휘장 만들기

[활동 예시4]

(1) 교통수단과 관련된 외래어 어휘장을 만들기

92) 김의숙(2015:47) '조어법을 통해 어휘 찾기 활동'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였다.



김의숙(2015)은 어휘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어휘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어휘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도(Lado, 1964)에서는 어휘교육의 9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새 어휘는 동일한 종류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에 관한 어휘, 동물에 관한 어휘, 의복에 관한 어휘, 기후에 관한 어휘 등과 같이 동일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을 함께 묶어 예로 들어주면 내용의 연결과 어휘 수 확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석용준(2000)에서는 어휘장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는데 첫 번째는 학습자가 견고한 어휘 능력을 습득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나 흥미 유발에 유용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학습한 어휘 항목의 장·단기 기억에 유리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와 약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이미 배웠던 어휘나 알고 있는 어휘를 이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어휘 기억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문

금현(2011)에서는 같은 어휘장에 함께 묶인 단어들은 서로 연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장을 활용한 연습 활동 내용을 구안한 이유는 관련 어휘를 연결 지어서 어휘량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sup>93)</sup>

**\* 어종별 어휘장 빈칸 채우기**

[활동 예시5]

어종별 어휘장 빈칸 채우기

<한자어+외래어>

가) \_\_\_\_\_ + 텔: 民泊 (민박) + 텔(-tel)

나) \_\_\_\_\_ + 버스: 空港 + 버스(bus)

다) \_\_\_\_\_ + 버스: 市内 + 버스(bus)

라) \_\_\_\_\_ + 텔: 考試 + 텔(-tel)

마) \_\_\_\_\_ + 버스: 高速 + 버스(bus)

<고유어+외래어>

가) \_\_\_\_\_ + 버스: 村子, 村落, 莊子 + 버스(bus)

나) \_\_\_\_\_ + 스타그램: 吃, 吃飯 + 스타그램(-stagram)

<외래어+외래어>

가) \_\_\_\_\_ + 텔: (living) + 텔(-tel)

나) \_\_\_\_\_ + 버스: (shuttle) + 버스(bus)

다) \_\_\_\_\_ + 텔: (one-room) + 텔(-tel)

라) \_\_\_\_\_ + 텔: (office) + 텔(-tel)

일단 어휘들은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그리고 외래어+외래어'와 같이 어종별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한자어+외래어' 어휘장은 결합되는 앞이나 뒤의 한자어를 보고 한자어의 일부를 적어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유어+외래어' 어휘장에서도 중국어 뜻풀이를 보고 대응되는 고유어를 쓰도록 하며 '외래어+외래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를 보고 단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93) 김의숙(2015:1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 활동은 외래어가 포함된 다양한 어휘의 형태론적 구조를 알 수 있고 어원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이 영어 CET 4급 수준 이상인 중국인 학습자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화 만들기**

오늘 배운 외래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만들고 이를 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6) 정리 단계(2분)**

단계	시간 (분)	학습 자료	학습 내용
정리	2	PPT	1.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 배웠던 외래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복습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통해 목표 지식을 학습자 인지 구조 내에서 더욱 명료화시킨다.

**4. 외래어 교육 · 학습 효과 검증**

본고에서 제안한 외래어 교육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효과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외래어를 학습할 때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한 외래어 지도 방법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외래어 지도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인 외래어 지도는 외래어에 대한 중국어 뜻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도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통제집단은 일반적인 외래어 지도 방법으로, 실험집단은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도 방법으로 외래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오답률과 점수의 향상도를 비교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안한 외래어 교육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입각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들이 학습했던

외래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 학습했던 조어법 내용을 활용하여 외래어를 얼마나 추측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기억력 고찰 부분, 기억하는 시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 방법이 학습자 외래어 어휘를 기억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 4.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실험 대상자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6명을 선정하였다. 먼저 학습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선정된 16명 참여자의 연령, 성별, 출신 학교 등 인적사항은 모두 비슷하지만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학습자를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분류를 위해 16명 학습자에게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분리하였다. 학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63> 실험 참여자 정보

	통제집단	실험집단
연령, 성별	평균22세, 여 7명/남 1명	평균22세, 여 6명/남 2명
대학	상해해양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
한국어 수준	중급	중급
한국에 거주 시간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이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통제집단에는 기계적 외래어 의미 교육, 즉 외래어의 중국어 의미를 단순히 소개하고 암기시키는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실험 집단에는 앞서 마련한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조어법을 활용하여 외래어의 단어 내부 구조 특징을 설명하고, 의미망을 활용하여 같은 의미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공통 접사나 어근으로 생성되는 외래어를 만들도록 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절차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 성적에 따라서 균등하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집단은 조어법을 활용하여 '교통수단'류, '공간 주택'류, '일상생활'류 외래어를 지도하였고 통제집단은 이런 외래어들의 뜻과 형태 구조를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전통식 어휘 지도법을 따랐다.

수업을 실시한 후에 외래어 지도 방법에 따른 외래어 이해 및 기억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장·단기 검증실험과 단어 생성 추측능력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단어 생성 추측능력 검증은 사전과 사후 학습자에게 똑같은 문제지를 주고 응답하도록 한 후 정답률의 변화를 관찰하여 수업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단기 검증 실험은 수업 후 하루 뒤에 실시하는 외래어 평가이고 장기 검증실험은 수업 후 일주일 뒤에 실시하는 평가이다.<sup>94)</sup> 마지막으로, 수집된 평가 자료들을 모아서 Excel, SPSS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외래어 이해 및 기억 능력을 분석하였다. 실험 절차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4> 검증 실험 절차 및 방법<sup>95)</sup>

실험 참여자 모집 → 사전 평가(평가지 1&2) → 실험/통제집단 분류 → 외래어 수업 진행 → '하루'뒤 단기 검증실험 실시 → '일주일' 뒤 장기 검증실험 및 단어 생성 추측 능력 검증실험 실시 → 검증 실험 결과 통계 및 분석
---

## 4.2. 실험 도구

본 검증 실험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사전평가지, 외래어 수업 지도안, 사후 평가지, 그리고 Excel, SPSS 프로그램이다.

### 1) 사전평가지

사전 평가의 목적은 실험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교통수단'류, '공간 주택'류, '일상생활'류 외래어의 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

94) 학생들은 부담을 갖고 집에서 공부를 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학습자들에게는 차후에 외래어 평가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 (김의숙 (2015:55)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95) 김의숙(2015:66)의 실험 설치 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였다.

습자 수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전평가지의 질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제시된 외래어를 보고 그 단어를 안다면 옆 칸에 중국어로 쓰는 간단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새로운 단어를 추측하는 능력에 대한 고찰 내용이다. 단어 추측능력 측정 평가지의 내용은 본설문지의 문항3의 내용 유형과 비슷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의미는 알고 있는 대로 쓰고, 모르는 것은 추측해서 쓰도록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연세한국어사전』(2006), 그리고 인터넷, 신문 방송에서 나타난 교육내용에서 투입하지 않는 외래어 12개를 선택하여 평가지의 질문2 부분의 내용을 만들었다. 또한, 선정된 12개 외래어의 난이도는 수업 시간에 투입한 외래어의 난이도와 비슷하다. 사전 평가지의 문제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96)

<표65> 사전 평가지 문제 내용 예시(1&2)

1. 알고 있는 외래어가 있으면 중국어로 써 주세요. 모두 몇 개 알고 있습니까?		모두 ____개
1. 노래텔: _____		
2. 고시텔: _____		
3. 셔틀버스: _____		

2. 다음 한국어 외래어의 의미를 중국어로 써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의미는 알고 있는 대로 쓰고, 모르는 것은 추측해서 쓰세요.)	
한국어 외래어	구조 분석 & 의미
버스걸	
개인택시	
데일리그램	

2) 외래어 수업 진행 방식 및 실험 외래어 목록

본고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업 방식만 다르게 두 집단의 학생들이

96) 본고에서 사용한 사전 평가지는 '부록2'에서 제시하였다.

공부한 시간은 똑같다. 실험집단은 앞서 제안했던 '조어법 활용의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습 및 활동 단계에서도 의미망을 활용하거나, 접사나 어근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활동, 단어의 형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활동, 그리고 외래어로 대화를 만들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한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조어법과 의미망을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뜻풀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습 활동 또한 단어 쓰기, 받아쓰기, 빈칸 채우기 등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넣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외래어는 모두 앞서 제시한 '조어법 활용의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의 각 의미 부류에 속하는 외래어 목록 중에서 추출하였다. 실험 외래어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6> 실험 외래어 목록

의미 부류	실험 외래어 목록
공간 주택	오피스텔, 이노스텔, 노래텔, 고시텔, 리빙텔, 아파스텔, 아파텔, 벤처텔, 콘도텔, 민텔, 미니텔, 원룸텔, 골프장, 스튜디오, 아파트, 클럽, 베란다, 캠페인, 컴퓨터실, 코너, 헬스클럽
교통 수단	공항버스, 셔틀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트럭, 터널, 터미널, 헬기
일상생활 관련어	카톨릭, 마사지, 미팅, 사우나, 인터뷰, 신용카드, 현금카드, 컨디션, 타입, 패션, 마라톤, 팬, 홈 쇼핑, 매너, 벤치, 보너스, 스타일, 에너지, 유머, 이미지, 콤플렉스, 맥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웹스타그램, 여행스타그램

### 3) 사후 평가지<sup>97)</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후 평가 단계에서는 장·단기 검증실험과 단어 추측능력 검증실험 두 가지 실험 유형으로 진행한다. 먼저, 장·단기 검증실험 평가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외래어 실험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외래어 수, 그리고 외래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후 평가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었다. 단기 실험은 외래어 실험 수업을 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장기 평가는 수업을 하고 일주

97) 본고에서 사용한 사후 평가지는 '부록3'에서 제시하였다.

일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다. 사후 평가는 사전 평가와 실험 외래어 어휘 목록이 동일하고 사전 평가보다 더 다양한 문제 형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 사람마다 사전 평가지, 단기 평가지, 장기 평가지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지가 부여된다. 장·단기 검증실험 부분의 평가지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문항에 1점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음, '일주일' 뒤 장기 기억 검증실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단어 추측 능력을 다시 검증한다. 단어 추측능력 검증 평가지는 사전의 추측능력 평가 내용과 똑같다. 사전과 사후 학습자의 추측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추측 정답률<sup>98)</sup>'의 수치로 학습자의 추측능력을 평가하였다.

### 4.3. 실험 결과 분석

장·단기 기억 평가는 모두 '학습자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외래어의 수'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각 외래어의 의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어의 형태 구조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맥락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만이 외래어를 잘 기억하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단어 추측능력 평가는 '추측한 단어 중 정확하게 추측하게 된 단어가 전체 추측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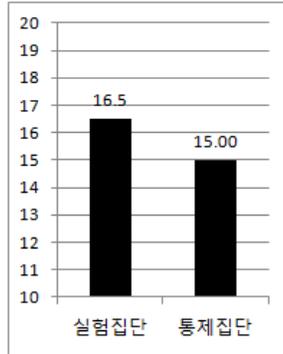
#### 1) 단기 기억 평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사후 평가 참여자의 답안을 모아서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습자가 맞힌 문제의 개수를 통계 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6> 참여자 단기 기억 평가 결과

---

98) '추측능력의 변화'를 고찰한 12개 단어들 중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몰라서 추측한 것도 있다. '추측 정답률'은 정확하게 추측한 단어의 개수가 추측한 전체 단어에서 차지한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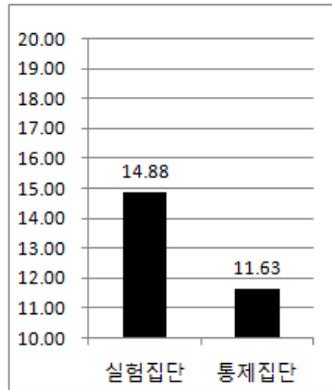


위의 그림을 보면, 단기 기억 평가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16.5,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15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가 실험집단보다 1.5점이 낮았다. 또한 사전 평가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7.5이었으나 사후 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16.5점으로 사전 평가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제집단도 마찬가지로 사전 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사후 평가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실험집단보다 1.5점 더 적은 향상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 모형이 외래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장기 기억 평가

본고에서 정의하는 '장기 기억 평가'는 외래어 실험 수업을 하고 나서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는 외래어 기억력 평가이다. 본고에서는 석용준(2000), 김의숙(2015)의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그 기간을 일주일로 정했고 일주일 뒤에 외래어 실험 수업을 진행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장기 기억 평가에서는 실험 외래어 목록과 문제 형식은 단기 기억 평가지와 동일하고 기간만 일주일 후로 달리 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장기 기억 평가는 단기 기억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같은 결과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장기 기억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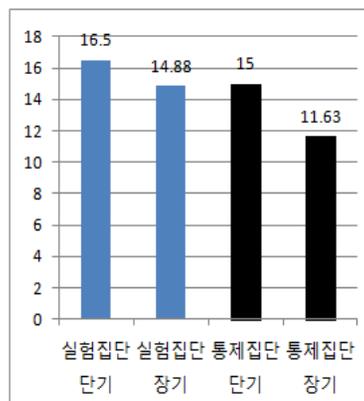
<그림7> 장기 기억 평가 결과



그림을 보면, 실험집단의 수치가 통제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수치를 통해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수업 모형이 학습자가 외래어를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많은 외래어를 암기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외래어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본고에서는 두 집단의 학습자의 외래어 망각 정도가 외래어 교육의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망각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단기 평가에서 기억한 외래어의 수와 장기 평가에서 기억한 외래어 수를 비교하여 집단별로 외래어의 망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망각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8> 망각 정도 측정 결과



<표67> 망각 정도 측정 결과

대상	단기 기억평가	장기 기억평가	차이
실험집단	16.5	14.88	-1.62
통제집단	15	11.63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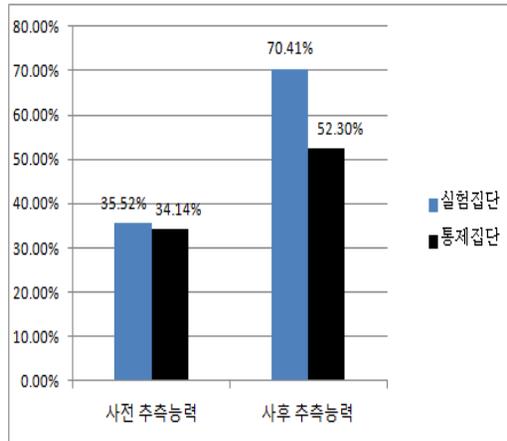
위의 도표를 보면 단기 기억 평가보다 장기 기억 평가를 했을 때 평균 1.62가 망각되었고 통제집단은 3.37이 망각되었다. 따라서 외래어 활용의 외래어 지도를 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 1.75가 덜 망각되었다고 보였다. 즉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래어 망각 속도가 느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외래어를 익힐 때 외래어의 단어 형태를 분리시켜 이해하고 같은 의미망 안의 외래어를 함께 기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험집단의 망각 정도가 유의미한지 표준편차와 t-검정을 계산해 보았는데 유의 확률이 0.012로 유의수준 5%에서 0.05( $P < 0.05$ )보다 작게 나와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통제집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 0.002( $< 0.05$ )로 그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제안한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이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3) 단어 추측능력 평가

단어 추측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평가 단계에서 사용한 평가지 2부분을 다시 이용하여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참여자의 실험 전후의 추측능력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8>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9> 실험 전후의 추측능력 변화 비교



그림을 보면, 실험집단(35.52%)과 통제집단(34.14%)의 사전 추측 평균 정답률은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사후 평균 정답률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정답률은 시험 전보다 거의 두 배정도 늘어난 70.41%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평균 추측 정답률은 사전 정답률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수업 모형이 학습자가 새로운 외래어를 생성하여 추측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습자의 사후 추측능력이 사전보다 늘어났지만 새로운 단어를 추측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추측한 학생이 여전히 있었다. 이들 학습자의 추측능력이 향상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의 추측 오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2개 단어를 조어 유형별로 나누어 학습자의 사전 및 사후 평균 추측 정답률, 그리고 추측 정답률의 변화 정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8> 조어 유형별의 사전 및 사후 추측 능력 비교

조어 유형	내부 구조 유형	단어	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 추측 정답률		변화		평균 추측 정답률		변화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합성형	외래어+외래	버스걸 뱅크시	16.6 7%	47.1 4%	30.4 8%	40.0 0%	16.6 7%	25.0 0%	8.3 3%	19.6 8%

외 래 어	어									
	외래어+한자어	개인택시 순환버스 모범택시 간선버스 택시비 좌석버스	42.1 4%	91.6 7%	49.5 2%		38.4 1%	69.4 4%	31.03%	
축 합 형	외래어+외래어	라이크스타그램 뷰티스타그램 테일리그램	22.0 2%	57.6 2%	35.6 0%	28.2 1%	12.5 0%	27.9 8%	15.48%	16.0 7%
	외래어+한자어	일상스타그램	12.5 0%	33.3 3%	20.8 3%		0.00 %	16.6 7%	16.67%	

합성형 외래어의 추측 정답률을 보면, 실험집단은 40.00%로, 통제집단은 19.68%로 증가하였다. 축합형 외래어의 추측 정답률의 경우, 실험집단은 28.21%로, 통제집단은 16.67%로 증가하였다. 즉, 합성형 외래어든지 축합형 외래어든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추측 정답률이 모두 늘어났다. 이를 통해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의 효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래어의 조어 유형별의 추측 정답률을 주목하여 살펴보면, 합성 형태의 외래어의 추측 정답률 변화는 40.00%인데 축합형 외래어의 추측 정답률 변화는 28.21%뿐이었다. 학습자는 합성형 외래어보다 축합형 외래어에 대한 추측 능력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래어를 교육할 때 특히, 축합형 외래어에 대해 교사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학습자의 단어 생성 능력, 새로운 단어 추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습 문제를 도입하여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본다.

다음, 검증 실험에서 제시했던 12개 단어의 내부 구조 유형을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2개 단어를 의미부류별로 분류하면 '버스'류에 속하는 단어가 '순환버스, 간선버스, 좌석버스, 버스걸'이 있고, '택시'류에 속하는 단어가 '개인택시, 모범택시, 밴택시, 택시비'가 있으며, '스타그램'류에 속하는 단어가 '라이크

스타그램, 일상스타그램, 뷰티스타그램, 데일리스타그램'이 있다. '버스'류 단어 중 '간선버스, 좌석버스'의 의미를 틀리게 추측한 학생이 몇 명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xx+버스'의 결합 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습자가 외래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잘 이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버스걸'은 외래어 '버스'와 외래어 '걸(girl)'이 결합하여 구성된 합성형 외래어이다. 학습자들 중 '걸'을 몰라서 '버스걸'의 전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았다. '간선버스'와 '좌석버스'의 경우, 두 단어는 모두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형 외래어이다. 한자어 '간선'과 '좌석'의 의미를 모르면 두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간선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울 것이다. '택시'류 합성형 외래어의 경우, '모범택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만 의미를 틀리게 판단한 학생이 좀 있었다. 이는 '모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밴택시'의 답안 양상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밴'을 접두사로 간주하여 어근인 '택시' 앞에 붙인다고 분석한 학생도 있었고, 어근 '밴'과 어근 '택시'가 결합한 조어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밴택시'를 파생형으로 판단한 학생의 경우, '밴'이라는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어의 형성 원리에 대한 이해 능력도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타그램'류 단어의 답안 양상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학생은 'xx+스타그램'의 결합 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었다. 이것은 '스타그램' 앞의 단어 'xx'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사회·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외래어 몇 가지가 합쳐서 구성된 단어의 경우, 내부 구성 및 각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학습자가 많다. 반면에, 외래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 정답률(49.52%)은 '외래어+외래어(30.48%)'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추측을 시도한 학생들 중 틀리게 추측한 학생들의 오답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래어의 내부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의미 추측에 실패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통제집단이든 실험집단이든 거의 모든 학생이 단어의 형성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의 각 내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모두 잘 알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단어의 조어 유형을 분석하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외래어의 조어 유형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검증할 수 있었다.

외래어 어휘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의 형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음운적, 의미적 측면, 그리고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 의사소통능력 등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인 능력을 모두 가져야 한다. 그러나 본고는 외래어 형태에만 주목하고자 하였으므로 나머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 4) 사후 인터뷰

조어법 활용의 외래어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실험 수업은 전체적으로 외래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2. 외래어의 조어 유형 및 단어 구조 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까?
3. 외래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배운 후 외래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사후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외래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외래어의 구조 유형 및 원리를 인식하게 된 후 새로운 외래어를 만나더라도 형태 분석을 통해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어법을 이해하게 된 후 외래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답하는 실험 참여자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외래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검증 실험 결과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증명된 조어법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어 어휘 학습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지도가 학습자가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99)</sup>

첫째,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어감을 빠른 속도로 신장시키고 외래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조어법을 이해하면 외래어의 형성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단어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어휘력의 확대 곧 언어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어휘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어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의 형성 원리를 알게 된 후 외래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조어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외래어의 교수·학습은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건 등을 이유로 하여 여전히 설명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외래어를 암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조어법을 이해하여 외래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사가 조어 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도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스스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스스로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유추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고,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한국어 외래어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어휘력이 보다 견고해 진다.

외래어 조어법을 분석한 후, 다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조어법과 외래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처음 접하는 외래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단어를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조어 방법을 통해 의미를 먼저 설명한 후, 같은 조어방법을 갖는 외래어들을 말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어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한국어 외래어 학습은 학습자의 어휘력이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다.

---

99) 오지현(2012:18)의 조어법이 어휘 교수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참고하여 사후 인터뷰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서 외래어 지도가 학습자가 외래어에 대한 이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하였다.

이처럼 어휘 체계와 특징을 반영한, 조어법을 활용한 어휘지도 방안은 학생들의 한국어 외래어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조어법을 활용한 외래어 어휘지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단어의 형태적, 의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화용적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의 질적, 양적 팽창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V. 결론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국제화는 언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외래어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외래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의 음운 규칙이나 표기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 외래어는 파생, 합성, 품사의 중복, 생략, 신조어 등 다양한 구조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단일 외래어보다 외래어와 다른 어종의 단어나 접사를 결합하여 구성된 합성어, 파생어의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어 조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외래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확립하고 조어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외래어 개념과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 유형을 살펴보았다. 조어법에 의해 한국어 외래어는 크게 원어형 외래어, 약어형 외래어, 파생형 외래어, 합성형 외래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9> 조어법에 따른 외래어의 유형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원어형 외래어
약어형 외래어	절단형 외래어 (A형/B형/Z형)	전부 절단형 외래어 (B형: B←AZB)
		후부 절단형 외래어 (A형: A←AZB)
		중간 절단형 외래어 (AB형: AB←AZB)
		두음절어형(AC ← AZB CZD )
	축합어형 외래어	AD형 외래어 (AD ← AZB CZD)
		'A-+X'형 외래어 (A-+X ← AZB X)
		'X+-D'형 외래어 (X+-D ← X CZD )
불규칙 축합		

파생형 외래어	접두 파생어형 외래어
	접미 파생어형 외래어
합성형 외래어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고유어 어근+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형 외래어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외래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한·중 외래어 형태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외래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국내 주요 대학교에서 사용한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에게 태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외래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강현화(2012, 2013)과 『신어 자료집』(2014)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III장에서는 학습자의 외래어 실제 이해 양상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외래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법과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II장의 이론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실험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를 해서 분석하였고, 범한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외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세웠다. 외래어의 조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외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의 원인에 근거하여 조어법을 활용하는 방법, 의미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OHE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모형과 교실 활동을 마련하였다. 또 이러한 수업 모형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실험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을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 교재 및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외래어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외래어에 대한 어감을 빠른 속도로 신장시키고 외래어를 오래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한국어 외래어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력이 보다 견고해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외래어의 형태적 측면을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음운적, 의미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보인다.

## 참고문헌

### 1. 한국어 교재 및 사전

-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1), 『한국어』 (1),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1), 『한국어』 (2),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1), 『한국어』 (3),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1), 『한국어』 (4),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외(2001), 『표준한국어』 第一冊,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외(2011), 『표준한국어』 第二冊,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외(2011), 『표준한국어』 第三冊, 北京大學出版社.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6),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2. 국내 논저

#### (1) 단행본

- 강현화(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 국립국어원.  
\_\_\_\_\_ (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4), 『어휘 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남길임(2014), 『2014년 신어 자료집』, 국립국어원.  
민현식(2004),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이지양(1996),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 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임홍빈 외 (2008), 『한국어문 규정의 이해』, 태학사.  
최용기(2003),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 (2) 논문

- 강경민(2013),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서술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나팔리아(2008),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한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성애(2007), 한중 외래어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중분(2008),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5-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5-175쪽.
- 김남예(2010), 학문 목적 외래어 목록 선정 연구, 한국어교육 2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9-86쪽.
- 김미나(2011), 한국어 학습용 외래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1978), 외래어 표기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어문연구 6-2, 한국언어교육연구원, 198-208쪽.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5-19쪽.
- 김수현(2005), <모던 조선 외래어 사전>의 외래어 표기 연구,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41-58쪽.
- 김윤화(2010), 현대 국어의 신어형성 양상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2015),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은행 어휘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6), 외래어 영어 발음 웹사이트 개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2009), 외래어 단어형성,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5-29쪽.
- \_\_\_\_\_ (2013), 외래어의 의미전이,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93-524쪽.
- 도원영·김의수·김숙정(2007), '본말, 준말' 류에 대한 재로: 사전의 어휘 관계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277-302쪽.
- 류철우(2011), 국어 줄인말 유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금선(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릉연(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속홍(2004),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조어법 대조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
- 문금현(2011), 인간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언어와 문화 7-3,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85-110쪽.
- 문승실(200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91-132쪽.
- \_\_\_\_\_ (2001), 간판 언어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221-259쪽.
- \_\_\_\_\_ (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5쪽.
- 박종후·하지경(2012), 한국어 학습자용 외래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20, 한국사전학회, 165-211쪽.
- 박지영(2004),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외래어 연구: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홍길(1983), 우리말 뒤섞임말의 유형별 고찰, 동의논집 8, 동의대학교, 23-45쪽.
- 변시내(2010), 신조어의 조어법과 한국어 교수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애(1992), 국어 어휘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연화(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2006),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117-142쪽.
- 송혜정(2007), 한국어 외래어의 의미 변이 연구-일상생활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용준(2000), 의미장 핵심 문법 기억 전략과 기억 단서가 외래어 어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41-63쪽.
- 심혜(2012), 한중 외래어 대조 연구: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상필(1998), 영어 절단어의 형성, 영미어문학 54, 한국영미어문학회, 217-234쪽.

- 오지현(2012), 조어법을 활용한 고등학교 중국어 어휘 지도 방안-2007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혜선(2013), 현대 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정·박덕유(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 대조 연구,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89-317쪽.
- 원경희(2006), 영어 외래어의 음운·형태·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홍연(2009), 국어 외래어 표기의 변천과 형태적·의미적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성희(2009), 한국어에 차용된 영어 외래어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약남(2012), 한중 외래어에 대한 비교 연구: 표기와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2013), 한국어 외래어 교육 연구-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97),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519-542쪽.
- 이기영(2013), 외래어 의미 변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의미에 대한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3-224쪽.
- 이덕호(1980), 언어 차용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외래어 연구의 역사와 외래어휘의 분류와 정의 문제, 한글 169, 한글학회, 221-261쪽.
- 이상숙(2005),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표기 오류 분석 및 교수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도·이영순(2013), 영어 차용어 축약과 혼성어, 코기토 7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30-352쪽.
- 이상혁(2002),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101-123쪽.
- 이소영(2011), 한국어교육에서 외래어 교육의 위상,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24-243쪽.
- \_\_\_\_\_(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과 변천과정,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미(2005), 생성어휘론에서의 영어어휘 의미구조,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5), 외국인을 위한 외래어 교육, 한국어학 28-0, 한국어학회, 167-183쪽.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원, 61-79쪽.
- 이정희(2002),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5-197쪽.
- \_\_\_\_\_ (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2008),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원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2001), 국어 어휘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467-490쪽.
- 이호승(2011), 절단어와 혼성어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79-103쪽.
- \_\_\_\_\_ (2014), 국어 혼성어와 약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39, 개신어문학회, 49-73쪽.
- 이혜은(2008), 콩글리시의 줄임말 형성: 형태 음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옥정(2016), 한국어 약어 유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3-40쪽.
- 장성희(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외래어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월형(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짜오원원(2012), 한국어 조어법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미·최동주(2007),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37-70쪽.
- 정근용(1998a), 현대 국어의 약어 연구: 자른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b), 현대 국어의 약어 연구: 자른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0-1, 청람어문학회, 97-135쪽.

- 정소(2013),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외래어 교육방안, 인문과학논집 46,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03-335쪽.
- 정정정(2012),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2013), 국어의 외래어 조어법과 의미변이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원(2000), 외래어 표기법, 국어문화학교 3, 국립국어연구원, 299-316쪽.
- \_\_\_\_\_(2004), 동남아시아 3개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원.
- 조개나(2012), 한국어 합성명사의 형태·의미적 특성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조은호(2006), 한국어 외래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일(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재은(2007), 외래어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363-390쪽.
- 최명숙(1997), 영어외래어의 어의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안나(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합성어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카노크완(1999), 현대 한국어의 파생어 형성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지혜(2012), 패션·의류 분야의 외래어 사용 실태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유(2005), 영어 어휘와 언어구조에 대한 언어입력강화의 효과: 의미중심형태교수법에서, 중앙대학교 박학학위논문.
- 황은하(2014), 효율적인 어휘 확장을 위한 외래어 효용성 연구-영어권 초급 학습의 외래어 지식의 양적 및 질적 측정을 중심으로-, 우리말 교육현장연구 8-2, 337-363쪽.
- 황재성(2006),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외국 논저

- 丁聲樹(2005), 『現代漢語詞典』, 北京商務印書館.
- 符淮青(1985), 『現代漢語詞彙』, 北京大學出版社
- 任琳琳(2012), 现代汉语外来语多角度研究, 辽宁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王晓因(2013), 浅析对译汉语中的外来语, 渤海大学学报, 2013年第5期.  
許玉橋(2011), 現代漢語才生詞研究, 揚州大學 學位論文.  
張董娟(2009), 汉语中外来语本地化的音系分析, 华东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周莉(2004), 對外漢語教學中的近義詞辨析, 《理論觀察》第一期.

Corder, Stephen Pit(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Press.  
Donmall, B, Gillian(1985), 『Language Awareness, NCLE Papers and Reports 6』, Centre for Information o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Downing, Pamela(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4,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Hymes, Dell(1972), Editorial Introduction to 'Language in Society', Language in Society 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urie, Bauer(1983), English Word-formation, Lingua 6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g, M. H.(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de Bot. K, Ginsberg, R. B. & Kramsch, C.(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hn Benjamins. pp. 39-52  
Michael, Lewis(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Journal of Literary Semantics 27-3, JULIUS GROOS.  
Paribakht & Wesche(1993,1997), Reading Comprehension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a Comprehension-Based ESL Program, Revue TESL DU Canada.  
Rutherford, William E.(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Terence Odlin(1989), 『Language Transfer: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외래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습니까?  
( )
-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B.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D. 기타
6. 자기가 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한국어 외래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 A. 외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B. 외래어와 영어 원어를 비교하여 설명했다.  
C. 외래어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했다.  
D. 외래어와 같은 뜻을 가지는 한국어 고유어를 같이 제시하여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E. 기타
7. 한국어 외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
- A. 전혀 필요 없다. B. 필요 없다. C. 보통 D. 필요 있다. E. 아주 필요 있다.
8. 한국어 교재에서 외래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 A. 다루어져야 한다. B. 다룰 필요 없다.
9. 외래어에 관한 현행 교육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 )
- A. 매우 불만족 B. 불만족 C. 보통 D. 만족 E. 매우 만족

### Ⅲ. 학습자 이해 능력 조사.

1. 韩语中的外来词按照单词的构造来分析，一共有以下四种形态。请判断每个单词对应的形态类型，并在该单词后的横线上用①~④标记。  
(한국어 외래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각 외래어의 형태 유형을 선택하여 쓰십시오.)

①英語單詞原始形態 (영어 단어 원래 형태):

예) 소파←sofa

②英語單詞的縮略形態 (영어 단어 축약 형태):

예) 에어컨←aircondition

③有前綴或后綴的派生詞形態 (접사가 있는 파생 형태):

예) 드라이브하다←드라이브(drive)+ -하다

④几个詞根結合的形態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형태):

예) 휴대폰←휴대(攜帶)+ 폰(phone)

( 1 ) 물컵 : \_\_\_\_\_

( 2 ) 노크하다 : \_\_\_\_\_

( 3 ) 신용카드 : \_\_\_\_\_

( 4 ) 베란다 : \_\_\_\_\_

( 5 ) 오피스텔 : \_\_\_\_\_

( 6 ) 소개팅 : \_\_\_\_\_

( 7 ) 카메라: \_\_\_\_\_

( 8 ) 전자레인지 : \_\_\_\_\_

( 9 ) 아파트 : \_\_\_\_\_

( 10 ) 오티 : \_\_\_\_\_

( 11 ) 비닐봉지 : \_\_\_\_\_

2. 请选出能和以下外来语结合的单词，并写出结合后的新单词。(可重複選擇)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 다음 외래어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쓰십시오.)  
 (복수선택가능)

보기:   밀리   전기   킬로   관광   공항   백 (bag)  
 카드    폰    신용    교통   전자   강좌   고속  
 센터   인터넷   홈    대학   서들   현금   범죄  
 개그   배달   엘리트

- (1) 미터: \_\_\_\_\_
- (2) 버스: \_\_\_\_\_
- (3) 쇼핑: \_\_\_\_\_
- (4) 핸드: \_\_\_\_\_
- (5) 카드: \_\_\_\_\_
- (6) 레인지: \_\_\_\_\_
- (7) 사이버: \_\_\_\_\_
- (8) 맨: \_\_\_\_\_

3. 请写出以下单词的中文解释，并分析单词构成。(不认识的单词可以猜测，猜不出的情况下请在问题3下方用'√'标记)  
 (다음 단어의 중국어 의미를 쓰시고 단어를 분석해주십시오. 모르시면 추측해보세요. 추측할 수 없으면은 질문3에서 '√'로 표시하세요.)

단어	질문1: 중국어 의미	질문2: 뜻을 추측해보기	질문3 :	질문4 :
			모른다	단어 분석하기
보기: 휴대폰	手機			攜帶+ phone
교카충				
오피스텔				
노관심				
아파트				
바보틱				
보디빌딩				
싱크대				
소셜력				
개과				
허니잼				
먹스타그램				
힐				
베커상				
전자레인지				
종이컵				
핸드백				
골프장				

비닐봉지				
마을버스				
골프공				
신용카드				
냉커피				
비닐장갑				
시내버스				
스키장				
모범택시				
컴퓨터실				
공항버스				
카드놀이				
테니스장				
에어컨				
반코트				
고속 터미널				
녹음테이프				
헬스클럽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사전 평가지1

\*알고 있는 외래어가 있으면 중국어로 써 주세요.  
모두 몇 개 알고 있습니까?

모두\_\_\_\_\_개

1. 노래텔:\_\_\_\_\_
2. 고시텔:\_\_\_\_\_
3. 셔틀버스:\_\_\_\_\_
4. 먹스타그램:\_\_\_\_\_
5. 아파텔:\_\_\_\_\_
6. 마을버스:\_\_\_\_\_
7. 리빙텔:\_\_\_\_\_
8. 원룸텔:\_\_\_\_\_
9. 고속버스:\_\_\_\_\_
10. 공항버스:\_\_\_\_\_
11. 셀스타그램:\_\_\_\_\_
12. 웹스타그램:\_\_\_\_\_
13. 미니텔:\_\_\_\_\_
14. 여행스타그램:\_\_\_\_\_
15. 컴퓨터실:\_\_\_\_\_
16. 오피스텔:\_\_\_\_\_
17. 버스카드:\_\_\_\_\_
18. 빌딩:\_\_\_\_\_
19. 스튜디오:\_\_\_\_\_
20. 관광버스:\_\_\_\_\_

## [부록 2] 사전 평가지2

### - 단어 생성 추측능력 평가지

1. 다음 한국어 외래어의 의미를 중국어로 써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의미는 알고 있는 대로 쓰고, 모르는 것은 추측해서 쓰세요.)

한국어 외래어	구조 분석 & 의미
버스걸	
개인택시	
라이크스타그램	
순환버스	
일상스타그램	
모범택시	
간선버스	
뷰티스타그램	
택시비	
밴택시	
데일리그램	
좌석버스	

## [부록 3] 사후 평가지

### -장단기 기억능력 평가지

1. 다음 외래어와 알맞은 뜻을 연결하세요.

- 
- |           |   |
|-----------|---|
| (1) 민텔•   |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
| (2) 오피스텔• | •호텔 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호텔같은 집을 말한다.                      |
| (3) 리빙텔•  |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춘 민박.   |
| (4)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   |

- 
- |           |   |
|-----------|---|
| (1) 공항버스• | •공항을 기점으로 하여 해당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   |
| (2) 마을버스• |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다니는 버스  |
| (3) 셔틀버스• | •고지대·아파트와 지하철역 사이 등에 연계교통 수단으로 운행하는 미니버스  |
| (4) 고속버스• | •일정 속도 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일반 버스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설계 제작된, 고속 운송수단의 하나인 여객 고속 수송용 대형 버스의 총칭 |
-

- |             |   |
|-------------|---|
| (1) 멕스타그램•  |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br>또는 음식 사진을 주로 올리는 SNS |
| (2) 셀스타그램•  |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                                     |
| (3) 여행스타그램• | •여행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                              |
| (4) 웹스타그램•  | •개인 컴퓨터용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br>작된 누리 소통망 서비스        |
- 

**2. 다음 외래어를 보고 중국어로 쓰세요.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분석해 주세요.**

- 1) 노래텔: \_\_\_\_\_
- 2) 관광버스: \_\_\_\_\_
- 3) 스튜디오: \_\_\_\_\_
- 4) 미니텔: \_\_\_\_\_
- 5) 컴퓨터실: \_\_\_\_\_

**3.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

<택시를 탄다>

가: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서울대 근처에 있는 녹두거리로 가 주세요.

가: 예.

(곧 도착)

나: 앞에 삼거리에서 큰 (a)\_\_\_\_보이지죠.

가: 네, 거기서 내리실 거예요?

나: 아니에요.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골목 맨 끝에 있는 (b)\_\_\_\_앞에 세워주세요. 저는 거기서 살아요.

가: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세요?

나: 네, 학생이에요. (c)\_\_\_\_\_로 결제할게요.

가: 네, 됐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

1) (a)에 들어갈 알맞은 외래어는 무엇입니까? (            )

① 공항버스 ② 웹스타그램 ③ 빌딩 ④ 클럽

2) (b)에 들어갈 알맞은 외래어는 무엇입니까? (            )

① 고시텔 ② 오피스텔 ③ 마을버스 ④ 민텔

3) (c)에 들어갈 알맞은 외래어는 무엇입니까? (            )

① 시내버스 ② 셀스타그램 ③ 여행스타그램 ④ 버스카드



## ABSTRACT

# A Study on Teaching Loan words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the Use of Word-Formation-

LI MANLI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educational institutes put emphasis on the increasing of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That is to say, they focus more on the fluency than accuracy. As one of the three main tools of communication (the other two being pronunciation and grammar), lexicon is considered to be the dominant factor for a fluent communication. Also, when practic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ome other functions of language, vocabulary is used as a vital material. Korean lexicon system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Korean native words and loan words. In this research I put my focus on Korean loan words. I tried to find the form categories of Korean loan words and find some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the Korean loan words by making full use of word-formation.

In Chapter2, I discussed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loan words on the basis of existing research. Knowledge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word formation in learners' L1 and L2 will be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L2 word-formation errors. Therefore, I compared Korean loan words with Chinese loan words mainly focusing on two language loan words' formation. In order to know the overall situation of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y, I analyzed two kinds of Korean textbooks which are mainly used by Chinese students in China. Also, I did a survey to evaluate learners' attitudes about Korean loan words and their abilities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Korean loan words. Based on the Korean textbooks and loan words dictionaries, I selected some Korean loan words for Chinese learners.

In Chapter 3, I presented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In order to grasp the reason why they had written down the incorrect answer face-to-face interview has been carried on next. The questionnaire and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conducted and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Chapter 2.

In Chapter 4, I expressed the destination and goals of the Korean loan words education and tried to find how to make full use of word-formation in Korean loanwords teaching and learning. With the theory of 'observation-hypothesis, experiment and practice' I prepared classroom activities and lesson models for validating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n the last Chapter, a conclusion was drawn based on the resul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state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oanwords, word-formation, Chinese learner, vocabulary education.

**Student Number:** 2015-22190